

# H ART LAB 1

Artist –  
Critic

Creative  
Studio



H ART LAB 소개	ABOUT H ART LAB	7
인사말	Greetings	8
기획의 글	Foreword	10
H ART LAB 창작자 : 초대작가	H ART LAB creator: Artist Part 1.	14
김보희	Bohie Kim	16
이강소	Kangso Lee	30
H ART LAB 창작자 : 작가	H ART LAB creator: Artist Part 2.	44
구혜영 × 김영남	Hyeyoung Ku × Youngnam Kim	46
나나와 펠릭스	Nana & Felix	58
박혜수	Hyesoo Park	70
이여운	Yuwoon Lee	82
이장원	Jangwon Lee	94
H ART LAB 창작자 : 이론가	H ART LAB creator: Critic	106
김보라	Bora Kim	108
조숙현	Sookhyun Cho	114
조재연	Jaeyeon Cho	122
H ART LAB 프로그램	H ART LAB PROGRAM	138
전시 및 프로그램	Exhibition & Program	140
강연	Lecture	142
오픈스튜디오	Open Studio	144
매칭 프로그램	Artist & Critic Matching Program	155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 H ART LAB은 국내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스튜디오입니다.

시각예술 작가와 이론가의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H ART LAB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 작가와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강연 등을 통해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예술, 창작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창작자들이 가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가 양질의 결과물로 이어져 동시대 예술 안에서 예술의 가치와 담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H ART LAB을 거쳐 간 작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꾸준히 입주자들의 후속 활동을 지지하고자 하며, 이는 H ART LAB 입주자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호반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합니다.

H ART LAB of Hoban Cultural Foundation is a creative studio that supports domestic artists and critics for concentrating on their artworks in a stable environment.

H ART LAB runs various programs to support the cre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of artists and critics. Through the programs such as exhibitions and support for research projects, matching programs of artists-critics, and lectures. H ART LAB established as an art and creative place where artists and critics can share opinions and exchange. H ART LAB supports artist's ideas, research leads to quality results and supports shaping the values and discourse of art within contemporary art. In addition,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with artists and critics who have gone through H ART LAB, this creation studio steadily supports the artist's follow-up activities. Finally, further organization as a visual art platform for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b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and networks of H ART LAB artists and critics.

# 인사말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호반문화재단은 대중과 함께 문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켜 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반문화재단의 운영 미션은 대중과 문화예술, 지역사회와 글로벌을 연결하고 나아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H ART LAB은 시각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호반파크 내에 창작공간을 조성한 창작스튜디오입니다.

H ART LAB의 첫 시작인 1기 입주자 12인은 초대작가인 김보희, 이강소 작가와 함께 5팀의 시각예술 작가와 3명의 이론가가 선발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입주자들은 창작 활동과 더불어 H ART LAB 내에서 전시, 프로젝트 발표, 교류프로그램 참여 및 오픈스튜디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하여 H ART LAB의 시작점을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깊은 연구 끝에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듯이 창작자의 연구 과정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입주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갖는 열기는 더욱 뜨거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이어나가 균형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호반문화재단도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창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술로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oreword

Hyunhee Woo  
Chairman of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operates cultural and artistic projects to contribute to society by realizing various values through culture with the public.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s mission is to establish a complex culture and arts platform that can connect the audience, culture and arts, local communities, and global, and represent Korean contemporary art. H ART LAB is a creative studio located in the Hoban Park so that artists and critics can work in a stable environment.

The H ART LAB the first artists and critics were composed of masterpiece artists who are Bohie Kim, and Kangso Lee, five artist groups and three critics. For about a year from March 2021, artists and critics present their results through various programs, including exhibitions, project presentations, exchange programs, and open studios. Just as high-quality results can be produced after a deep research by creators, this project, which supports the creator's research process, is supporting residents' works with a paradigm that values the process away from the focus of results.

In the unprecedented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the culture and arts society, but I think the enthusiasm for artists' creative activities was even hotter this year.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will also be accompanied by the artist so that artists can continue their passion and build a balanced cultural and artistic ecosystem. Furthermore, we think it will be a meaningful step if we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creative community through this. We will work hard to communicate with art and create sustainable value.



#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망

김성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교수  
캔파운데이션 기획이사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국 공립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미술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인 지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의지를 북돋우며, 예술작업을 위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본적 개념은 예술가들에게 기존 작업공간이나 거주 지역을 바꾸어 새로운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류기간 동안 예술가들 간의 상호 교류와 예술계와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술가들의 참여도 높은 편이다.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는데, 국공립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창동 레지던시와 고양 레지던시가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체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 주도 프로그램 중 기업지원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문화후원으로서 시작한 예술가 창작스튜디오프로젝트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전략의 한 일환으로서도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기업주체로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1998년 ㈜레더데코 씬지가 조성하여 운영했던 씬지스페이스는 실험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국내 창작스튜디오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00년에 대유문화재단이 설립한 경기도 광주의 영은 창작스튜디오는 창작스튜디오 용도로 새롭게 건축해서 운영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미문화재단의 한미사진창작스튜디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금호문화재단의 금호창작스튜디오, 가나아트센터가 설립한 가나아트리에와 캔파운데이션이 설립한 명륜동스튜디오와 개인이 설립한 문화예술촌 쟁이골, 하제마을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에서 시작한 H ART LAB은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상황에서 시작된 예술가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서 호반기업 사옥 한 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H ART LAB의 특성은 이미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호반그룹 본사 4층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예술가와 창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예술가의 작업과정을 근접한 시각으로 기업근무자들에게 노출시킴으로서 창의적인 체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예술가 모두에게 새로운 현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 ART LAB은 10개의 창작스튜디오 중 3개를 비평가들을 위한 창작실로 기획되어 있다는 점은 예술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작업에 대한 토론과 비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현 미술계 환경에서 작가들의 작업실, 바로 그 현장에서 비평가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대부분 예술가들은 고정적인 직업과 수입 부족으로 창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 공간지원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기관의 창작스튜디오 수의 증가에 비해

창작공간간의 차별화를 통한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기업의 본사 사옥 한 층을 과감히 할애해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지원함으로 기업환경 속에서 예술가들이 직접 개입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H ART LAB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그 만큼 차별화된 신선한 프로젝트로 평가받을 수 있다. 때문에 H ART LAB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이론가 등 예술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는 예술·창작의 장으로 예술가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창조적인 문화생산센터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호반문화재단의 목적이 현실화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예술가 후원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예시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국가 예술의 부흥에는 메디치(Medici) 가와 같은 기업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를 뛰어넘는 진리임을 알고 있다.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 사업이 그 빛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예술분야 메세나 활동의 전진기지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H ART LAB Creative Studio Program

**Sunghye Kim**

Professor of Art Planning,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Planning Director, CAN Foundation

Creative studio programs for artists are operated in various forms not only in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in corporations and art groups. As basic suppor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rtists are encouraged to create by providing a creative space, and hardware and software support for artistic work is also provided. The basic concept of these programs is to provide artists with a working space so that they can focus on their creative activities in a new environment by changing their existing working space or living area.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is also high in that it allows for mutual exchange between artists and a network with the art world during their stay. The operating entities are broadly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re are Changdong Residency and Goyang Residency run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and various residency programs run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Incheon, Gwangju, Busan, and Daegu. In particular, it is judged that among the private-led programs, the company-supported creative studio program is achieving various results. The artist creation studio project, which a company started as a cultural sponsor, is playing a growing role as a part of a marketing strategy that raises the brand value of the company. Among the programs operated by the company, Ssamzie Space, which was created and operated by Leather Deco Ssamzie in 1998, has greatly contributed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a domestic creative studio through the operation of an experimental residence program. The Youngeun Creative Studio in Gwangju, Gyeonggi-do, established by the Daeyu Cultural Foundation in 2000, was newly built and operated for the purpose of a creative studio. In addition, the Hanmi Photo Creation Studio of the Hanmi Cultural Foundation, the Kumho Creative Studio located in Icheon, Gyeonggi Province, the Gana Atelier established by the Gana Art Center and the Myeongryun-dong Studio established by the Can Foundation, and the culture and art villages Jaegol and Haje Village established by individuals. and the like.

H ART LAB, which started at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in Hoban group. in 2021, is an artist creation studio program that started in the unexpected and serious situation of Corona, and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artists in that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Hoban corporate office building. The characteristic of H ART LAB is that it is located on the 4th floor of the headquarters of Hoban, where start-ups are already located, so it can create a synergistic environment through communication with artists and founders, and provides a close view of the artist's work process. In that it can induce creative experiences by exposing it to corporate workers,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a new field for both companies and artists. In addition, the fact that H ART LAB has 3 out of 10 creative studios designed as creative studios for critics is a very attractive characteristic for artists. In the current art world environment, where there are no opportunities to discuss and Art Criticize their own work, it is very encouraging for young artist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network with critics in the artist's studio, right on the spot.

The creative studio program is basically a project that supports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by providing a work space for creative activit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ost artists are limited in their creative activities due to lack of fixed jobs and income, and in this situation, creative space suppor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for artists' creative activities. However, compared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reative studios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s well as in the national public, diversity through differentiation between creative spaces is insufficient. At such a point in time, the H ART LAB creative studio program, which boldly dedicates one floor of the corporate headquarters to support artists as a creative spac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rtists to directly intervene and communicate in a corporate environment, provides a fresh and differentiated experience. It can be evaluated as a project. For this reason, the H ART LAB creative studio program aims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and network of artists and establish itself as a creative cultural production center as a place for art and creation where various people in the art world, including artists and theorists, meet and exchange opinions'. I think it will be a practical opportunity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The patronage of artists of the Italian family of Medecis during the Renaissance is a well-known historical example. However, even in modern times, we know that it is a truth that transcends history that the revival of national art must be supported by a corporate spirit like the Medici family. It is expected that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project of Hoban Enterprises will not lose its shine and will become a forward base for continuous mecenat activities in the art field.

# H ART LAB Creator

Artist  
Part 1.

김보희

Bohie Kim

이강소

Kangso Lee



김보희

Bohie Kim

Towards  
Color on Canvas, 194x520cm  
2021







## '두터운 맥락의 친밀성'으로 식물을 보다

심상용

미술사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몇 해 전 나는 김보희의 바다에서 심의 조건을 목격했었다. 그 심은 적어도 내겐 '영혼의 조건'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 바다의 수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잔잔한 물결이 찰랑거렸던 김보희의 화면에 이번엔 녹색 식물들이 무성하다. 바다가 수평의 세계였던 반면, 식물은 수직의 질서를 대변한다. 바다와 강의 고유함이 '흐름'이라면, 후자의 것은 '자람'이다. '흐름'과 '자람'은 하나의 거시적인 순환 안에서 하나로 만난다.

초록이 무성한 이 세계는 대지의 산물로서 생명감으로 충만하다. 그의 식물들은 신선한 수액을 빨아들이고, 온몸으로 햇볕에 반응한다. 그것들은 모두 '위'를 향해 자란다. 그 방향은 생명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줄기와 크고 작은 잎새들은 가장 고전적인 동시에 가장 전위적인 생명형태(life form)의 전형이다. 그 내면에선 녹색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수액은 녹즙이 되어 전신을 돌고 말초에까지 이른다. 대기는 그 생명의 체화를 촉진시킨다. 그것은 '생(生)' 자체의 현현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는 신비다!

식물들은 하나같이 경외로운 아름다움을 웃입고 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조차 그것 하나보다 못 한 차림으로 지냈다"던 그런 웃이다. 그 생(生)으로부터 비롯되는 윤기는 오늘날 우리의 문명화된 도시와 메마른 현대적 삶이 결칠 것을 권장하는 화려하게 치장된 화색의 망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생명이, 그 신비가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잘난 척 하는 문명이 아직 단 한 번도 그에 버금갈만한 온전함을 만들어낸 적이 없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전에 김보희는 우리에게 강과 바다의 심오한 청색을 소개해 보여주었다. 그것은 청색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나무와 수풀과 잎사귀들의 초록이다. 약간 남색이 섞인 청록에서 투명한 담록에 이르기까지, 올리브 빛이 도는 것에서 에머럴드 톤의 것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녹색은 심지어 넓고 윤기나는 것과 비좁고 깔끄러운 잎의 표면까지, 그것들의 다채로운 피부조차 섬세하게 포착해낸다. 붓질은 담백하고 정직하며, 기교의 덧에 걸리지 않는다.

작가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대신, 대면(對面)한다. 따듯하게 만나고 깊게 이해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르면, 이해는 그로 인해 "대상을 친밀하게 알고, 그 내부로 꿰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심층을 꿰뚫는 순수한 시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어떤 내밀한 차원에서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이해, 즉 대상과의 하나됨의 경험은 우리를 놀라운 진실의 세계로 안내한다. 그것은 존 던(John Donne)의 다음과 같은 시구에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인식이다. "인류는 하나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니. 사람은 아무도 저 홀로 온전한 섬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 DNA에 대한 새로운 지식 덕에 우리는 이제 모든 생명체가 그 놀라운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원에서 유래되었음을 알고 있다. "박쥐나 딱정벌레, 박테리아 할 것 없이 ... 지구상 어디에 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똑같은 사전을 사용하고 똑같은 유전암호를 알고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다."(메트 리들리, Matte Ridley)

화가는 유전공학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려 왔던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시선을 매개로 하는 깊은 이해로 대상의 내부 깊숙이 침투하고, 마음으로 만나는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영혼을 소유한 화가의 시선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진실을 소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화가는 거대한 보편성 대신, 사물의 양태들 하나하나와 따뜻하게 만남으로써 생명과 대면한다. 즉, 보편적 관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식물, 하나의 잎사귀를 그림으로써 가장 구체적으로 그것을 점유하는 것이다.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경이를 느껴야 할 대상은 -플라톤의 의미에서의- 형상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25만개의 서로 다른 잎사귀이며, 본질적인 새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9천종의 새이고, 다른 모든 언어를 포괄하는 초(超)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6천 개의 언어이다.

김보희의 녹색의 세계는 우리를 이와 같은 사물과의 구체적인 대면으로 안내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대상과 곧 친밀해지고, '진정으로'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즉각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라는 뻔뻔스러운 가정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도 그 녹색의 생명체들만큼이나 성장과 쇠퇴의 법칙에서 면제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들처럼 우리도 현재는 빛나거니와, 하시라도 고갈되거나 메마르고 앙상해질 수 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은 자연의 하수인이 아닌 것만큼이나 주인 또한 아니다. 작가의 시선에 편승함으로써 초록에 대한 우리의 맹목(盲目)이 해소되고, 감각의 우둔함이 완화된다. 그리고 그 덕에 우리는 큰 수고 없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누락하거나 간과하는 것들이 많은지를 자각하면서 말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물과의 접촉이 부재하고, 타인이 시야에서 사라지며, 아퀴나스적인 의미의 심오한 이해가 불구가 되어버린 마당에 이는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초현대적 삶은 점점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좀처럼 체계를 작동시키는 조건들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점차 품위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나이든 사람들은 지나치게 유행을 좇고, 학생들은 자신이 세련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리 호이나키는 이들을 '특이하게도 현대적인 형태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죄 없는 양들'에 비유했다. 오늘날 미(美)에 관련된 사상들은 그것을 경영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심 속에서 매우 정교한 것이 되었지만, 삶과 거의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이러한 정교한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것들은 서구 계몽주의의 달갑지 않은 유산인 오만의 결과로서, 진정한 의미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자질과 무관한 것들이다.

품위란 어떤 유형화된 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존중하고, 겸양과 예의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절제하고, 품위없는 것이 되어가는 것은 무엇이 좋고, 나쁜 취미인지에 대한 감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희의 식물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무뎠진 생의 정서와 품격을 전해준다. 이는 가르치려 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의 만남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드는 태도들은 주제넘은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점검할 어떠한 기준도 부재한 상태에서 과거를 단죄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주제넘은 짓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러한 믿음은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허영심은 우리시대의 전형적인 죄악이다." 그러므로 다시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19세기의 랍비 삼손 라파엘 히르쉬(Samson Raphael Hirsch)가 '자연세계에 적용되는 정의'라고 말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여야 할 존중심을 마땅히 하등생물에게도, 이 모든 생명을 품에 안아 부양하는 땅에게도, 동식물 전부에게도 보여야 한다." 즉, '두터운 맥락의 친밀성(Context-laden Intimacy)'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화가 김보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이다.

\* 본 원고는 2008년 갤러리 인 <TOWARDS> 전시도록에 수록된 원고를 재수록한 것입니다.











# Seeing Plants through 'Context-laden Intimacy'

**Sangyong Shim**

Ph.D. Art History,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few years ago, I witnessed the conditions of rest in Bohie Kim's *The Sea*. That rest, at least for me, was a 'condition of the soul'. The surface of the sea was calm and peaceful. On Bohie Kim's screen this time, where the gentle waves fluttered, green plants are luxuriant. Whereas the sea was a horizontal world, plants represent a vertical order. If the uniqueness of the sea and river is 'flow', the latter is 'growth'. 'Flow' and 'Growth' meet as one in one macroscopic cycle.

This green world is full of life as a product of the earth. Her plants suck in fresh sap and react to the sun with their whole body. They all grow toward the 'up'. Its direction is full of the tension of life. Its stem and leaves, both large and small, are typical of the most classic and at the same time avant-garde life form. Inside, a green revolution is underway. The sap becomes green juice, which goes around the body and reaches the periphery. The atmosphere promotes the embodiment of that life. It is a mystery that cannot be said other than the manifestation of 'life' itself! Each plant is clothed with awe-inspiring beauty. It is the kind of clothing that says, "Even Solomon, who enjoyed all his glory, spent less than one of them." The luster that comes from that life cannot even be compared with the lavishly adorned gray cloak that our civilized cities and sterile modern life are encouraged to wear today. We intuitively know that life, its mystery, is fading away, and that our ostentatious civilization has never yet produced a sanity to rival it!

Previously, Bohie Kim showed us an introduction to the deep blue color of rivers and seas. It was made possible by his deep understanding of blue. This time it is green of trees, bushes and leaves. In the work, the colors range from a slightly indigo blue green and a transparent pale green, even to olive and emerald tones, and the artist's greens include even wide, glossy and cramped, gritty leaf surfaces, even their colorful skin is delicately captured. Brush strokes are simple and honest, and do not fall into the trap of finesse.

Instead of looking at and observing them, the artist confronts them. We meet warmly and understand deeply. According to Thomas Aquinas, understanding is thereby "to know an object intimately and to penetrate into it". It is to see what is in it with a pure perspective penetrating the depths. It's about getting into it and making it a part of me. That is, to realize that it is one in some inner dimension! This deep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becoming one with the object, guides us into the wonderful world of truth. It is the awareness of 'things-in-one' as implied in the following passage of a poem by John Donne.

"Humanity is one book written by one author.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Thanks to our new knowledge of DNA today, we now know that all living things, despite their amazing complexity, came from a single origin. "No bats, no beetles, no bacteria... Every living thing, whether it be animals or plants, uses the same dictionary and knows the same genetic code. All life is one." (Matte Ridley)

Painters were people who intuitively knew this before genetic engineering even existed. Through his deep understanding through his own gaze, penetrating deep within the subject and meeting with his heart, the gaze of an artist possessing a serious soul has



introduced us to a wonderful truth. However, instead of the great universality, the artist confronts life by warmly encountering each aspect of an object. In other words, he does not paint a universal idea, but rather occupies it most specifically by painting a single plant or a single leaf. "It is not the form – in the Platonic sense – of what really exists, and we should truly marvel at, but the 250,000 different leaves that exist in reality, not the essential birds, but 9 that exist on earth. It is a bird of a thousand species, and it is not a super-language that encompasses all other languages, but is actually a 6,000 language spoken throughout the world.

Bohie Kim's green world guides us into concrete encounters with such objects. As a result, we soon become familiar with the object and begin to see it 'really'. We immediately learn that the blatant assumption that we are their masters is false. We are not as exempt from the laws of growth and decline as those green creatures. Like them, we shine in the present, but at any time we can become exhausted or dry and bare. Anything that applies to them can also apply to us. Man is not as much a master as he is not a servant of nature. By riding on the artist's gaze, our blindness to green is resolved, and the dullness of the senses is alleviated. And thanks to that, we enter the deeper world without much effort. Realizing how superficial our perceptions are and how many things we miss or overlook. In today's world where contact with objects is absent, others disappear from view, and the profound understanding of meaning by Aquinas is mutilated, this is a very valuable experience.

Our ultramodern life is becoming more and more systematized and systematized. In it, we seldom get out of the conditions that make the system work. Our life is gradually losing its dignity. Many older people are too trendy, and students are too engrossed in the idea of being sophisticated. Lee Hoinacki likens them to 'innocent sheep being led to an unusually modern form of slaughter'. Thoughts related to beauty today have become very sophisticated in the spirit of competition among the experts who run them, but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se sophisticated things is that they have little to do with life. These are the results of arrogance, the unwelcome legacy of the Western Enlightenment, an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qualities that create true character.

Dignity does not mean any type of formality. It is to respect the world we live in and to uphold the virtues of humility and courtesy. Our way of life is becoming unrestrained and dignified because we are gradually moving away from our sense of what is good and what is a bad hobby.

Bohie Kim's plants convey the emotion and dignity of life that we have sensibly dulled.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rying to teach. Attitudes that try to regard this encounter with nature as outdated are presumptuous. It is not presumptuous to try to condemn the past in the absence of any standard to check one's current position. "This belief comes from vanity. Vanity is a classic sin of our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again. The direction is what the 19th century rabbi Samson Raphael Hirsch called "justice applied to the natural world".

"The respect that should be shown to man should be shown to the lower creatures, to the land that embraces and supports all these living things, and to all animals and plants." In other words, it looks at the world with 'Context-laden Intimacy', as Bohie Kim is doing at this moment.

This is republished from an exhibition manuscript of the 2008 <TOWARDS>, Gallery IN.



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명예교수		녹미회, 채연전 회원
1974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1993-2017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교수
1976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순수미술과 졸업 (혜원 신윤복 연구)	2008-201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관장

개인전	주요 단체전
2022 《the Days》,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22 《인덱싱 더 네이처: 가까운 곳 또는 먼 곳으로부터》, No.9 코크 스트리트, 런던
2021 《Towards》, 캔 파운데이션, 서울	2021 《꽃이 웃고, 작작 새가 노래하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2020 《Towards》, 금호미술관, 서울	2021 《식물예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2017 《19702017 KimBoHie》, 이화아트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이향의 품》, 이중섭미술관, 제주
《자연이 되는 꿈》, 학교재, 서울	2019 《풍경공장》, 갤러리화이트원, 서울
2015 《김보희 개인전》, 이화-한경 ACE갤러리, 서울	《제주작가 조명전: 99+1》, 제주의립미술관, 제주
《Towards》, 트리니티갤러리, 서울	2018 《화연(畵緣)》, 스페이스에나르갤러리, 제주
2014 《Towards》, 신세계갤러리, 서울	《식물학개론》,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
2013 《Towards》, 학교재, 서울	2016 《자연, 그 안에 있다》, 뮤지엄산, 원주
2011 《Towards》, 스페이스캔 캔 파운데이션, 베이징, 중국	《숲의 숨》, 신세계갤러리, 인천
2010 《Towards》, 캔 파운데이션, 서울	2015 《바보전》, 복합문화공간에무, 서울
2008 《Towards》, 갤러리인, 서울	《경기 팔경과 구곡: 산-강-사람》,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6 《In Between》, 학교재, 서울	2014 《정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04 《김보희 개인전》, 카이스갤러리, 서울	《사유로써의 형식: 드로잉의 재발견》, 뮤지엄산, 원주
2002 《김보희 개인전》, 갤러리아트사이드, 서울	《청색 예찬: BLUE전》, 이천세라피아세라믹스 창조센터, 이천
2001 《김보희 개인전》, 갤러리아트사이드, 서울	《영혼의 창》, 소망수양관, 경기 광주 외 다수
《김보희 개인전》, 현대예술관, 울산	
2000 《명상의 풍경》, 아트스페이스서울(학교재), 서울	
1998 《김보희 전》, 카이스갤러리, 서울	
1997 《김보희 전》, 신세이도화랑(新生堂), 도쿄, 일본	
1995 《김보희 전》, 월전미술관 (이천시립월전 미술관), 서울	
1991 《김보희 전》, 갤러리63, 서울	
1988 《제3회 김보희 전》, 갤러리현대, 서울	
1986 《제2회 김보희 전》, 동덕미술관, 서울	
1980 《제1회 김보희 전》, 대한출판문화회관, 서울	
	수상
	1992 제2회 월전미술상, 월전미술관
	1983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한국미술협회
	1982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한국미술협회
	1981 제30회 국전 특선, 한국미술협회
	제17회 한국미술협회 은상, 한국미술협회
	1976-80 제25, 26, 27, 29회 국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1975 백양회 공모전 국립현대미술관장상, 국립현대미술관
	1974 백양회 공모전 백양회상, 국립현대미술관
	1973 백양회 공모전 장려상, 국립현대미술관

Emeritus Professor, Korean Painting, College of Art and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Member of Nok-Mee-Hoi and Chae-Yeon-Jeon
1974	B.F.A. in Fine Arts, Ewha Womans University	1993-2017 Professor, Korean Painting, College of Art and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1976	M.F.A. in Fine Arts, Ewha Womans University (with specialization on Hyewon Shin Yunbok)	2008-2010 Director,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OLO EXHIBITION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i>the Days</i> ,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2022 <i>Indexing the Nature: From Near and Far Away</i> , No.9 Cork Street, London
2021 <i>Towards</i> , CAN Foundation, Seoul	2021 <i>Interbeing</i> , Chang Ucchin Museum of Art, Yangju
2020 <i>Towards</i> , Kumho Museum of Art, Seoul	2021 <i>IN PRAISE OF PLANTS</i> ,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2017 <i>19702017 KimBoHie</i> , Ewha Art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i>In the Arms of a Faraway Land</i> , Lee Jungseop Museum, Jeju
<i>Becoming Nature</i> , Hakgojae Gallery, Seoul	2019 <i>Landscape Factory</i> , Gallery White One, Seoul
2015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Ewha-Hankyung ACE Gallery, Seoul	<i>Jeju Art Highlights: 99+1</i> , Jeju Museum of Art, Jeju
<i>Towards</i> , Trinity Gallery, Seoul	2018 <i>Picture &amp; Relation</i> , Space Yenar, Jeju
2014 <i>Towards</i> , Shinsegae Gallery, Seoul	<i>Botany 101</i> , Kim Tschang-Yeul Art Museum, Jeju
2013 <i>Towards</i> , Hakgojae Gallery, Seoul	2016 <i>Being in Nature</i> , Museum San, Wonju
2011 <i>Towards</i> , Space CAN, CAN Foundation, Beijing, China	<i>Breathe of the Forest</i> , Shinsegae Gallery, Incheon
2010 <i>Towards</i> , CAN Foundation, Seoul	2015 <i>Fools</i> , Emu Art Space, Seoul
2008 <i>Towards</i> , Gallery Ihn, Seoul	<i>Mountains, Rivers, and People: Eight Views and a Nine-Bend Streams of Gyeonggi</i> ,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06 <i>In Between</i> , Hakgojae Gallery, Seoul	2014 <i>Garden</i>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04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CAIS Gallery, Seoul	<i>A Form of Thinking - Rediscovery of Drawing</i> , Museum SAN, Wonju
2002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Gallery Artside, Seoul	<i>An Ode to BLUE</i> , Icheon Cerapia CeraMIX Creativity Center, Icheon
2001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Gallery Artside, Seoul	<i>Window of the Soul</i> , The So-mang Retreat Center, Gwangju, Gyeonggi et al.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Hyundai Art Center, Ulsan	
2000 <i>Landscape of Meeting and Parting</i> , Artspace Seoul, Hakgojae Gallery, Seoul	
1998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CAIS Gallery, Seoul	
1997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Shinseido Gallery, Tokyo, Japan	
1995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Woljeon Museum of Art, Seoul	1975 <i>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Director's Prize</i> , Baek-Yang-Hwoi Group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1991 <i>Kim Bohie Solo Exhibition</i> , Gallery 63, Seoul	1974 <i>Grand Prix</i> , Baek-Yang-Hwoi Group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1988 <i>The 3rd Kim Bohie Solo Exhibition</i> , Gallery Hyundai, Seoul	1973 <i>Special Prize</i> , Baek-Yang-Hwoi Group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1986 <i>The 2nd Kim Bohie Solo Exhibition</i> , Dongduk Art Gallery, Seoul	
1980 <i>The 1st Kim Bohie Solo Exhibition</i> , Korean Publishing & Cultural Center, Seoul	





Drawing Photo  
photo by Chan Woo Park





《시를 위한 놀이터》전경, 대구미술관  
 «Playground for Poetry» installation view, Daegu Art Museum  
 2021

## 근본의 회화를 향하여

이진명  
 前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한대와 당대의 유학은 성인의 법(法)을 따르려는 학문이었다. 송대에 들어와서 유학은 드디어 성인의 마음(心)을 알고자 했다. 형식과 법도는 시대의 관습과 편견에 제약되지만 마음은 시대의 질곡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장구한 시절을 통해 구축되었던 이강소 작가의 형식과 개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작가의 마음을 전격해서 바라보고자 한다. 작가의 형식과 개념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왔지만 작가의 저변에 변치 않고 하나로 관통하는 근본이 있기 때문이다.

동양문화의 근본사상은 공자의 논어(論語)에 담겨있다. 소설가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소설의 도입 단계이다. 모든 글은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聖經)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시작한다. 말씀은 로고스(logos)이다. 그것은 언어이며 논리이다. 그리고 법칙이다. 그런데 외부에 있다. 외재적이다. 《논어》는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로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에 서게 되면 도가 생긴다. 효제(孝悌)야말로 사랑의 근본일 것이다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고 선언한다. 배움이 가장 먼저 나온 말이다. 그 다음, 근본을 강조했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보편적 사랑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배움은 근본을 배우는 것인데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덕성을 배우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동양인은 내재적인 품성을 발견하고 기르려고 한다. 그것은 쉽다. [簡易] 그것은 순(順)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된다.

근본은 나무의 뿌리를 가리킨다. 뿌리에서 줄기와 나뭇잎, 열매가 생긴다. 순의 방향을 탄다.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인(仁)으로 확충되며 초목과 강산을 사랑하다 만물이 서로 다르지 않는 지점까지 깨닫게 된다. [萬物一體] 심지어 사물도 객관적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 서로 돌이 아닌 지점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변환자재한 이강소 작가의 작품 형식에서 일관되게 견지되는 도도한 흐름을 읽는다. 그것은 근본을 향한 성찰이다. 근본을 향해 끝없이 질문하고 사유하는 작가는 위대하다. 그런사람들은 드물게 존재한다.

나는 서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작가를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Michelangelo Pistoletto)라고 생각한다. 또 나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어김없이 이강소를 손꼽는다.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대표 작품은 거울 페인팅이다. 그는 서양 미술사의 흐름이 환영과의 싸움이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설파했다. 동굴 속 깊은 곳에 결박된 죄수는 그림자를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쇠사슬이 느슨하게 풀린 어느 죄수가 탈출하여 태양에 비춘 생생한 세상을 보게 된다. 이 죄수는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결박되어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태양의 진리를 설파한다. 남은 죄수는 불편한 진리를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 급기야 진리를 본 죄수는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본 죄수와 같다. 서양 미술사는 실재(reality)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위하여 경주한 역사였다. 실재를 태양으로 여긴 것이다.

피스톨레토는 거울에 생생하게 비추는 관객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으로 환영의 역사를 반성하려 했다. 서구에서는 나르시스가 바라본 물의 표면, 죄수가 본 그림자, 거울에 비친 환영, 예술작품은 모두 실재라는 진리로부터 몇 단계 떨어져있기에 존재론적 지위가 낮다고 보았다. 피스톨레토는 이러한 편견을 역으로 뒤집었다. 피스톨레토는 거울에서 움직이는 시간성이야말로 회화가 누리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토니즘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거울 그림은 플라톤의 존재론을 철저하게 혁파하려던 거역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은 여전히 같은 영역의 늪 속에 빨려 들었다. 우리가 바라보려는 이강소 작가는 이러한 사고방법을 일찍부터 손쉽게 넘어섰다.

공자는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흐르는 것이 이와 같도다. 밤낮이 따로 없구나(逝者如斯夫, 不舍晝夜)." 물은 흐른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아무도 모른다. 중력은 근대의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물리학은 아직 중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무언가는 끊임없이 흐르도록 작동시킨다. 그래서 봄여름가을겨울이 순환한다. 만물은 순환하며 서로 낳고 기르며 축복한다. 이러한 인식의 학문을 인의 본체론(仁學本體論)이라고 한다.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이라는 말도 있다. 우주는 무한의 조화와 무한의 육성(育成)에 목적을 둔다. 사실 목적 없는 합목적성과도 같다. 그래서 어질고 어진 사랑이 우주를 생성한다고 본다. (한번은 사랑이 또 한 번은 투쟁이 우주를 운영시킨다는 엠페도클레스와는 종류를 달리 한다.) 이렇게 낳고 낳기를 거듭해 육성하고 특별한 목적도 없지만 흐르고 흘러 만물을 기르는 시냇물을 인의 상징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내면이다. 우리의 덕성이다. 우리의 사단(四端)이다. 그래서 이강소 작가는 "자연에 대해서 말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하이젠베르크 박사의 말에 주목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거역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순리(順理)의 세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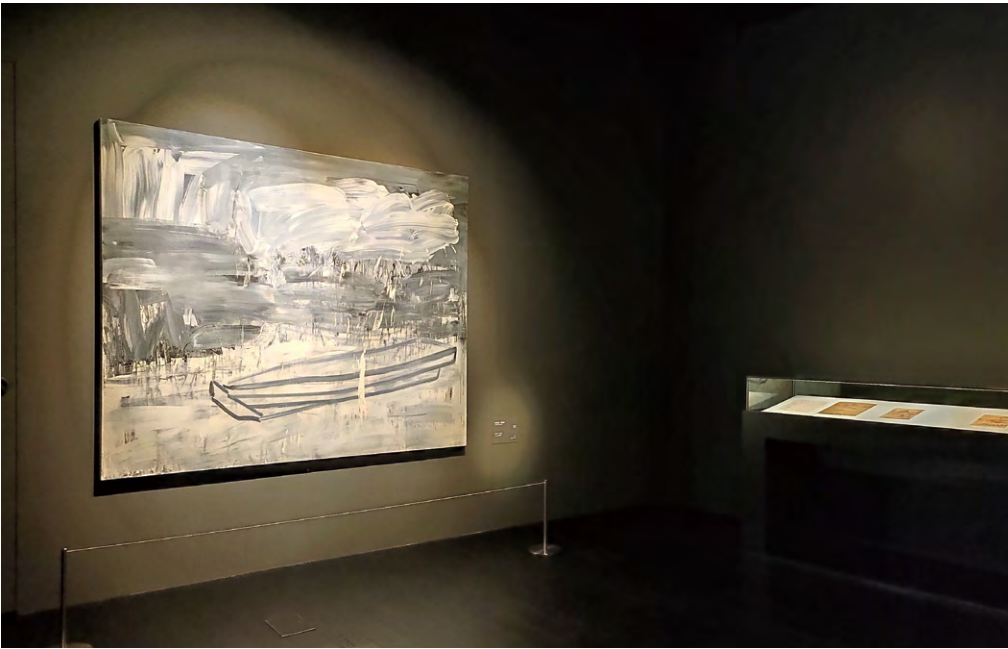
이강소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새, 그리고 오리를 그린 그림이다. 인류가 지닌 가장 오래된 시가집 시경(詩經)의 대아(大雅)에 "연비여천, 어약우연(鸛飛戾天, 魚躍于淵)"이라는 시가가 나온다. "하늘에는 술개가 날고 연못에서 물고기가 뛰다."는 뜻이다. 정도(正道)에 맞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상징한다. 거역이 없고 순리에 의해 펼쳐지는 조화 세계를 뜻한다. 이강소 작가는 공자가 시냇물에서 보았던 세계의 모습을 똑같이 보았다. '연비어약(鸛飛魚躍)'이라는 아름다운 노래의 저자와 동일한 즐거움을 얻었다. 인간의 욕심은 가역에 속하지만 인간의 즐거움은 인욕이 절제되거나 사멸된 순간에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희안은 '고사관수(高士觀水)'를 그렸다. 겸재 정선도 '고사관폭(高士觀瀑)'을 그렸다. 흐르는 물을 단순히 아름다운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다. 흐르는 물속에서 주재자(主宰者)의 존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주재자는 다름 아니라 나의 덕성 속에서 활발발(活潑潑) 솟아나는 생명이 빚어내는 것이다. 이 내면의 생명은 거역과 욕망이 피어오르면 곧바로 사라진다. 나라는 자의식을 내려놓고 세계 전체를 동등하게 느낄 때 다시 재개된다. 이강소 작가의 회화는 자의식은 곧 페르소나이며 회화는 페르소나가 연기하는 무대라는 서구 회화의 방법론과 상계를 달리 한다. 이강소 작가의 생명력은 인재 강희안, 탄은 이정, 겸재 정선, 관아재, 조영석 등 만인과 만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린 그림에 수맥이 닿아 있다. 그것은 사심(私心)보다 천리(天理)와 공심(公心)의 발로를 중시하던 우리의 전통을 잇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의 위치는 어떠한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가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두 편의 시가 있다. 동파 소식의 명시 중에 거문고의 시(琴詩)와 '여산진면목(廬山眞面目)'이라는 성어를 낳아 유명한 제서림벽(題西林壁)이라는 작품이다. 먼저 거문고의 시는 다음과 같다.

若言琴上有琴聲	만약에 거문고 소리가 거문고에서 난다면
放在匣中何不鳴	통에 넣어 두었을 땐 어찌하여 안 울릴까?
若言聲在指頭上	만약에 거문고 소리가 손가락에서 난다면
何不於君指上聽	어찌하여 손가락에 귀를 대지 아니할까?

거문고의 소리는 연주자의 마음과 손가락과 거문고가 조화를 이루며 울리는 것이지 결코 독립된 개체가 만드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멋지게 노래한 것이다. 서구 철학은 개체의 본질을 찾아서 대항해의 드라마를 쓴 역사였다. 그 대항해는 제 1원인(Causa Prima)으로서의 신을 찾는 드라마였고, 인간 개체에 대하여 정의 내리려던 활극의 역사였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는 관계에 의해서 정립된다는 사실

《공명》전경, 호림박물관  
《Resonance》Installation view, Horim Museum  
2021



을 상징하고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우리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존재한다. 개체일 수가 없다. 여기서 캔버스, 붓, 물감, 화가의 의도의 관계가 비로소 이야기되었다. 모노파의 시원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시원으로부터 단색화의 많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존재하는 모든 그물망의 관계와 조화 아래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나는 이강소 작가는 이러한 취지의 철학을 아주 일찍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강소 작가는 하이데거와 다른 인연을 짓고 있으며 단색화라는 관념과도 다른 영역에 서있다. 작가의 작품은 오히려 동파 소식의 '여산진면목'을 떠올리게 한다.

橫看成嶺側成峰	가로로 보면 산줄기 옆으로 보면 봉우리
遠近高低各不同	멀리서 가까이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不識廬山眞面目	보는 곳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 모습
只緣身在此山中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건 이 몸이 이 산속에 있는 탓이라.

그 누구도 여산(廬山)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즉 진리에 대하여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나의 몸이 그 산 속에 인연되어 있기 때문이다.(緣身.) 우리는 모두 특정 문화에 갇혀있다. 그리고 시대에 갇혀있다. 그래서 숙명의 고리에 걸려서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동파 소식이 여기서 말하는 진면목, 즉 진리는 견문지(見聞知)이다. 견문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진리는 존재의 관계 그물로도 풀리지 않는다. 견문으로부터 자기 내면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진리는 무언가를 알고 분석하고 논증하고 표출하는 지식이 아니다. 즉 내가 자의식을 주장하는 나일 때 여산 속에 갇히게 된다. 내 몸이 여산 속에 있다는 사실마저 내려놓을 때 나는 세계와 하나가 된다. 내가 세계와 하나가 될 때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이라는 인학(仁學)이 세계에 펼쳐지게 된다. 이때 모든 것이 쉽게 풀린다.

공자는 계사전(繫辭傳)에서 "쉬우니 쉽게 알고 간단하니 쉽게 따르며 쉽게 주장하니 친함이

있고 쉽게 따르니 공이 있다. 친함이 있으니 오래 할 수 있고 공이 있으니 클 수 있다(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고 말했다. 나는 이강소 작가의 그림 철학이 이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쉽게 따르고 오래 할 수 있는 진리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공자는 효(孝)를 뿌리로 보았다. 이 뿌리는 줄기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는 인(仁)이 된다. 이 인이라는 줄기는 앞으로 확장되어 '각정성명(各正姓名)'을 이루고 중국적으로 대동 세계라는 열매를 맺는다.

허신(許慎)은 설문해자(說文解字) 에서 '가르칠 교(敎)'를 극적으로 풀이한다. "교(敎)는 위에서 베푸는 바요. 아래에서 본받는 바이다. 가지(支)를 따르고 효(孝)를 따른다(敎, 上所施, 下所效也, 從支, 從孝)." 효는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지극히 사랑스러운 심미적 감수성을 가리킨다. 그것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은 너무나 따르기 쉽지만, 또한 모든 것으로 확충되어 대동의 조화로 까지 상승되는 뿌리이자 근본이다.

이강소 작가는 새, 나뭇배 등 누구나 따르기 쉬운 대상을 그린다. 그러나 그것은 재현의 코드도 아니고 표현의 실마리도 아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와 책무를 가장 쉬운 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조화로운 간이(簡易)의 세계에서 홀연히 벗어나, 독자적인 페르소나가 되어 화단과 예술계라는 연극을 지배하라고 가르치는 서구의 담론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미술은 얼마나 읽어내기 어려운가? 각정성명(各正姓名)이 어그러지고 보합대화(保合大和)가 막혔기 때문이다. 페르소나는 극단적인 에고(ego)이다. 요즘 예술계는 전 세계가 한결같이 예술가에게 특정 페르소나의 가면을 입혀서 신화화 시키고 이득을 취한다. 이강소 작가는 이러한 현상에서 한걸음 물러서 자기 내면의 진면목을 찾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지속했다.

참된 것은 가장 쉬운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은 또한 누구나 갖고 태어난 것이다. 누구나 알기에 오래 갈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으니 클 수 있다. 내가 나를 주장하기보다 '무불경(毋不敬)'의 경지로, 즉 모든 대상을 존경과 경탄의 마음으로, 세계에 다가간 것이 이강소 작가가 걸어온 예술의 역정이다. 작가의 시야에 펼쳐진 카메라 렌즈 너머의 세계, 작가의 손에 닿아 형질이 변경된 나무, 작가의 손에서 빚어진 인류의 가장 오래된 매체 흙, 작가의 펜에서 나온 빛나는 문장들, 공심(空心)으로 던져 얻은 신비의 총만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빛을 발하며 살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강소 작가는 작가로서의 나를 이미 여러번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강소 작가가 최근에 다시 선보인 청명(淸明) 연작 역시 의미심장한 서사로 가득하다. 거대한 화면은 여백의 빔(虛, emptiness)이 무한으로 지속되며, 그 간단(間斷) 없는 공간에서 몇 개의 강렬한 획(劃)의 선들이 우리에게 현전(da-sein)한다. 거기(da)에 나타난 선들은 존재(Being)의 마음이다. 여백의 빔(emptiness)은 무(無, nothingness)를 상징한다. 무(無)는 단순히 없는 것(nothing)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득한 것(fullness)이다. 이에 대해서그 누구도 이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현묘(玄妙)하다는 형용사로 표현했을 뿐이다. 무(無)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이미 결정된 주사위의 숫자 하나는 나머지 무(無)라는 다섯 숫자의 잠재 속에서 드러난 현전이다. 내가 여기 현전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가능성의 잠재로부터 겨우 존재하는 것이다. 부모의 유전으로부터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필 내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찔한 확률이며,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역겁의 세월동안 존재의 가능성이 충실히 유전되어 단 한 번도 끊임이 없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모든 존재는 기적이며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無)의 총만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무(無)를 상징하는 여백의 캔버스에서 굳건하게 위용을 드러내는 강렬한 획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와 무의 완전(完善)하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 알아가도록 이야기해준다.

또 하나의 다른 형식도 이번 연작에서 주목해야 한다. 같은 이름을 가진 청명 연작 중에서 운무(雲霧)에 에워싸인 산을 연상시키는 그림들이 있다. 화가의 초연한 필력은 내재된 에너지의 응결이며 어떠한 의도(intention)나 지향성(aboutness)을 뛰어넘는 것이다. 역사에서 발아했던 모든 회화는 '무엇에 관한(aboutness)' 재현이거나 표현이었다. 그것은 모두 적절한 계산(due measure)의 주도

아래 그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강소 작가의 그림은 적절한 계산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겨냥해서 그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추동력(unknown impetus)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다. 적절한 계산은 우리의 표층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반면에 이강소 작가는 표층의식을 뚫고 들어가 의식의 심층에 자리하는 현묘한 의식세계를 장구한 세월동안 체화시켜왔다. 그것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입정(入靜)과는 다른 것이다. 입정은 모든 감정과 기억을 의식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며 얻은 지향성의 결과물이다. 이에 반해 이강소 작가는 사람이 갖는 모든 감정과 기억의 편린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작가는 일상을 벗어난 비의(秘儀)의 세계를 멀리한다. 오히려 일상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존재와 그 존재가 지니는 풍만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세계와 존재를 경(敬, reverent composure)으로 대한다.

경(敬)은 모든 일상과 일상의 존재를 의식(儀式)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다. 감정이나 흥취나 기억, 사유가 의식으로 흘러서 마음으로 나타났더라도(已發, expressed) 이를 적절한 중도로 포용해내는 능력을 가리킨다. 경(敬)은 존재가 무(無)를 통해서 드러났으며 무(無)는 존재를 통해 의미를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상태이다. 경(敬)으로 모든 존재[萬物]를 대하고 바라볼 때[持敬] 마음은 청명(淸明)한 상태로 지속된다. 따라서 청명 연작은 기뻐함과 화난 감정, 사랑하는 마음과 즐거움, 미워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모두 성숙하여 자리를 바르게 잡은 청명한 마음의 상태를 그린 것이다. 그 세계 속에는 걱정(激情)도 없으며 불안(不安)도 자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배려와 안내를 받으며 치우침과 엇나감도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이 총만하여 결여된 그 어떤 것도 없되 모든 것이 공평하여 사적 욕망을 넘어선다[圓滿具足至公無私]. 이렇게 조화로운 마음상태를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만 청명 하다는 형용사적 느낌으로 모든 것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추동력으로 세계에 나타난 시각적 서사가 이번 회화 연작의 위대성이다. 그것은 표현을 위한 표현, 형식을 위한 형식으로 일관했던, 기존 예술에 대한 상념을 벗어나게 해주는 경지이며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본연을 알게 해주는 커다란 울림이다. 근본의 회화는 장구한 문명의 축적에 의해 우리의 의식과 마음에 쌓였던 티끌을 떨어낸다. 근본의 회화는 태초에 누구나 누렸던 청명했던 마음을 향해 다시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가는 무(無) 속에 총만(fullness)이 있고 무(無)에서 배태된 모든 존재의 의미는 따라서 각별하다고 본다. 예술형식에 대한 작가의 방법론은 여럿이지만 예술을 바라보는 근원적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된다. 그것이 반백 년 넘게 작가가 추구했던 예술세계이다.





Kangso Lee Studio, photo by Gallery Hyundai

# Towards a Fundamental Painting

**Jinmyeong Lee**

Former Director of Curator at Daegu Art Museum

Confucianism in the Han and Tang dynasties was a study to follow the laws of sages. In the Song Dynasty, Confucianism finally wanted to know the heart of a sage. Forms and laws are constrained by the customs and prejudices of the times, but the mind is free from the tyranny of the times. Therefore, we cannot but pay attention to the form and concept of artist Kangso Lee, which was built through his long years, but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artist's heart with all his might. This is because the artist's form and concept have changed over time, but there is a fundamental that does not change and penetrates the artist's base.

The fundamental idea of Eastern culture is contained in Confucius' Analects. The part that the novelist pays the most attention to is the introduction stage of the novel. The first sentence of every article is the most important. The Bible says, "In the beginning, the Word The Word is logos. It is language, logic, and law. But it is external. It is external. <The Analects> is the phrase "Isn't it nice to learn and learn from time to time?" It begins with a sentence and declares in the next chapter, "The gentleman strives for the fundamentals. Standing at the roots will lead to the Way. Filial piety will be the foundation of love." But it is said that loving one's parents and brotherly kindness are the basis of universal love. Learning is learning the fundamentals, and that is to learn the virtues in us. Therefore, people in the East try to discover and nurture character. It is expressed in a single word, pureness.

The root refers to the root of the tree. Stems, leaves, and fruits are formed from the roots. Follow the direction of the net. We have a heart to love our parents and care for our brothers. This heart is expanded to be human, and when you love plants and mountains, you come to realize that all things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Even things can go beyond the object of objective understanding to a point where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I read the consistently maintained arrogance of Kangso Lee, who is arrogant. It is a reflection towards the root. The artist who endlessly questions and thinks toward the fundamentals is great. Such people are rare.

I consider the greatest extant artist in the West to be Michelangelo Pistoletto. Also, I cite Kangso Lee as one of the greatest extant artists in the East. Michelangelo Pistoletto's representative work is mirror painting. He is the person who best understood the flow of Western art history as a battle against illusion. Socrates preached the truth through the parable of the cave. A prisoner bound deep in the cave thinks that the shadow is the truth. However, a prisoner with loose chains escapes and sees a vivid world illuminated by the sun. This prisoner returns to the cave and preaches the truth of the sun to the other prisoners in bondage. The rest of the prisoners are unwilling to believe in uncomfortable truths. The prisoner who finally sees the truth is later killed. Jesus and Socrates are like prisoners who saw the truth. Western art history was a history of racing for paintings closest to reality. The reality is regarded as the sun.

Pistoletto tried to reflect on the history of illusion through the flow of time and the movement of the audience vividly reflected in the mirror. Western culture was viewed as having a low ontological status because it was a few steps away from the truth that Narcissus



saw the surface of water, the shadows seen by prisoners, the illusions reflected in the mirror, and the works of art were all real. Pistoletto reversed this prejudice. Pistoletto thought that temporality moving in a mirror was a new realm that painting did not enjoy. However, this still does not escape the strife of Platonism. The mirror painting was the struggle of rebellion to thoroughly overthrow Plato's ontology. But the struggle was still sucked into the swamp of the same realm. Kangso Lee, who we are looking at, easily surpassed this way of thinking early on.

Confucius looked at the flowing water from the brook and said: "This is how it flows. There is no night and day." Water flows. No one knows who made it. Gravity is a modern concept. But we, modern physics, still don't know exactly what gravity is. But something works to keep it flowing. So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cycle. All things circulate and give birth to, nurture, and bless each other. This study of knowledge is called the Theory of the Body of Humanity. There is also a saying, 'Endlessly Creating Universe 生生之謂易'. The universe aims for infinite harmony and infinite nurturing. In fact, it is the same as purposeless purposiveness. So, it is considered that kind and compassionate love creates the universe. (It is different from Empedocles, which says that once love, once again, struggle drives the universe.) Recognizing that the stream that flows and nurtures all things, though it has no special purpose, is a symbol of human beings. is the mind That is our inner being. It is also our virtue. And it is our division. So Kangso Lee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Dr. Heisenberg's saying, "To talk about nature, we must talk about ourselves at the same time." It is a world of principles where there is nothing to disobey.

Kangso Lee's most famous works are paintings of birds and ducks. The poem "Yeonbieuchun, Eoyakwooyeon (鳶飛戾天, 魚躍于淵)" appears in Daea (大雅) of <Sikyung(詩經)>, the oldest collection of poems possessed by mankind. It means "Kites fly in the sky and fish jump in the pond." It symbolizes the movement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right way. It means a harmonious world where there is no rebellion and is unfolded by order. Kangso Lee saw the same world that Confucius saw from the stream. He got the same pleasure as the author of the beautiful song 'Yeonbieoyak (鳶飛魚躍)'. This is because human greed is reversible, but human pleasure comes at the moment when human greed is restrained or destroyed. So, Hee An Kang painted 'Gosagwansoo (高士觀水)'. Keumjae Seon Chung also painted 'Gosagwanpok (高士觀瀑)'. It is not just looking at flowing water as a beautiful object. It was because he was sure of the existence of the Master in the flowing water. Its ruler is none other than the life that springs forth from my virtue. This inner life disappears as soon as rebellion and desire arise. It resumes when you let go of the self-consciousness of 'I' and feel the whole world as an equal. Kangso Lee's painting differs from Western painting's methodology of 'Self-consciousness is the persona, and painting is the stage where the persona is acting'. Kangso Lee's vitality is reflected in his paintings, such as Injae Hee An Kang, Taeun Jung Lee, Kyunjae Seon Chung, and Gwanajae Young Seok Cho, who looked at all people and all things with the eyes of love. It continues our tradition of placing more importance on the development of heavenly principles and public hearts than on self-interest.

If so, I have no choice but to explain what the position of this artist is. There are two poems that will help you understand this artist. Among the famous poems of Dongpa Sik So, there is a work called the Poem of Geomungo (琴詩), and there is another work called Jeseorimbyeok (題西林壁), which is famous for giving birth to the phrase 'Yeosanjin-myunmok (廬山眞面目)'. First, the Poem of Geomungo is as follows:

若言琴上有琴聲	If the Geomungo sound comes from the Geomungo
放在匣中何不鳴	How can it not ring when I put it in a box?
若言聲在指頭上	If the Geomungo sound comes from the fingers
何不於君指上聽	Why not put ears to the fingers?

《물유》전시 전경. 갤러리 현대  
《From a Dream》Installation view, Gallery Hyundai  
2021



This poem is a wonderful song about the fact that the sound of the Geomungo is a harmonious sound of the player's heart, fingers, and the Geomungo, not a phenomenon created by an independent individual. Western philosophy was the history of writing a drama of voyage in search of the essence of an individual. The voyage was a drama that found God as the first cause (Causa Prima), and it was the history of an active play that tried to define the human individual. However, Heidegger posited that all beings are established by relations, and regarded the history of Western metaphysics as wrong from the beginning. We exist in a web of relationships. It cannot be a single entity. 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nvas, the brush, the paints, and the artist's intentions was finally talked about. The origin of monopa is here. And many people who paint Dansaekhwa (monochrome painting) were also influenced by this origin. It means that the paintings proceed under the relationship and harmony of all existing nets. I think Kangso Lee went beyond this philosophy very early. Kangso Lee has a different connection with Heidegger and stands in a different realm in terms of the concept of Dansaekhwa. This artist's works are rather reminiscent of Dogpa Sik So's 'Yeosanjinmyunmok'.

橫看成嶺側成峰	A mountain range when viewed horizontally,
遠近高低各不同	a peak when viewed from the side
不識廬山眞面目	From afar, from near, from high, from low
只緣身在此山中	It looks different depending on where you look
	It is not possible to know the true nature of Yeosan (Lusan)
	It must be because this body is in this mountain.

No one can see the true face of Yeosan (廬山). That is, we cannot know the truth. The reason is that my body is bound to that mountain. (緣身.) We are all trapped in a particular culture.



And stuck in the times. So, caught in the chain of fate, they cannot see the truth. By the way, the truth that Dongpa Sik So speaks of here, that is, the truth, is knowledge. You cannot come to the truth by sight. The truth is not unraveled even through the relational web of existence. You must return to your inner self from the knowledge. Truth is not knowledge that knows, analyzes, argues, and expresses something. In other words, when I am the 'I' who asserts self-consciousness, I am trapped in Yeosan. When I let go of the fact that my body is in Yeosan, I become one with the world. When I become one with the world, the human science of 'Endlessly Creating Universe (生生之謂易)' unfolds in the world. At this point, everything is easy.

Confucius, in the <Kyesajeon (繫辭傳)>, said, "It is easy, so it is easy to understand, because it is simple, it is easy to follow, and because it is easy to insist, there is friendship. It can be done for a long time because of closeness, and can be great because of work.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 I believe Kangso Lee's painting philosophy is implied in this sentence. A truth that everyone can easily follow and maintain for a long time must be fundamental. Confucius saw filial piety as the root. This root goes to the stem and becomes a blessing for all people. The stem of this seal expands into leaves to 'correct each person's name according to harmony' and ultimately bears the fruit of the Ideal World.

Shin Huh (許愼) dramatically interprets 'Kyo - Teaching(敎)' in <Seolmunhaeja(說文解字)>. ""Kyo (敎) is given from above. It is exemplified below. Follow the branch (支) and follow the filial piety (孝). (敎, 上所 施, 下所效也, 從支, 從孝)" Filial piety is not only serving the parents. It refers to an extremely lovely aesthetic sensibility. Everyone was born with it. It is so easy to follow, but it is also the root and the root that extends to everything and rises to the harmony of Idealism.



드로잉 사진, Drawing Photo  
촬영: 갤러리 현대 Photo by Gallery Hyundai

Kangso Lee draws easy-to-follow objects such as birds and ferry boats. However, it is neither a code of representation nor a clue of expression. It is the easiest object to show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at human beings should have. It cannot be solved with the Western discourse that teaches us to suddenly escape from the world of harmonious simplicity and become an independent persona and dominate the play of the art world and the art world. How hard is current art to read? This is because 'correcting each person's name according to harmony' is distorted and 'preserving and harmonizing great harmony' is blocked. The persona is the extreme ego. The world of art these days is uniformly mythifying and profiting by putting on the mask of a specific persona on an artist all over the world. Kangso Lee took a step back from this phenomenon, found his inner truth, and continued his most fundamental question.

The truth is the easiest. The easiest is also what everyone is born with. As everyone knows, it can last a long time. It can last a long time, so it can be big. Rather than insisting on myself, Kangso Lee's artistic trajectory has been to approach the world to a state of 'no blasphemy (毋不敬)', that is, to approach the world with respect and admiration for all objects. The world beyond the camera lens that spreads out in the artist's field of vision, a tree whose character has been changed at the touch of the artist's hand, the clay, the oldest medium of mankind, made by the artist's hand, shining sentences from the artist's pen, a mystery obtained by throwing into the air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fullness of the world, all of which shine with each other and live. Because Kangso Lee has already surpassed me as an artist many times.

Kangso Lee's recently released Chungmyeong series is also full of meaningful narratives. In the huge screen, the beam of emptiness continues indefinitely, and in that simple space, several lines of intense strokes appear (da-sein) to us. The lines appearing there (da) are the mind of Being. The beam of emptiness symbolizes nothingness. Nothing is simply nothing. On the contrary, it is fullness. No one can name it. So we simply expressed it as an adjective profound. Nothingness is the source that makes existence possible. One number on the dice, which has already been decided, is the presence revealed in the potential of the remaining five numbers of nothingness. The fact that I am present here barely exists from the potential of countless possibilities. The fact that I am not a different being from my parents' inheritance is a very vertiginous probability, and in order for me to grow older, I need a prerequisite that the possibility of existence has been faithfully inherited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and never ceases to exist. All beings are miracles, and in order for existence to be possible, the full help and consideration of nothingness is necessary. The strong strokes that firmly reveal their majesty on the blank canvas symbolizing nothingness tell us about the perfect and beautiful relationship between existence and nothingness.

Another form should also be noted in this series. Among the Chungmyeong series with the same name, there are paintings reminiscent of mountains surrounded by clouds. The artist's detached handwriting is the condensation of inherent energy and transcends any intention or aboutness. All paintings that emerged from history were representations or expressions of 'aboutness'. It is all drawn under the guidance of due measure. However, Kangso Lee's paintings are not intended to be drawn with proper calculations and intentions. It is drawn by an unknown impetus. Appropriate calculations are the result of our superficial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artist Kangso Lee has penetrated the superficial consciousness and embodied the subtle world of consciousness that resides in the depths of consciousness for a long time. It is different from the stance of standing in Zen Buddhism. It is the result of intentionality obtained by intentionally cutting off all emotions and memories from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Kangso Lee is well aware that fragments of all human emotions and memories cannot but be revealed. Moreover, the artist stays away from the world of esoteric ceremonies outside of everyday life. Rather, the artist treats

the world and existence as reverent composure, because he is so well aware of all the beings he encounters and encounters in everyday life and the rich value of them.

Another form should also be noted in this series. Among the Qingming series with the same name, there are paintings reminiscent of mountains surrounded by clouds. The artist's detached handwriting is the condensation of inherent energy and transcends any intention or aboutness. All paintings that emerged from history were representations or expressions of 'aboutness'. It is all drawn under the guidance of due measure. However, Kangso Lee's paintings are not intended to be drawn with proper calculations and intentions. It is drawn by an unknown impetus. Appropriate calculations are the result of our superficial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artist Kangso Lee has penetrated the superficial consciousness and embodied the subtle world of consciousness that resides in the depths of consciousness for a long time. It is different from the stance of standing in Zen Buddhism. It is the result of intentionality obtained by intentionally cutting off all emotions and memories from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Kangso Lee is well aware that fragments of all human emotions and memories cannot but be revealed. Moreover, the artist stays away from the world of esoteric ceremonies outside of everyday life. Rather, the artist treats the world and existence as reverent composure, because he is so well aware of all the beings he encounters and encounters in everyday life and the rich value of them.

Kyung is a mind that considers and cares for all daily life and everyday existence with a ceremonial mind. It refers to the ability to embrace emotions, pleasures, memories, and thoughts in an appropriate mode even if they flow into consciousness and are expressed in the mind (已發, expressed). Kyung is a state of mind that knows that existence is revealed through nothingness and that nothingness acquires meaning through existence. When we treat and look at all beings with light, our mind will remain in a state of clarity. Therefore, the Chungmyeong (Clear State of Mind) series depicts the state of a clear mind in which the feelings of joy and anger, love and joy, hate and fear have all matured and settled in their proper places. There is no passion and no anxiety in that world. Everything is taken care of and guided, and there is no bias or deviation. Therefore, everything is full and there is nothing lacking, but everything is fair and goes beyond private desire. Such a harmonious state of mind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However, I have no choice but to embrace everything with the adjective feeling of clarity. The visual narrative that appeared to the world with such an unknown driving force is the greatness of this series of paintings. It is a state that allows us to break free from the conventional thinking about art, which was consistent with expression for expression and form for form. The basic painting removes the dust accumulated in our consciousness and mind by the accumulation of a long civilization. The basic painting comes from a long journey to return to the pure mind that everyone enjoyed in the beginning. The artist believes that there is fullness in nothingness, and the meaning of all beings conceived from nothingness is therefore special. Although the artist has several methodologies for art forms, the fundamental attitude towards art is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is the art world the artist has been pursuing for over half a century.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2-93 국립경상대학교 교수  
1985-86 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 객원예술가

주요 개인전	레지던시
2021 갤러리 현대, 서울	1991 트라이앵글 아티스트 워크샵, 뉴욕, 미국
2019 팔라쵸 카보토, 베니스, 이탈리아	1991-92 현대미술센터, 뉴욕, 미국
2018 갤러리현대, 서울	
2017 우손갤러리, 대구	
2016 생테티엔느 근현대 미술관, 생테티엔, 프랑스	
2015 해든미술관, 인천	
2012 갤러리신라, 대구	
2011 PKM트리니티갤러리, 서울	
2010 조이아트갤러리, 베이징, 중국	
2009 PYO Gallery LA, LA, 미국	
2008 예화랑, 서울	
2006 아시아미술관, 니스, 프랑스	
2005 화이트박스, 뉴욕, 미국 외 다수	
	수상
	2002 제3회 이인성미술상, 대구광역시주관, 대구
	1983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우수상, 동아일보,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선재미술관, 금호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림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 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다수

Graduated from Painting D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93 Professor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1985-86 A Visiting Artis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USA

SOLO EXHIBITIONS (recent)	RESIDENCY
2021 <i>From a Dream</i> , Gallery Hyundai, Seoul, Korea	1991 TRIANGLE Artist Workshop, New York, USA
2019 <i>Becoming</i> , Palazzo Caboto, Venice, Italy	1991-92 P.S.1Contemporary Art Center, New York, USA
2018 <i>Disapperance</i> , Galle Gallery, Daegu, Korea	
2016 <i>Lee Kang-So</i> ,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aint-EtienneMétropole, Saint-Etienne, France	
2015 <i>Lee Kang-So</i> , Haeden Museum of Art, Incheon, Korea	2002 The 3rd Lee Insung Art Prize Recipient Daegu, Korea
2012 <i>Lee Kang-So</i> , Gallery Shilla, Daegu, Korea	1983 The 4th Seoul International Print Biennale, Superior Class Prize, Seoul, Korea
2011 <i>Natural</i> , PKM Trinity Gallery, Seoul, Korea	
2010 <i>Lee Kang-So</i> , JOY ART Gallery, Beijing, China	
2009 <i>THE RIVER IS MOVING</i> , PYO Gallery LA, LA, USA	
2008 <i>Lee Kang-So</i> , Gallery Yeh, Seoul, Korea	
2006 <i>Paysage vu par le Coeur</i> , Musée des Arts Asiatique, Nice, France	
2005 <i>Lee Kang-So</i> , WHITE BOX, New York, USA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Ho Am Museum of Art, Yongin, Korea Artsonje Museum, Gyeongju, Korea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Seoul, Korea Han Lim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Daejeon Municipal Museum of Art, Daejeon, Korea Busan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san, Korea Daegu Art & Culture Hall, Daegu, Korea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 H ART LAB Creator

## Artist Part 2.

구혜영 × 김영남

Hyeyoung Ku ×  
Youngnam Kim

나나와 펠릭스

Nana & Felix

박혜수

Hyesoo Park

이여운

Yuwoon Lee

이장원

Jangwon Lee







## Artist's Statement

구혜영×김영남은 각자의 영역에서 퍼포먼스와 영상, 복합 매체 설치 등을 작업해 왔다. 그들은 작업 테제로 가져왔던 삶과 죽음, 자연과 소비되는 것, 무의식과 초현실 등을 우연성, 즉흥성의 방식으로 협업을 시도한다. 최근에는 이 주제들을 미디어와 퍼포먼스, 영상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작업한다. 배우라는 캐릭터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시작하거나,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개념으로 공연 형태의 작업을 진행한다. 관객이 참여하고, 현장에 우연성이 개입되고, 작가에게 열린 태도를 부여하는 작업과정으로 확장한다.

작가의 작품 속에는 현실과 무의식 꿈의 경계가 모호한, 사색적이고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 경계에는 우리의 시간 속에 흐르는 삶과 죽음, 슬픔과 생명이 공존하고, 그 모호함 속에는 삶을 환기시키고 치유하는 어떤 감정들과 정서들이 놓여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어쩌면 '나'의 이야기 일런지 모른다. 창문을 뚫고 비치거나 벽장 안과 같은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경계에서, 작가의 영상과 공간에서의 설치하는 우리를 어떤 감각의 세계로 안내한다.

예술은 시대를 반영한다. 꿈을 매개로 한, 뼈저리는, 불통의, 불안한 시대의 감정들. 의식의 언어가 간과하고 억압할지 모를, 의미의 조각난 파편들을 통해 무의식 속에 잠자는 감정들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연극성(Theatricality)과 진실성(Sincerity)의 경계와 극단을 오가며 그 사이에서 줄다리를 걸친다.

〈Vinyl In The Forest〉에서 물결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파란 비닐은 숲 속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서로 섞이기에 어색해 보이지만, 다른 관점

Hyeyoung Ku & Youngnam Kim (KUNAM) have been working on performances, videos, and complex media installations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ey try to collaborate with life and death, nature and consumption, unconsciousness and surrealism in a way of contingency and spontaneity, which they have brought as their work thesis. Recently, they have been working on these themes in a new wa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performance/video. They start a new performance with the character of an actor, or work in the form of a performance with the concept of media performance. It expands to a work process in which the audience participates, contingency intervenes in the field, and gives the artists an open attitude.

In the works of the artists, there is a contemplative and ontological story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the unconscious dream is blurred. At the boundary, life and death, sorrow and life that flow in our time coexist, and in the ambiguity lies certain emotions and emotions that evoke and heal life. Each story may be a story of 'me'. At the boundary where light and darkness coexist, such as through a window or in a closet, these artists' images and installations in space guide us into a world of senses.

Art reflects the times. Dream-mediated, creaking, unsettling, and unsettling emotions of the times. Through fragmented fragments of meaning that the language of consciousness might overlook and repress, it explores the emotions sleeping in the unconscious.

산자와 죽은 자 No.3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no.3  
Installation, Variable Size  
2021



조각 난 시간  
The Shattered Chronos  
Installation, 관과 조각난 유리 모니터, Mixed media, Variable Size  
2021







과거에서 온 영화 A Film From The Past  
Video, 4'14", 1080x1920(FHD)  
2021



비닐 장례식 Plastic Funeral  
Installation, Variable size  
2021

에서 공존을 동경하는 분위기도 함께 드러낸다.  
환경 오염의 주된 요인이면서도 인간을 바이러스로  
부터 보호해주는 비닐을 사용함에 있어, 이 간극  
에서 오는 아이러니와 슬픔은 이후 작업에서  
주요한 정서가 된다.

《비닐 연대기》는 비닐의 삶을 다룬 전시이다.  
이 전시를 통해 퍼포먼스와 비닐이라는 재료와  
창작 작업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며, 아울러  
비닐에 대한 한정된 고정관념을 넘나드는 작업이다.  
2009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사용했던 검정색  
쓰레기 봉투는 이제 얇은 한국의 파란색 재활용  
봉투로 바뀌었다. 더구나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던 비닐은 팬데믹 시대에 도래한 방호복의  
대체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영감을  
받아 파란 비닐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마크라메 방식으로 한올 한올 정교  
하게 땀은 드레스는 비닐 여왕의 의복이 된다.

〈비닐 장례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마주하게  
된 비닐과의 또 다른 맥락의 조우를 담은 전시다.  
생태계와 인류의 미래라는 대의를 위하여 작가는  
길고 길었던 비닐과의 이별을 결정하였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냈던 비닐 여왕은 승천 직전, 관객들과 마주한 채  
긴장을 드러낸다. 관객은 침대에 누워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비닐 여왕이  
품고 있던 삶과 죽음, 모든 존재의 시간들이 그  
켜를 드러낸다. 작가는 이로써 수년간의 작품활동을  
통해 비닐과 맺어왔던 인연을 마무리 짓는다.

〈어느 작가의 죽음〉이라는 일련의 설치 및 영상  
작품 등은 코로나-19 시대에 작가로써 가졌던  
절망과 무력감, 불안감 등을 포착하고,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슬픔'으로 침잠해 가는 시대의  
어느 작가를 예를 들어 풀어낸다.

〈15개의 꿈의 조각〉영상작품들은 작가의 기억,  
경험, 꿈 등의 채록을 기초로 하되, 다양한 인물들의  
꿈과 관련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작업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이 꿈들을 유사한 속성으로 분류  
하고 선별해, 하나의 꿈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약 1페이지의 짧은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이것은

To this end, the artists enjoy a tug-of-war  
between the boundaries and troupes of  
theater and sincerity.

In 〈Vinyl In The Forest〉, the huge blue vinyl  
reminiscent of waves looks awkward to mix  
with the natural beauty of the forest, but  
it also reveals an atmosphere of longing  
for coexistenc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In using vinyl, which is a major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tects  
humans from viruses, the irony and sadness  
from this gap become a major emotion in  
later works.

《The Chronicles of Vinyl》is an exhibition  
dealing with the life of vinyl. Through this  
exhibition, we pay attention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the  
material of vinyl and creative work, and it is  
a work that transcends limited stereotypes  
about vinyl. The black garbage bag used  
in London, England since 2009 has now  
been replaced with a thin Korean blue  
recycling bag. Moreover, vinyl, which was  
not welcomed anywhere, is widely used  
as a substitute for protective clothing in  
the era of the pandemic. Inspired by this  
phenomenon, blue vinyl goes beyond  
corona blue to become the sea, and a dress  
braided one by one in the macramé method  
becomes the dress of the vinyl queen.

〈Plastic Funeral〉is an installation that  
contains an encounter in a different context  
with Vinyl, which he encountered again  
due to COVID-19. For the cause of the  
ecosystem and the future of mankind, the  
artists decided to part with the long and  
long vinyl. The vinyl queen, who has spent  
more time peaceful than ever due to the  
spread of her epidemic, reveals her tension  
in front of her ascension right before her  
ascension. Her audience lay on her bed, feel  
her gaze, and give her final goodbyes. Her  
life, death, and all the times of her existence  
are revealed by her vinyl queen. The artists  
thus conclude her relationship with her  
vinyl through her years of her work.  
A series of installations and video works  
called 〈The Death of an Artist〉 captures the  
despair, helplessness, and anxiety of artists  
in the era of COVID-19, approaches 'death',







각기 다른 꿈의 조각들이 되며, 영상 혹은 복합설치 (언어, 사운드, 입체 등)로 드러난다. 다양한 변환의 과정은, 불안하고 모호한 정서와 감각들을 탐색하는 과정과도 같다. 하지만 각각의 작업들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기적인 서사를 이루는 형식을 취한다. 작가가 제안한 서사는, 데리다의 '차연'이라는 개념처럼,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 내지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이 결국 연기되는 상황에 이른다. 빠걱거리는 균열과 파열 음만을 목격할 뿐이다. 총 15개의 꿈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꿈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이상한 감정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 예로, 〈폐허가 된 헛간〉, 〈풍선과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자들〉은 불안 및 두려움을, 〈꽃병과 검은 개〉, 〈그가 그녀와 키스를 했을 때〉, 〈카프카적 기억〉은 야릇함과 기묘함을, 〈눈 속의 여자〉, 〈오리와 함께 걷다〉는 정서적 충만함을, 〈그의 사라짐에 관하여〉는 꿈의 조각들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미스터리함을 통해 사랑과 관계의 (불)가능성을 말한다.

이렇듯 작가는 삶의 균형이 깨어질 때 야기되는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삶의 정서와 감정들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부정형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를 작업의 재료로 가져온다. 어느 연구자가 말하듯, 지각의 형성 뒤에 오는 것이 아닌, 과거의 시트들과 현실의 기층들이 소통하는 막과 같은-항상 무의식인 상태로 도래하여 현재와 만나는- 꿈의 탐색은, 한 개인이 가진 무의식에 대한 이미지의 탐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드러난 꿈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균열,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시각이미지들을 다양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작가의 우연과 욕망이 개입된다. 들성들성 구멍 난 채로 존재하는 꿈. 결국 파편적으로 배치된 무의식의 꿈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 이상하고, 모순되고, 충동적이고, 불확실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구멍 난' 현실을 드러낸다.

관람객은 설치된 작품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이야기를, 때로는 감정을, 때로는 감각적인 체험을 한다. 그리고 각 작품들 간의 관계와 감정들을 연결 짓거나, 유추하거나 상상한다. 이렇게 전시

and sinks into 'sadness'.

The 〈15 Pieces of Dreams〉 video work is based on the writers' memories, experiences, and dreams, but the process of work is based on research related to the dreams of various characters. Afterwards, these dreams are classified and selected by similar attributes, and a short story of about one page is reconstructed based on each dream. These become pieces of different dreams, and are revealed through images or complex installations (language, sound, three-dimensional, etc.). The process of various transformations is like the process of exploring unstable and ambiguous emotions and sensations. However, each work takes the form of forming an organic narrative while maintaining its originality. The narratives suggested by the writers, like Derrida's concept of 'disparity', make subtle differences, but eventually they are postponed without being able to grasp the meaning. We only witness creaking cracks and bursts. The dream series, which consists of a total of 15 dream fragments, leads us to a state of strange emotions as a whole. For example, 〈The Ruined Barn〉 and 〈Balloons and People in Black〉 are about anxiety and fear, while 〈A Vase and a Black Dog〉, 〈When He Kissed Her〉, and 〈Kafkaesque Memory〉 are bizarre and The (un)possibility of love and relationship through the mystery that throws a clue to the strangeness, the emotional fullness of 〈Woman in the Snow〉 and 〈Walk with a Duck〉, and the mystery that throws clues about the fragments of a dream in 〈Tale of His Disappearance〉.

In this way, the artists pay attention to the emotions and emotions of life in modern society that are caused when the balance of life is broken. For this purpose, the unconscious world of 'dream' of indefinite time and space is brought as the material of the work. As one researcher said, the search for dreams does not come after the formation of perception, but is like a membrane where sheets of the past and the base layers of reality communicate—

《ART NODE》전경  
Short Film Screening, H ART LAB  
2021

공간은 언캐니한 체험과 몰입의 과정이며, 마치 미스테리를 탐색하는 효과를 갖는다. 실상, 영상으로 표현된 내적 의미 작용 이상으로, 의식과 무의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경계를 가로질러 드러난 감각적인 감정의 상태를 더욱 드러내고자 하며, 이야기를 시각 예술로 번역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always arriving in an unconscious state and meeting the present—the search for dreams is based on the unconsciousness of an individual. It is also an exploration of the image of Korea. The dream revealed in this way variously captures a certain rift in Korean society that exists beyond it and the unconscious visual images of those who encounter it. And, the coincidences and desires of the artists always intervene here. A dream that exists with sparse holes in it. In the end, fragments of the unconscious dream come together to reveal a strange, contradictory, impulsive, uncertain, and 'hole' reality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is ambiguous.

Visitors encounter the installed works, sometimes telling stories, sometimes emotionally, and sometimes sensually. In addition, she connects, infers, or imagines the relationships and emotions between each work. In this way, the exhibition space is a process of uncanny experience and immersion, and has the effect of exploring a mystery. In fact, beyond the inner signification expressed in images, it attempts to further reveal the state of sensual emotions that are revealed across the boundary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and is also an attempt to translate the story into visual art.



구혜영		김영남	
2010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학원 순수미술 석사 졸업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학과 (비디오아트 전공) 예술전문사(석사) 졸업
2002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학사 졸업	2001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연출제작과 (영상연출 전공) 예술사 졸업
		1996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전공) 공학사 졸업

주요 개인전/2인전	주요 단체전 및 퍼포먼스/스크리닝
2021 The Uncanny, 작업실의 오후, 순천, 대한민국 (구혜영/김영남/2인전)	2021 ART NODE, H ART LAB, 서울, 대한민국
2021 그의 사라짐에 관하여2, 기억공장1945, 순천, 대한민국 (김영남/개인전)	2021 22회 신세계미술제 1차선정작가전,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대한민국
2020 비닐 연대기,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 대한민국 (구혜영/개인전)	2021 6회 충무로영화제-감독주간, 서울, 대한민국
2020 그의 사라짐에 관하여,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 대한민국 (김영남/개인전)	2021 The Space, 청송미술관
2020 통짜의 고백, 제비다방 CTR 회의실, 서울, 대한민국 (구혜영/개인전)	KBS2TV 수목드라마 달리와 감자탕, 연천, 대한민국
2020 구멍 난 현실, 제비다방 CTR 회의실, 서울, 대한민국 (김영남/개인전)	2021 당신의 ㅅㅅㅅㅅ,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 대한민국
2019 사眞적인 통짜, 물나무 마당, 서울, 대한민국 (구혜영/개인전)	2021 2회 호랑가시나무숲속영화제, 오웬기념각/호랑가시나무언덕, 광주, 대한민국
2018 통짜전,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대한민국 (구혜영/개인전)	2021 10의n승, <a href="https://www.tentothem.com">https://www.tentothem.com</a>
	2020 21회 신세계미술제 1차선정작가전,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대한민국
	2020 One Day One Surrealism, 모나코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2019 나나랜드, 사비나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19 7회 바르셀로나아시아영화제, 바르셀로나, 스페인
	2019 25회 낭시국제영화제, 낭시, 프랑스
	2019 Convergence Contents, Hammer Theatre, 산호세, 미국
	2018 Connect, EU ERAM, 지로나, 스페인
	2018 23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대한민국
	2016 16회 밀라노국제영화제, 밀라노, 이탈리아
	2015 Face, SVA Flatiron Gallery, 뉴욕, 미국
주요 레지던시	
2021 H ART LAB, 서울	
2020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	
2019 토지문화관, 원주	
2012 경기창작센터, 경기	

Hyeyoung Ku		Youngnam Kim	
2010	MFA Fine Art, Goldsmiths College, Univ. of London, UK	2013	MFA Fine Arts (Video Arts), School of Visual Arts,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orea
2002	BA Sculpture, Chung-ang University, Korea	2001	BA Filmmaking (Directing),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orea
		1996	BS Computer Engineering and Information, Ajou University, Korea

SOLO/DUO SHOWS (Recent)		GROUP SHOWS, PERFORMANCES FESTIVALS, SCREENINGS (Recent)	
2021	The Uncanny, Studio In Afternoon, Suncheon, Korea (Hyeyoung KU/KIM Youngnam/DUO)	2021	ART NODE, H ART LAB, Seoul, Korea
2021	Tale of His Disappearance 2, Memory Factory1945 (Complex Cultural Space), Suncheon, Korea (KIM Youngnam)	2021	22nd Shinsegae Art Festival – Finalist Exhibition, Gwangju Shinsegae Gallery, Gwangju, Korea
2020	The Chronicles of Vinyl, Horanggasy Artpolygon, Gwangju,, Korea (Hyeyoung KU)	2021	6th Chungmuro Film Festival-Directors Week, Seoul, Korea
2020	Tale of His Disappearance, HORANGGASY Creative Studio, Gwangju, Korea (KIM Youngnam)	2021	The Space, Cheongsong Art Museum, KBS2TV Drama DALI AND GAMJATANG, Yeoncheon, Korea
2020	Tongjiwa's Confession, JEBI DABANG CTR(Cultural Topography Research), Seoul, Korea (Hyeyoung KU)	2021	Whispers From Wilson, HORANGGASY Creative Studio, Gwangju, Korea
2020	Perforated Reality, JEBI DABANG CTR(Cultural Topography Research), Seoul, Korea (KIM Youngnam)	2021	2nd HORANGGASYNAMU Film Festival, OWEN Memorial Hall/HORANGGASYNAMU Hill, Gwangju, Korea
2019	Private Tongjiwa, Mulnamoo Madang, Seoul, Korea (Hyeyoung KU)	2021	10n, <a href="https://www.tentothan.com">https://www.tentothan.com</a>
2018	Tongjiwa Exhibition, PLACEMAK3, Seoul, Korea (Hyeyoung KU)	2020	21st Shinsegae Art Festival – Finalist Exhibition, Gwangju Shinsegae Gallery, Gwangju, Korea
		2020	One Day One Surrealism, MONACO Space, Seoul, Korea
		2019	Na Na Land, Savina Art Museum, Seoul, Korea
		2019	7th Asian Film Festival Barcelona, Barcelona, Spain
		2019	25th Nanc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ancy, France
		2019	Convergence Contents, Hammer Theatre, San Jose, USA
		2018	Connect, EU ERAM, Girona, Spain
		2018	23r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Korea
		2016	16th Mila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ilano, Italy
		2015	Face, SVA Flatiron Gallery, New York, USA
SELECTED RESIDENCY			
2021	H ART LAB, Seoul		
2020	Horanggasy Creative Studio, Gwangju		
2019	TOJI Cultural Foundation, Wonju		
2012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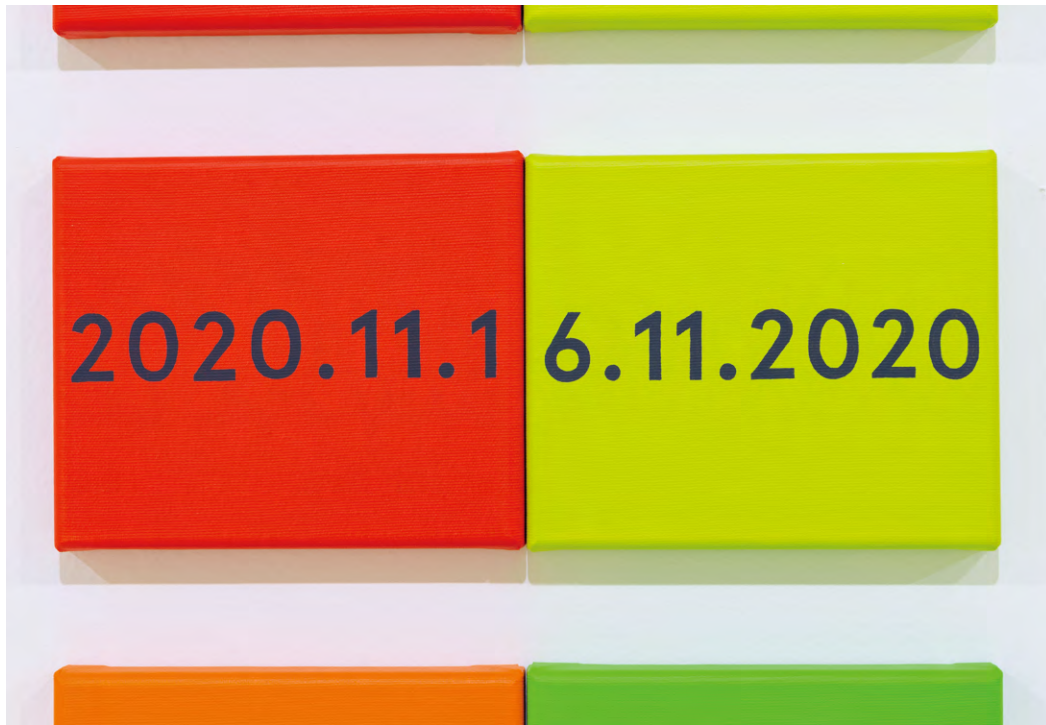
# 나나와 펠릭스

## Nana & Fel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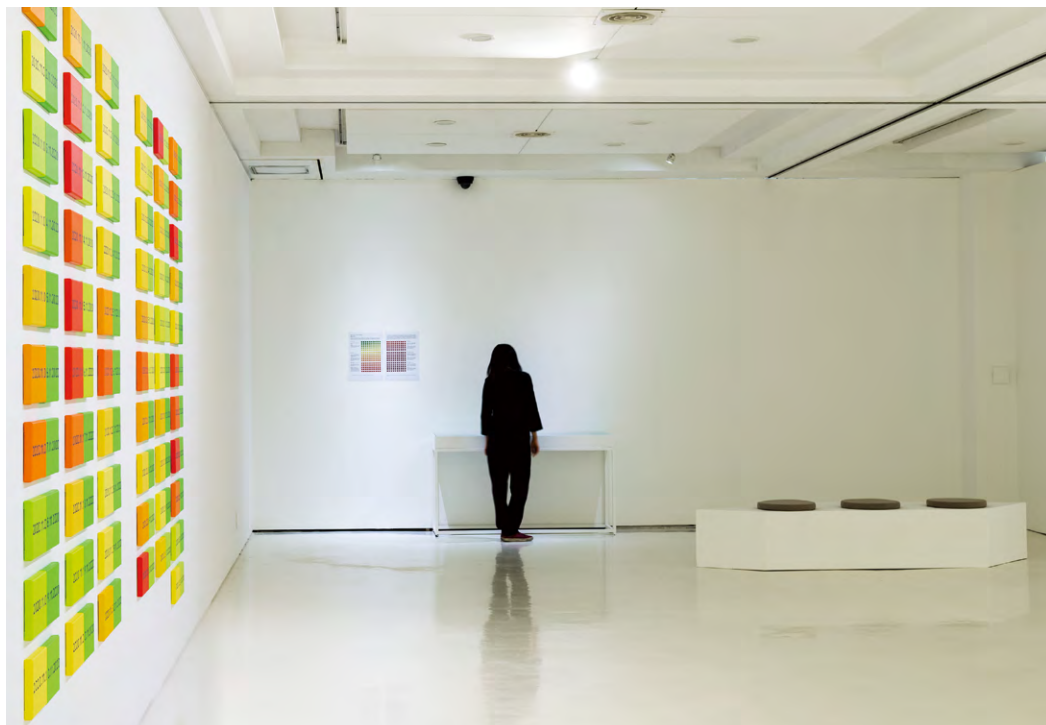


SEL2020HEL  
캔버스에 아크릴, 총 732점(366쌍); 각각 15x18 cm, 한 쌍 15x36 cm  
Acrylic on canvas, total 732 paintings (366 pairs);  
each 15x18cm, a pair 15 x 38 cm  
2020-2021





개인전 Solo exhibition SEL2020HEL  
대청호미술품전시지원 공모 선정전 공·동,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CMOA Daechongho Competition Exhibition COLLABORATIVE:EFFORT,  
Daechongho Art Museum, Cheongju  
2021



## 작가노트

### Artist's Statement

나나와 펠릭스는 시각예술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두 작가가 처해있는 삶과 그 주변 환경을 기록하고 풍자, 역설, 모순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풍경으로 재해석하여 묘사한다. 작업 과정에서 예술사에서 잘 알려진 개념들과 전통, 문화 및 상업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차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질 및 아날로그적 형태의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예술언어를 모색한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사회 및 문화적 정체성, 경제 윤리, 세계화의 개념들을 탐색하고 도발하며, 그것들이 도시 환경 및 대중 미학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하나의 큰 프로젝트 주제 아래, 각기 다른 소주제를 이루는 작품들이 모여 완성되는데, 각각의 개별 작품들은 상위 주제를 지지하거나 대립하는 내용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증법적 방식은 그들이 한국과 핀란드라는 각기 다른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시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모든 작업은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중성, 즉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에 속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를 반영한다.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서, 그들의 삶과 주변 환경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어려움 및 아름다움을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초기의 프로젝트 〈쏘 미 So. Me.〉와 〈존 시스템 The Zone System〉에서는, 인종, 이민, 인구, 성, 나이 등의 인간을 이미지로 구분짓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생성양식을 도큐먼트 또는 패러디하고, 통제와 감시를 행하는 공권력의 도구로서 사진의 역할을 사진 자체의 물성이 갖는 특수한 존재감을 통해 일련의 사진 조형물, 텍스트화된 이미지, 뉴미디어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해 온

Nana and Felix is a Korean-Finnish artist duo who works in various media of visual art. Through a mix of satire, irony, and contradiction, the artist duo documents and depicts their environment into a new form of interpreted landscapes. They actively borrow and appropriate the traditional, cultural, or commercial imagery with references to art history. In the process, the duo is interested in discovering a new meaning in making analogue forms of art. Their projects explore and challenge the notions of social identity, economic ethics, cultural aesthetics, globalisation, and their effects on the urban environment.

Their artistic practice involves a distinctive working method, creating various artworks that belong to larger, themed projects. Each separate body of work has its own sub-themes that both support and challenge the main project. This dialectical approach stems from their situation of living between two countries and cultures. All their projects are conditioned by, and reflect on this duality; the sense of never entirely belonging and drifting in-between. In a constant effort of anchoring to somewhere concrete, their work draws a parallel between their personal situation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their first two projects, *So.Me.* and *The Zone System*, the artist duo explored how photographic images are deployed when assigning humans into categories of race, gender, age, native population, and immigration in the realms of both product advertisement and political propaganda. By mimicking and manipulating photographic media and social surveys, both







프로젝트 <발전 Progress>과 <위스트 WEAST>에서는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발전이 이룩한 국가의 미적 기준에 주목하고, 거꾸로 된 문화적 전유가 만든 경제문화의 풍경을 다양한 매체와 시각언어로 재정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7시간의 미래>는 한국과 핀란드라는 동떨어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대도시의 확장, 대기오염, 감시와 통제, 독점시장 경제, 교외화(suburbanization) 등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풍경들과 거기서 파생되는 고립, 불안, 소외, 공허, 멜랑콜리 등의 심상들을 기록하거나 묘사하는 방식의 작업들을 병치한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품들은 회화, 드로잉, 사진, 영상, 아티스트북, 수집, 조형,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와 수십에서 수백가지의 부분들이 모여 한 작업을 이루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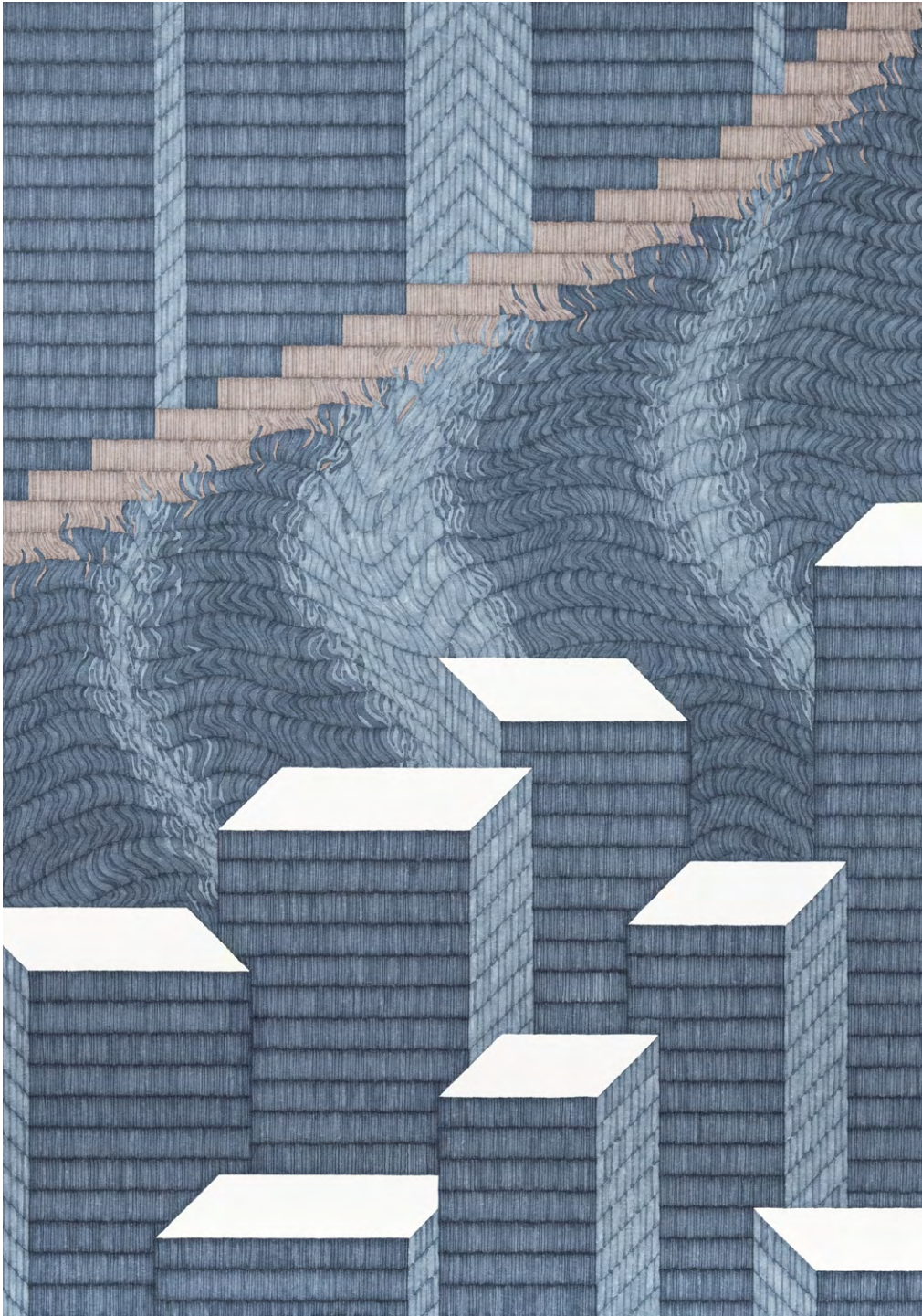
projects aim at exposing the absurd idea of self-expression that willingly feeds into the authoritative apparatus of control and surveillance.

Their following projects *Progress* and *WEAST* were carried out between 2015 and 2018 in South Korea. Conditioned by the peculiar history of this country, both projects deal with a reversed version of cultural appropriation. These works examine the outcomes of a national project that had been developed based on misinterpreted ideas of how developed foreign countries (i.e. the West) look like. The works mix elements from traditional Korean art with modern, mundane cityscapes. Their ongoing project *7 Hours of Future* consists of a series of reinterpreted landscapes that portray urban environments of South Korea and Finland. From differing angles, they create works that treat as disparate issues as urbanisation, pollution, environmental decay, surveillance, monopoly market economy and global outsourcing of production as part of the same phenomenon. By juxtaposing these two different worlds, the artist duo aim to portray how current economic thinking is reshaping and uniforming our cultural aesthetics, social and national identity, urban and natural enviro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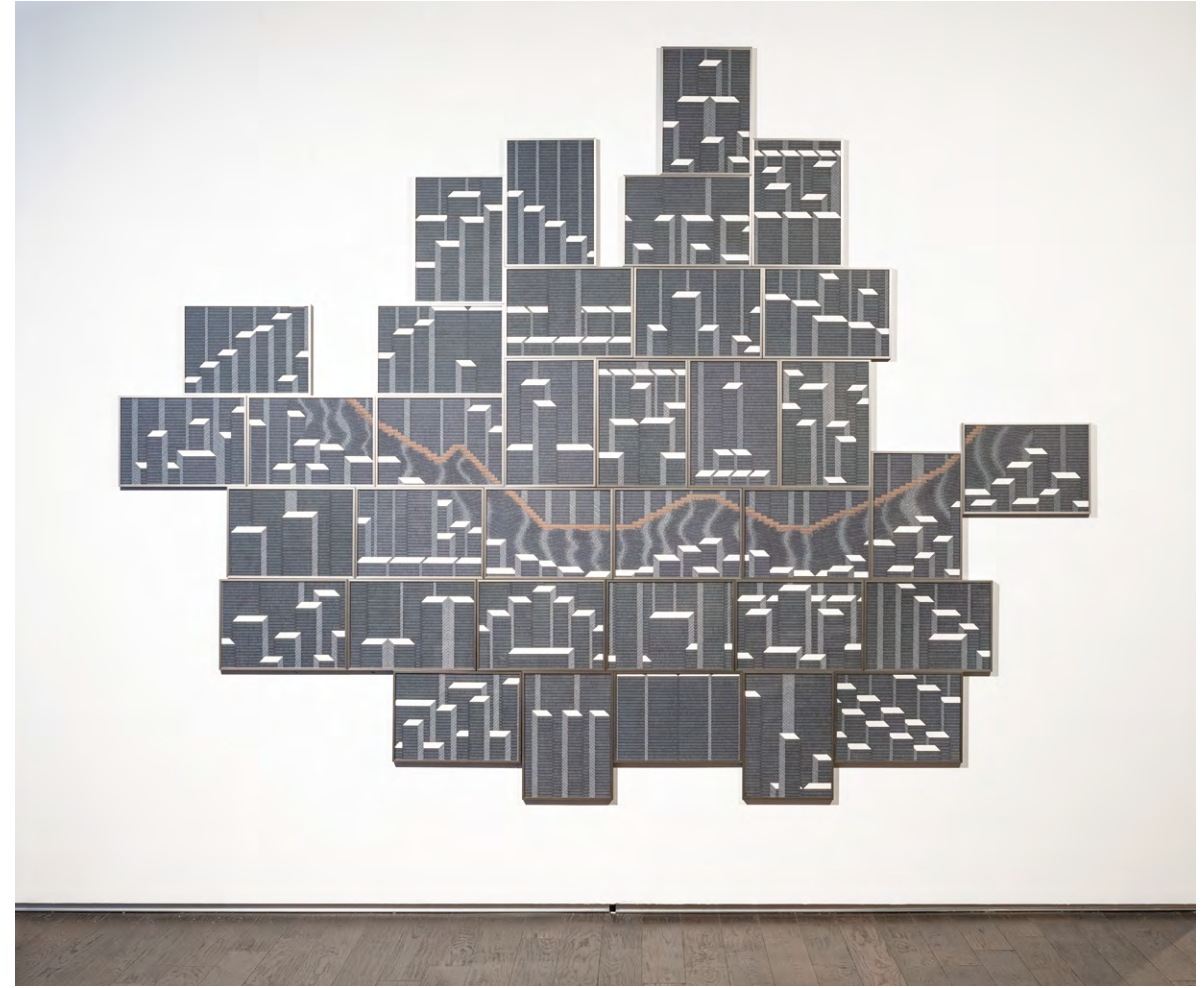
하천가 Stream-Line  
7채널 영상 설치, 루프  
7 channel-video, loop  
2022







*Koti Ikävä (Home-Sick)*  
 드로잉 설치; 종이에 마커펜, 총 35 부분, 각각 29.7x42 cm, 설치시 전체 약 210x318 cm  
 Ink on paper, total 35 pieces; each 29.7x42 cm, installed 210x318 cm  
 2021





나나(김환희)

2011-14 핀란드 헬싱키 알토예술대학원  
예술사진학과 석사 졸업

2003-04 영국 런던 첼시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졸업

2000-03 영국 런던 첼시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펠릭스(펠릭스 누베리)

2011-14 핀란드 헬싱키 알토예술대학원  
예술사진학과 석사 졸업

2007-11 스페인 바르셀로나 IDEP-Abat Oliba CEU 대학교  
사진학 &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학사 졸업

## 주요 개인전

2022	모든 것은 무너진다, 제6회 포스코미술관 신진작가 수상작가 개인전, 포스코미술관, 서울
2021	SEL2020HEL, 대청호미술관 전시지원 공모 선정전 공·동,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SEL2020HEL 다이어리, einBuch.haus, 베를린, 독일
2017	위스트 WEAST, 갤러리도울, 서울 Progress, Galeria H2O, 바르셀로나, 스페인
2016	카드로 만든 집,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4	The Zone System, 힌폴리떼 사진갤러리, 헬싱키, 핀란드
2013	Way(s) of Seeing, 페리 사진 센터, 뚜르꾸, 핀란드

## 주요 레지던시

2022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양주
2021	H ART LAB, 호반문화재단, 서울
2020	글로가우 레지던시, 베를린, 독일
2016	대전테미예술창작스튜디오, 대전 (해외 입주 작가 3개월)
201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해외 입주작가 3개월)
2014	코네 재단 사리레지던스, 히에따마기, 핀란드

## 주요 수상

2021	제6회 포스코미술관 신진작가상 수상,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5	핀란드 예술협회 신진작가기금 수상, 헬싱키, 핀란드 (Hwanhee Kim)
2015	울랄라 소형 조각상 우수상 수상, 시드니, 호주(Hwanhee Kim)

## 주요 그룹전

2021	<p>         ein Buch in Form einer Ausstellung,          einBuch.haus, 베를린, 독일          Evidencia, Latencia, Transparencia –          Sobre la representación de la violencia,          Institut de Cultura de Barcelona –          Centro Cívico Guinardó, 바르셀로나, 스페인       </p>
2020	<p>         어제 꿈에 보았던, 2020 아트프로젝트 울산, 울산       </p>
2018	<p>         Petites Anotacions Sobre El Retrat, Centre          Cívic Ateneu Fort Pienc, 바르셀로나, 스페인          집으로 가는길,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p>
2017	<p>         이구일레포트 Part 1, 공간 291, 서울          IHME Contemporary Art Festival, 헬싱키, 핀란드       </p>
2015	<p>         New present, Mänttä Art Festival, 만타, 핀란드          Relational Extravaganza &amp; Arbitrary Dreams,          레이시 컨템포러리 갤러리, 런던, 영국       </p>
2014	<p>         Masters of Arts Unseen, 헬싱키 디자인위크,          헬싱키, 핀란드       </p>

# Nana & Felix

Nana (Kimhwanhee)

2011–14 MA in Fine-art Photography, Aalto University, School of Arts & Design, Finland

2003–04 MA in Fine-art,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London, UK

2000–03 BA in Painting,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London, UK

Felix (Felix Nybergh)

2011–14 MA in Fine-art Photography, Aalto University, Helsinki, Finland

2007–11 BA in Photography & Visual Communication, IDEP-Abat Oliba CEU, Barcelona, Spain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All Things Fall Apart, The 6th Emerging Artist Award Solo Exhibition, Posco Art Museum, Seoul
2021	SEL2020HEL, Daechyeongho Museum of Art, Cheongju, South Korea SEL2020HEL Diary, einBuch.haus, Berlin, Germany
2017	WEAST, Gallery Doll, Seoul, South Korea Progress, Galería H2O, Barcelona, Spain
2016	House of Cards, Artist Residency TEMI, Daejeon, South Korea
2014	The Zone System, Hippolyte Gallery, Helsinki, Finland
2013	Ways of Seeing, Photographic Centre Peri, Turku, Finland

## SELECTED RESIDENCY

2021	H ART LAB, Hoban Cultural Foundation, Seoul, South Korea
2020	GlogauAIR, Berlin, Germany
2016	TEMI Artist Residency, Daejeon, South Korea
2015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2014	Koneen Säätiö Saari Residence, Hietamäki, Finland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ein Buch in Form einer Ausstellung, einBuch.haus, Berlin, Germany Evidencia, Latencia, Transparencia – Sobre la representación de la violencia, Institut de Cultura de Barcelona – Centro Cívico Guinardó, Barcelona, Spain
2020	Yesterday What I saw In My Dream,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Project Ulsan 2020, Ulsan, South Korea
2018	The Way Home, Suwon Art Center, Suwon, South Korea Petites Anotacions Sobre El Retratar, Centre Cívic Ateneu Fort Pienc, Barcelona, Spain
2017	291 Report Part. 1, Space 291, Seoul, South Korea IHME Contemporary Art Festival, Helsinki, Finland
2015	New Present, Mänttä Art Festival, Mänttä, Finland

## SELECTED AWARDS

2021	The Great Artist, 6th Emerging Artist Prize, Posco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2015	Highly Commended, The Woollarha Small Sculpture Prize, Sidney, Australia (Hwanhee Kim)
2015	Young Artist Grant, Finnish Art Society, Finland (Hwanhee Kim)



박혜수

Hyesoo Park

오아시스 제단 *Oasis Altar*  
오아시스 블럭, 죽은 꽃, 텍, 가변크기  
Floral foam, dried flowers with dead time recorded, tag  
Variable Size  
2021  
사진제공: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이토록 아름다운' 展  
2021. 4.23-9.12

'The Nature of Art' Exhibition,  
Busan Museum of Art  
April 23, 2021-September 12, 2021

"오늘날에는 상례(喪禮)가 사라져 가는 경향이 있다. 가족 중의 누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사람들은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둘러 평소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소중한 존재가 사라지는 일이 갈수록 덜 심각한 사건이 되어 간다. (...) 비단 사람이 죽었을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이나 삶의 터전을 떠날 때처럼 <종결의 사건>이 있을 경우엔 애도는 필요하다 (...)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잡초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내지 않은 것처럼 사건의 후유증이 오래 간다."

— '애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베르나르 베르베르

부산시립미술관의 기획전 <이토록 아름다운> 전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술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용기를 일깨우고자 기획되었다. 전시에서 발표한 작품 <늦은 배웅>은 코로나 시대, 임종도 보지 못하고, 장례도 생략당한 유가족들 대상으로 부산일보와 협업으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숨지 말고 슬픔을 표현해도 된다'는 두 번째 애도 프로젝트이다. 이번 애도 프로젝트는 코로나 사망자를 비롯한 기저 질환자의 부고 기사와 신문을 활용한 '늦은 배웅' 시리즈와 놓쳐 버린 임종, '생략 당한 장례'를 나타내는 '낯선 이별'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늦은 배웅' 시리즈는 설문 조사와 직접 취재를 통해 조사한 유가족들이 고인들을 향해 건내지 못한 사연들을 모아 부산일보에 부고 기사로 기재하고 Full Story는 전시장에 아카이브 프린트 작품으로 제작, 전시했다.

작품들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 전시 됐으며, 안쪽 공간엔 고인과 유가족을 애도고 위로하는 설치 작품들을 배치했다. 작품 '꽃이 지는 시간'은 유가족들이 박탈당한 '마지막 순간'을 꽃에 빚대어

"Today, funeral rites tend to disappear. Even when someone in the family dies, people are in a hurry to resume their usual activities as soon as the funeral is over. (...) Not only when a person dies, but also when there is an <End of Time> such as when a person leaves a job or place of life, mourning is necessary (...), as if the roots of weeds were not pulled out properly, the aftermath of the incident lasts for a long time."

— *On the Importance of Mourning*, Bernard Werber

The Busan Museum of Art's special exhibition <The Nature of Art> was designed to convey the message of comfort and healing that art provides to us living in the era of COVID-19, and to awaken the courage to face a new era. The work <Late Farewell> presented at the exhibition is intended to convey condolences to the bereaved families who have not seen the deathbed or to have a funeral omitted in the era of COVID-19, and to convey the message that it is okay to express sorrow without hiding. This is the second mourning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the Busan Ilbo. This mourning project consists of a 'Late Farewell' series using obituaries and newspapers of those with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including those who have died of COVID-19, and a 'Unfamiliar Farewell' series, which shows the missed death and 'missing funerals'. In the 'Late Farewell' series, the stories that the bereaved families investi-gated through surveys and direct coverage were collected and written as obituaries in the Busan Ilbo, and the Full Story was produced and displayed as an archival print at the exhibition hall.

꽃이 지는 시간 Flower's Falling Time  
생화, 플립시계, 블랙달력, 택, 가변크기  
Real flower, flip clock, black calendar, tag  
Variable Size  
2021  
사진제공: 부산시립미술관







Gloomy Monday  
부산일보, 오르폴, 신문, 기념크기  
Busan Ilbo, music box, newspaper  
Variable Size  
2021  
사진제공: 부산시립미술관

나타내는 작품으로 시들어지면 외면받고 버려지는 꽃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몇 시에 죽었는지 지켜보지 않는 점이 마치 코로나 사망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전시장에 봉우리가 진 꽃들이 놓이고 현재 시간, 달력이 표시되어 작동된다. 꽃이 만개하고, 시들고, 죽음이 판단되면 시계를 정지하고, 꽃이 죽은 시간을 기록하고 이후 꽃이 다 마르면 맞은 편 '오아시스 제단'으로 옮겨진다.

임종을 보지 못한 유가족에게 장례 또한 생략 당하고 있었다. 코로나 사망자들은 선(先) 화장 – 후(後) 장례의 절차를 밟으나,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죽음을 알리지 못하고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의 비난을 염려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과 마른 눈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을 비어 있는 '애도의 제단'을 마련하여 역설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꽃으로 가득했어야 할 제단에 메마른 오아시스와 끝이 기록된 죽은 꽃들만 가득했다.

'꽃 한 송이 꽃지 못한 강제로 생략당한 누군가의 장례..'

전시를 마치고, 협력기관인 부산일보에 일반 시민들이 부고를 올릴 수 있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사람들의 사연을 만나 볼 수 있다 : <http://bye.bus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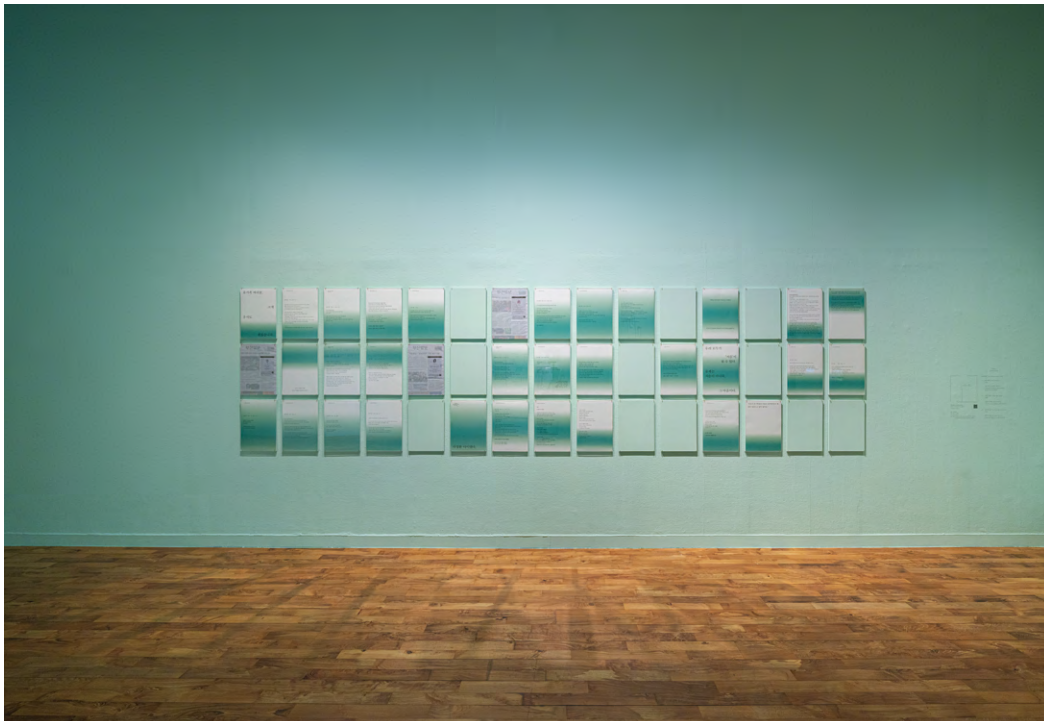
늦은 배웅 Late Farewell  
코로나 유가족, 기저질환 사망자의 부고,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부산일보, 기념크기  
Corona-bereaved family, obituary of the deceased with underlying disease, Archival pigment print, Busan Ilbo, Variable Size  
오금아 기자(부산일보) 협업 Collaborated with Reporter Geum A Oh (Busan Ilbo)  
2021

The works were displayed in two spaces, and installation works to mourn and comfort the deceased and bereaved family were placed in the inner space. The work 'Time to Bloom' is a work that compares the 'last moment' when bereaved families are deprived of a flower. I thought it resembled the feelings of the villagers and their families. Flowers with peaks are placed in the exhibition hall, and the current time and calendar are displayed and operated. When a flower blooms, withers, or death is determined, the clock stops, records the time the flower died, and then moves to the opposite 'Oasis Altar' when the flower dries.

Funerals were also omitted by the bereaved family members who could not see the deathbed. Corona deaths go through cremation-first and funeral-afterward procedures, but most of the bereaved families are not able to inform their close acquaintances of the death, cry out loud, receive no comfort, and live worrying about Art Criticism from those around them. . Before Art Criticizing them, I tried to paradoxically express the hope that they ar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and the sadness of having to leave their loved ones with dry tears by providing an empty 'altar of mourning'. The altar, which should have been filled with flowers, was filled with only a withered oasis and dead flowers whose end was written.

'The funeral of someone who was forcibly omitted because he could not put a flower on it..'

After the exhibition, an interactive page was opened in the Busan Ilbo, a partner organization, where ordinary citizens can post obituaries: <http://bye.busan.com>





오래된 약국 2021  
노말리티 (feat. 두이)  
Ancient Pharmacy 2021  
Normality (feat. Doeee)

나의 미래는  
( )에 달려있다  
◎ 과거 ◎ 현재 ◎ 운(運)  
부담 없이 미래를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 오래된 약국 2021

팀 노말리티 Feat. 두이

일민미술관 '운명상담소' 展  
2021. 4.23-9.12

〈프로젝트 '대화' Vol.1- 꿈의 먼지〉에서 첫 선을 보였던 상담 퍼포먼스 '오래된 약국'을 10년 만에 발표했다. 10년 전에는 '꿈'에 대해 관객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정신을 다루는 세 분야의 전문가-정신과 의사, 예술가 그리고 점술가-로 구성된 퍼포머로 꿈에 대한 관객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2021년 일민미술관의 '운명상담소' 전시에서는 10년 전 멤버였던 정신과의사인 성유미 원장과 박혜수 작가가 '노말리티'란 팀을 만들고, 두이 Doeee 작가가 점술가로 참여했다.

'오래된 약국 2021'에서는 '운(運)'을 주제로 관객들에게 "운은 ( )에 달려있다" 질문을 주고 관객들은 과거-현재-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세 가지 객관식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각 점술가-정신과의사-예술가를 1:1로 만나게 되고 퍼포머는 각자의 방식으로 관객의 운에 대해 대화하며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렸다.

이 상담 퍼포먼스 쇼트를 2021년 H ART LAB의 내부 프로그램으로 발표한 바 있다.

# Ancient Pharmacy 2021

Team Normality Feat. Doeee

'Fortune Telling' exhibition  
Ilmin Museum of Art  
April 23, 2021-September 12, 2021

After 10 years, the counseling performance 'Ancient Pharmacy', which was first shown in 〈Project 'Dialogue' Vol.1- Dream Dust〉, was released. 10 years ago, it started to actively investigate the audience's thoughts on 'dream', and it was a performance composed of experts in three fields dealing with the mind—a psychiatrist, an artist, and a fortune teller—to investigate the audience's state of the dream.

In the 2021 exhibition of 'Fortune Telling' at Ilmin Museum of Art, psychiatrist Yumi Sung and artist Hyesoo Park, who were members 10 years ago, formed a team called 'Normality', and artist Doeee participated as a fortune teller.

In 'Ancient Pharmacy 2021', under the theme of 'fate', the audience was asked the question "Fate depends on ( )", and the audience could choose past-present-future. When people choose one of three multiple-choice answers, they meet 1:1 with a fortune teller, a psychiatrist, and an artist, respectively, and the performers in their own way talk about the audience's fate and give prescriptions accordingly.

This counseling performance shot was announced as an internal program of H ART LAB in 2021.

오래된 약국 Ancient Pharmacy  
혼합재료, 가변크기, 일민미술관(사진 제공 : 일민미술관 / 촬영 : 스튜디오 마실)  
(Photo: Ilmin Museum of Art / Shooting: Studio MASIL)  
2021





200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1997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주요 개인전	주요 레지던시
2020	가까이, 조금 멀리 있어줘,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2017	Nowhere Man, 디스위켄드룸 갤러리, 서울
2016	Now Here is Nowhere,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보통의 정의,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1	꿈의 먼지, 금호미술관, 서울
2010	Missing, 갤러리 현대 원도우갤러리, 서울 외 다수

주요 그룹전	주요 수상
2021	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 일민미술관, 서울
	아트디렉, '실연활용법', 예술의 시간, 서울
2020	새일꾼 1948-2020, 일민미술관, 서울
	현실이상, 백남준아트센터, 경기
2019	올해의작가상 201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Viborg Animation Festival, NYT
	Viborg Museum, Viborg, DK
	마음현상: 나와 마주보기,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
	태평동 빈집지역, 성남
2018	SCENE & UNSEEN, Castled'Aspremont-Lynden, OUD-REKEM, BE
	Re:Sense (박혜수+전소정),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생생화화 헤어날 수 없는 Hard Boiled and Toxic , 경기도 미술관, 경기
2017	Do It Seoul, 일민미술관, 서울
	경계 15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외 다수

주요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서울),서울시립미술관(서울),미술은행(과천현대미술관),부산현대미술관(부산)

2000

M.F.A College of Fine Arts, EWhA Womans Univ, Seoul, South Korea

1997

B.F.A College of Fine Arts, EWhA Womans Univ, Seoul, South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Nowhere Man, This Weekend Room, Seoul, KR
2016	Now Here is Nowhere, SoungEun Art Space, Seoul, KR
2013	Project Dialogue Vol.3-Definition of Botong(Archive), Songeun Art Space, Seoul, KR
2011	Project Dialogue Vol.1-Dream Dust, Kumho Museum, Seoul, KR
2010	Missing, Gallery Hyundai Window gallery, Seoul, KR
2017	Do It Seoul, Iimin Museum, Seoul, KR
	Border 155, Seoul Museum of Art, Seoul, KR
	Lacey Contemporary Gallery, London, UK
2014	Masters of Arts Unseen, Helsinki Design Week, Helsinki, Fi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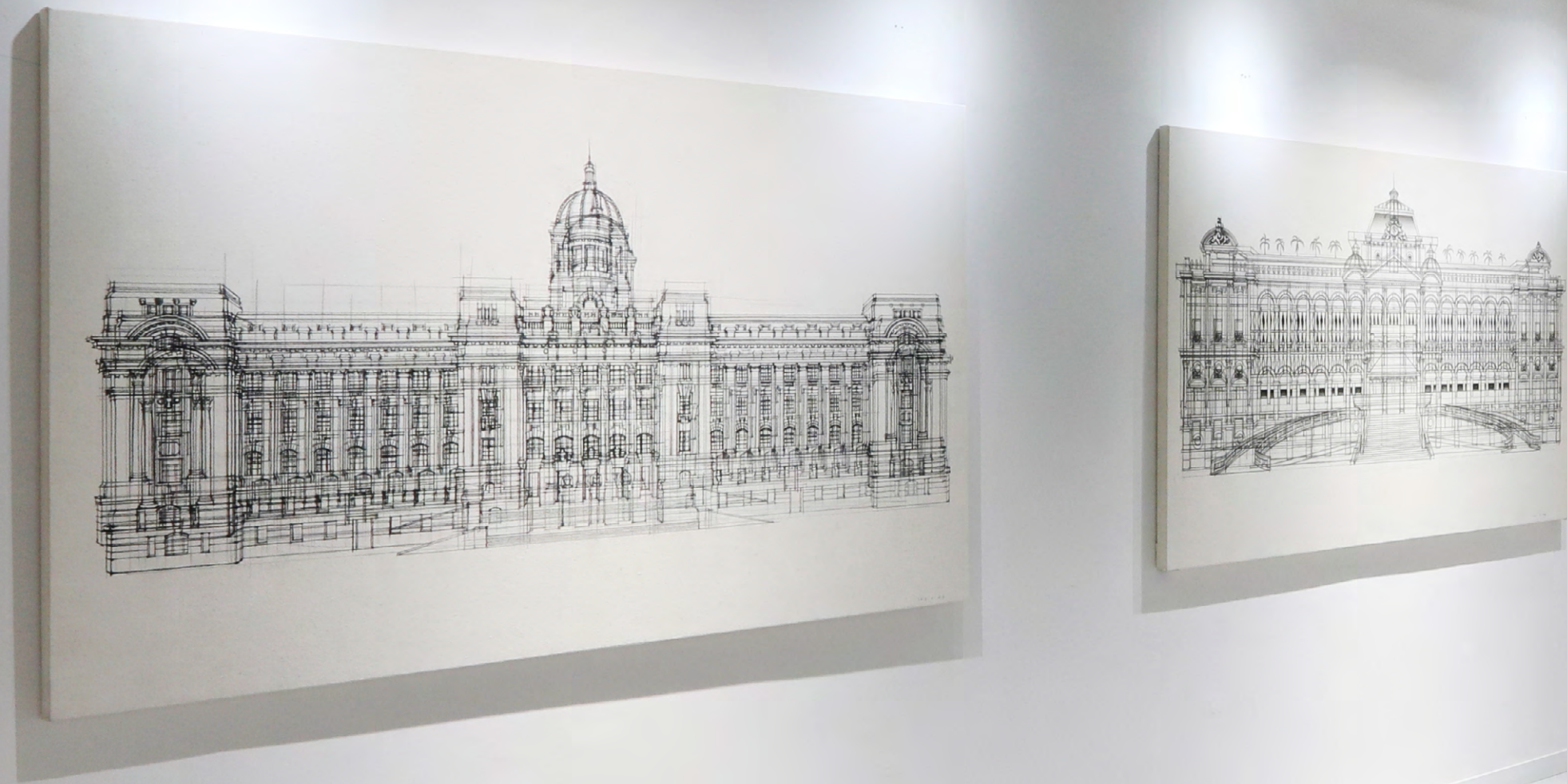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e Nature of Art, Busan Museum of Art, Busan, KR
	Fortune Telling, Iimin Museum, Seoul, KR
	Art D-Ram: Broken Hearted Collection, Art Center 'Art Moment', Seoul, KR
2020	The Better Man 1948-2020: Pick your representative for the National Assembly, Iimin Museum, Seoul, KR
	Reality Error, Nam June Paik Art Center, Gyeonggi, KR
2019	Viborg Animation Festival, NYT Viborg Museum, Viborg, DK
	The Phenomenon of the Mind : Facing Yourself,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R
	The 69 Times of Sunrise, Kumho Museum of Art, Seoul, KR
	Taepyeong Binzip Project '1 that does not disappear', Taepyeong4dong, KR
2018	SCENE & UNSEEN, Castled'Aspremont-Lynden, OUD-REKEM, BE
	re:Sense, SpaceC, Seoul, KR
	Hard Boiled and Toxic,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KR

SELECTED AWARDS & EMERGING ARTIST SELECTION	
2021	H ART LAB Seoul, Korea
2019	White Block Residency Cheonan, Korea
2017	Shinheung Public Art in Residency Seongnam, Korea
2015	Gasworks Residency London, United Kingdom
2013	Jan Van Eyck Academie Maastricht, Netherlands
2011	HONGEUN Seoul Art Space Seoul, Korea

2021	Paradise Art Lab 2022, Incheon, KR
2019	Korea Artist Prize 2019, MMCA, Seoul, KR
2015	Overseas Residency Supporting Program, Arts Council Korea (ARKO)
2014	The 13th SongEun Arts Award: Grand Prize, SongEun Art Foundation, Seoul, KR

COLLECTIONS	
MMCA, Seoul, KR	
Seoul Museum Of Art, Seoul, KR	
ART Ban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R	
Museum of Contemporary of Busan, Busan, KR	







## Artist's Statement

나에게 도시란 인간의 삶의 형태와 인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다.

첫 개인전을 가졌던 2002년부터 화폭에 자연 대신 오래된 건축물을 담는 것에 일관된 관심을 가져 왔다. 도시의 외관 혹은 건축물을 묘사하되 형식과 외관만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캔버스 위에 수묵 작업을 지속해 온 것이다. 동양화 하면 떠오르는 일필휘지가 아니라 아교를 바른 캔버스 위에 색채는 사용하지 않고 흐린 먹으로 드로잉 하듯이 진하게 쌓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캔버스 상 건축물 풍경은 서사의 가능성을 줄만한 인간이나 풍경적 요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 건물의 그림자나 조명의 반사빛이 유난히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형태들은 마치 무중력적 공간에 떠 있어 건축물이 놓인 현실적 맥락이 제거되며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그림자들은 존재의 '실체' 보다는 더 거대한 무게를 지니는 '비실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다. 서울 세운상가의 오래된 건물, 홍콩 특유의 퇴색된 아파트에서부터 위계질서에 바탕해 구축된 종교적 건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건축물을 통해 도시의 건축상, 이미지의 허구성 및 환상, 실재와 비실재 등에 관하여 탐구해왔다.

최근의 관심사는 역사적 의미에서 어떤 면으로는 아픈 기억으로 덮여두고 있는 우리의 근대 건축물들이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역사를 간직한 채 흔재되어 있는 사대문과 조선의 궁들, 그리고 근대를 대변하는 건축물들이다. 근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은 우리 근대의 상징이다. 중앙청으로 불리던 과거의 조선총독부는 이미 철거되었지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조선의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 지어졌던 건축물. 그리고 현재 그 용도와는 달리 다른 목적을 수행

For me, the city is a tool for understanding human modes of living and human beings thems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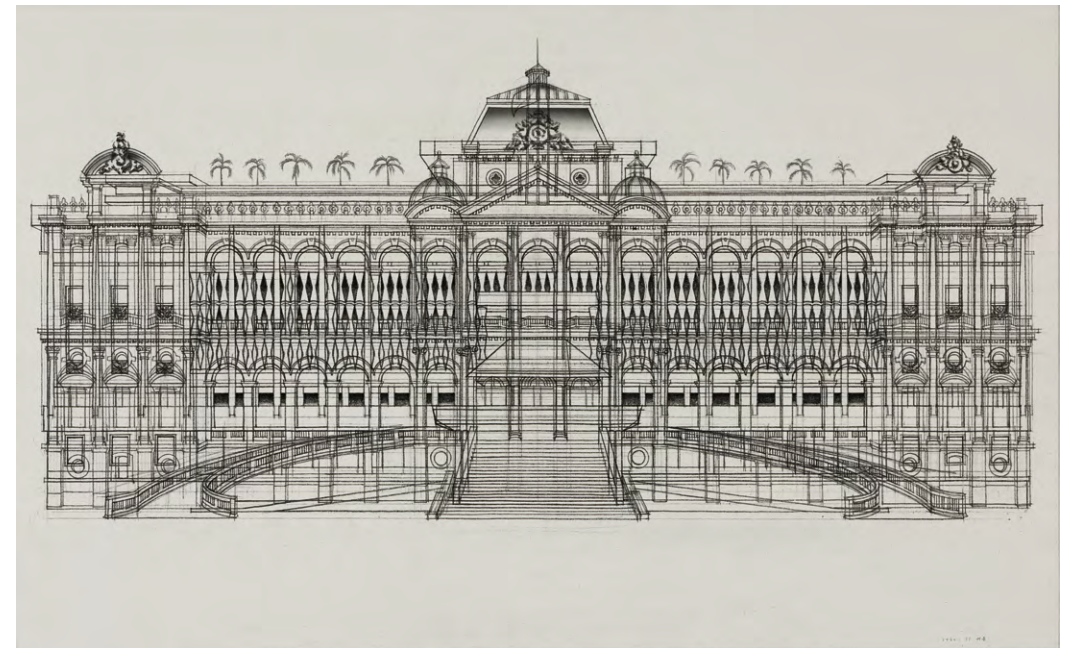
Since holding my first solo exhibition 2002, I have been consistently interested in representing old buildings on the canvas, as opposed to images from nature. My work has involved the use of Korean (Indian) ink on the canvas to represent city views and structures in a way that leaves only the forms and exteriors. This approach does not involve the kind of "single-stroke dashing" associated with Eastern art, but the use of blurred ink on a glue-coated canvas to apply thick layers reminiscent of drawing, without the use of color. The landscape of structures on the canvas includes no human figures or scenery elements that might hint at the possibility of narrative. The images are also characterized by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shadows of the structures and the light reflected off of them. The real-world context of the buildings is removed as the forms appear to float in zero-gravity space, while the consistent emphasis on shadows raises endless questions about "insubstantial" things that carry greater weight than the actual substance. From the old structures of Seoul's Sewoon Plaza shopping arcade and Hong Kong's distinctively discolored apartments to religious structures erected within a system of hierarchy, the different buildings are used in an exploration of urban architecture, the fiction and illusions of the image, and reality/unreality.

The works to be exhibited at this time were designed to reflect on the past history at

기념비 - 중앙청 Monument - Capital Hall  
캔버스상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97x162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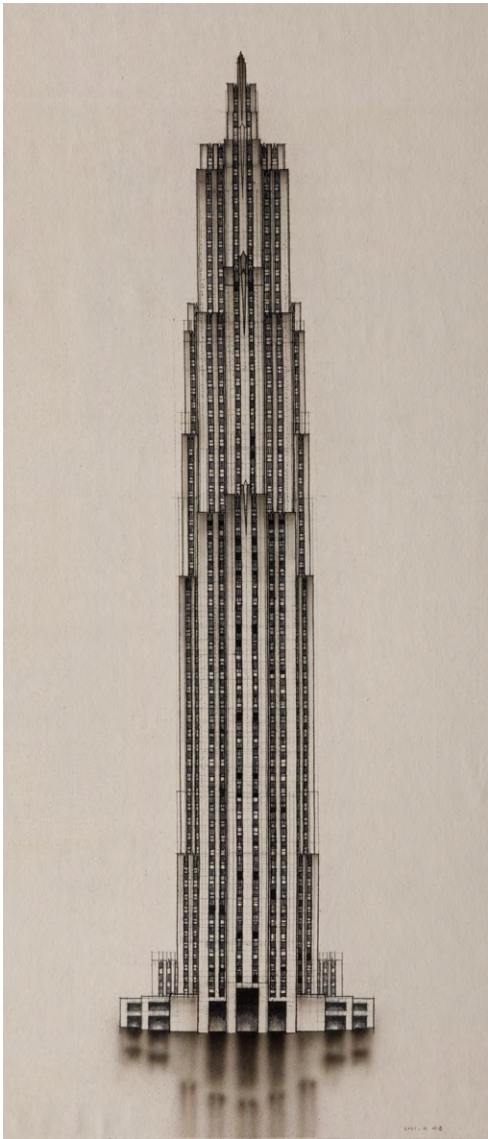
기념비 - 통일궁 Monument - Independence Palace  
캔버스상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97x162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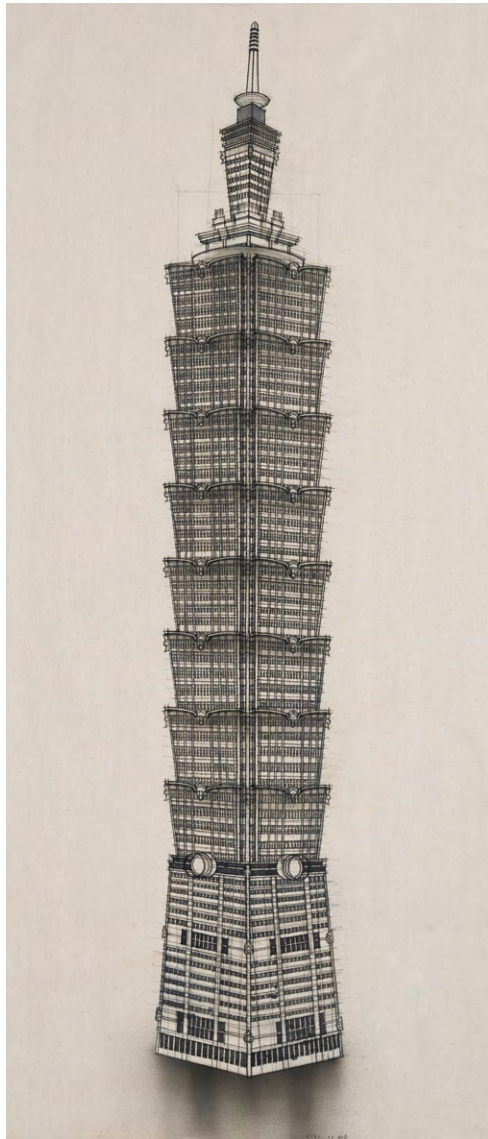








록펠러 센터 Rockfeller Center  
캔버스 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162x70cm  
2021



타이베이 101 Taipei 101  
캔버스 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162x70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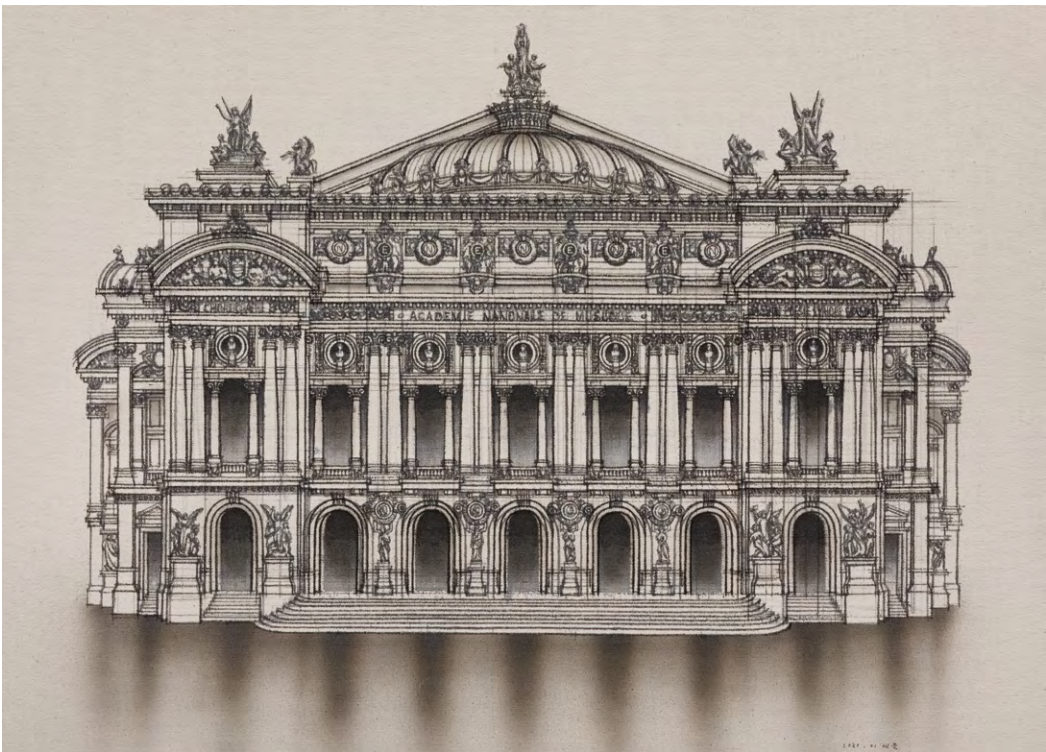
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통해 아픈 역사의 흔적들을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표현하였다. 건축물의 흔들리는 이미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 버리는 역사의식의 비판이자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결코 과거는 없었다는 듯 살아가고 있는 단절을 표현해 낸 것이다.

또한 익숙하지만 낯선 기념비인 종교건축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사실은 오래된 건축물들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되었다. 종교건축물은 그 지역과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총망라되어있는 총체적 상징이며, 당시의 삶과 생활상을 오롯이 담고 있는 기념비로, 세계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공간이다. 삶의 깊숙한 곳에 항상 존재하는 익숙한 세속적 공간이지만, 절대자의 성스러움과 경외감을 드러 내는 낯선 공간이기도 하다. 공간감과 서사가 철저히 무시된 평면 위에 성당 등 건축물의 외형을 수없이 중첩된 선으로 구현한다. 가느다란 한 줄의 선은 하나하나 켜켜이 쌓이며 중첩되고, 하나의 형태를 완성시킨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고 기호와 상징이 되고 형태와 양식(Form)이 되어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었듯 무수히 많은 선을 그리고 그리는 과정 안에서 시간은 중첩되고 압축 되어 정지된 화면 위에 드러난다. 수없이 중첩된 선 사이에 압축된 시간의 주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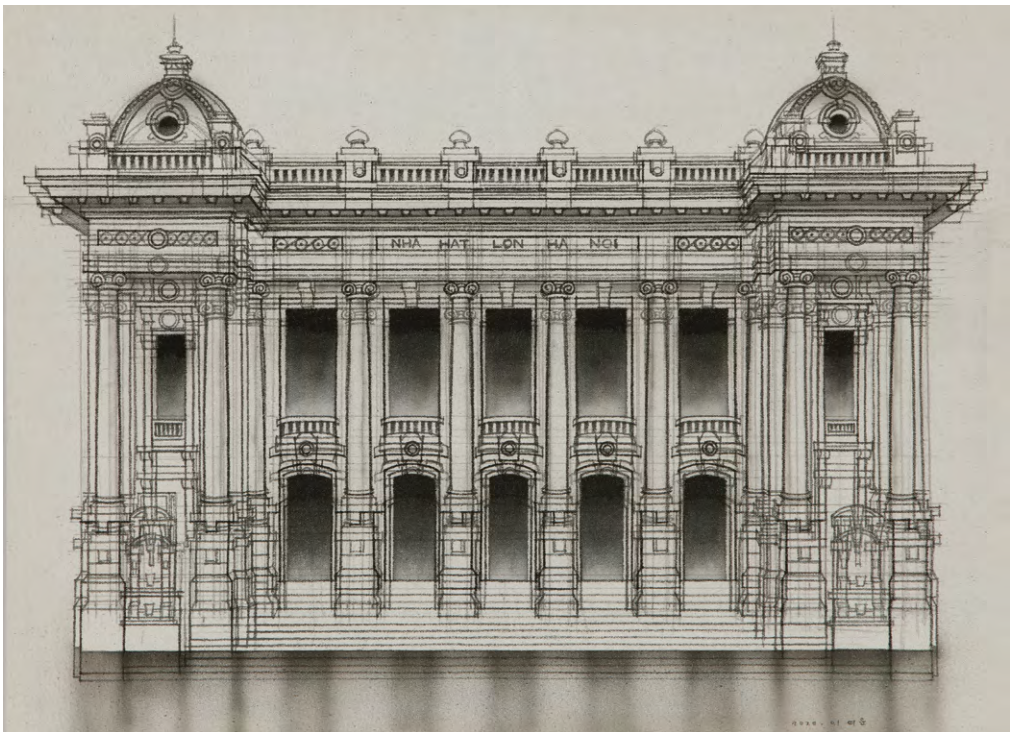
this time when Korea is undergoing a great political upheaval. In our historical sense, there are some modern structures that are covered with painful memories.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the palace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buildings that represent the modern period are the ones that are kept together with history centering on Gwanghwamun. Modern architecture is a symbol of our modernity. The former Chosun government office, formerly called Central Hall, was already demolished, but it was part of the history that remained in our memory.

My ongoing interest in religious structures as monuments that are both familiar and strange actually originates in my affection for old buildings. Religious buildings are comprehensive symbols encompass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a region and era; as monuments representing life and customs at the time, they are great spaces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world. While they are familiar, mundane spaces that are constantly present deep within our lives, they are also unfamiliar settings that express a sense of awe and the divinity of an absolute being. Lines are endlessly layered to form the exteriors of cathedrals and other structures on a two-dimensional surface from which any sense of spatiality and narrative has been completely eschewed. Each thin line contributes to the layers that make up the single form. Just as a single structure forms over time through development and the creations of signs and symbols, shapes and forms, so time becomes layered and compressed on the stationary canvas as innumerable lines are drawn. Among these countless layered lines, the furrows of compressed time begin to appear.





기념비-오페라 가르니에 Monument - Opera Garnier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65x91cm  
 2021



기념비-하노이 오페라하우스 Monument - Hanoi Opera House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53x73cm  
 202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졸업

주요 개인전	주요 레지던시
2022      공간의 기억 (아르떼22 갤러리 :서울)	2021      호반문화재단 H ART LAB 입주 작가 (서울, 한국)
2021      파사드 프로젝트 (갤러리 마리 : 서울)	2020      한국-베트남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SHARP #1' (서울, 한국)
2019      Reflection: Yuwoon Lee (갤러리 아트모라 서울)	2019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경기, 한국)
2018      Modern Times (갤러리 도스 : 서울)	2018      베니스 살롱 앙코르 초청 작가 (베니스, 이탈리아)
2017      Duplicate (유중갤러리 : 서울)	2017      베니스 살롱 카우치 작가 (베니스, 이탈리아)
2015      위대한 겁대기 (이랜드스페이스 : 서울)	

주요 국제전	주요 수상경력
2022      Seattle Art Fair 2022 (Lumen Field Event Center : 시애틀, 미국)	2021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안산, 한국)
2020      湧動墨潮-亞洲當代藝術交流展 (대문문화중심. 대돈화랑 : 타이중, 대만) 中韓交流精彩絕倫 (예술문화센터 : 신베이, 대만)	2020      서울문화재단 창작준비지원 RE:SEARCH 작가 선정 (서울, 한국)
2019      artmora (ART SALON : 첼시, 미국) ART INTERNATIONAL ZURICH 2019 (Puls 5–Giessereihalle : 취리히, 스위스)	2019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아트프로젝트 공모 당선 (경기, 한국)
	2018      베니스 살롱 앙코르 초청 작가 선정 (베니스, 이탈리아)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작가 선정 (서울, 한국)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 시각예술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작품 소장
2022      점·선·면의 대화 (구리아트홀 : 구리) 낭만사회유사 I (산울림 아트앤크래프 : 서울) 무언의 대화 (148아트스퀘어 : 영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오산문화재단, 여주시립미술관, 국립해양박물관, 인터알리아, 63 스카리아트 미술관, 갤러리라메르, 문화일보갤러리, 세줄갤러리, 마루미미술관
2021      단원미술제 (단원미술관 : 안산)	

B.F.A. in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M.F.A. in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h.D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SELECTED RESIDENCY
2022      The Memory of Spatial (Arte22 Gallery : Seoul)	2021      Participate in H ART LAB of Hoban Cultural Foundation, Seoul, Korea
2021      Shape & Shadow (H Art Space : Seuol) Façade Project (Gallery Marie : Seoul)	2020      Seoul-Hanoi Artist Residency Plexus #1, Seoul, Korea
2019      Reflection: Yuwoon Lee (Gallery Artmora Seoul)	2019      Participate in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Korea
2018      Modern Times (Gallery Dos : Seoul)	2018      Participate in Venice Salon Encore Couch Project. Venice, Italia
2017      Duplicate (Ujung Gallery : Seoul)	2017      Participate in Venice Salon Couch Project. Venice, Italia
2015      The Great Shell (Eland Space : Seoul)	

SELECTED INTERNATOINAL EXHIBITIONS	AWARDS
2022      Seattle Art Fair 2022 (Lumen Field Event Center : Seattle, USA)	2021      Win a prize in Danwon Art Festival (Ansan, Korea)
2020      Surging Wave: Asian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ion (Gallery Daedon : Taichung, Taiwan) China-Korea Contemporary International Ink Painting Exchange Exhibition (New Taipei City Arts & Culture Center : New Taipei, Taiwan)	2020      The SFAC supports creative art activities. RE:SEARCH (Seoul, Korea)
2019      artmora (ART SALON : Chelsea, USA) ART INTERNATIONAL ZURICH 2019 (Puls 5–Giessereihalle : Zurich, Switzerland)	2019      Win a prize in GGCF Gyeonggi Creation Center Art Project Competition (Gyeonggi, Korea)
	2018      Win a prize the encore invited artist of Venice Salon (Venice, Italia) Win a prize in New Hero of Public Art Competition (Seoul) The SFAC supports creative art activities. visual arts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COLLECTION
2022      Dialog of dot · line · face (GURI ARTS HALL : Guri) Unwritten stories of romantics and socialists I (Sanwoolim Art & Craft Gallery : Seoul) Silent Sonversation (148 Art Square : Yeongju)	Seoul Museum of Art, National Museum of Comtemporary Art Art Bank, Suwon iPark Museum of Art, Art Museum Ryeo, Osan cultural foundation, Venice Salon, Interlalia Art Company, Gallery La Mer, Gallery Daon, Munwha Ilbo Gallery, Sejul Gallery, 63 SKY ART Gallery
2021      The Danwon Art Festival (Danwon Art Museum : Ansan) Jeju Art Design Festa 2021	





〈Wilson〉 Installation View  
STS Gold Mirror, Honeycomb Paper, Electronic Device,  
Embedded System, Software  
2019





〈Wilson #2021.Hoban〉, Installation view (detail)  
STS Gold Mirror, Honeycomb Paper, Motor, azure Kinect, Custom  
Software, Sensor, PC, Electronics  
2021

## 〈Wilson 2021.Hoban〉에 관한 짧은 노트

이장원

일출시간에 맞추어 깨어나는 윌슨Wilson은 태양의 고도가 절정(남중,Culmination)에 다가가는 순간, 관객과 직접적 소통을 시도한다. 문득 다가오는 시연의 순간은 자연의 질서와 건강한 순환을 의미한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무렵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윌슨은 휴면에 들어간다. 태양의 리듬에 동기화되어 변화하는 윌슨을 통해 현대인에게 잊혀진 태양의 존재가 환기되고 가치가 회복되길 희망한다.

본작업은 작가의 작업실(H ART LAB)이 위치한 호반그룹 본사 로비에 설치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관례적인 작업실과는 거리가 먼 이 공간에 10개월여 출근하듯 생활하면서 느낀 감정과 아이디어를 작품에 담아보았다. 기존에 진행해온 〈윌슨〉 연작이 메타버스Metaverse공간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시도했다면, 〈Wilson #2021.Hoban〉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머나먼 우주 공간의 태양을 관객과 이어주는 구체적 행위를 시도한다.

## A short note for *Wilson 2021.Hoban*

Jangwon Lee

Wilson, who wakes up in time for sunrise, attempts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audience as the sun approaches its peak (Culmination). The moment of demonstration that comes suddenly means natural order and healthy circulation.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sun disappears over the horizon, Wilson goes into dormancy. Through Wilson, which changes in synchronization with the rhythm of the sun, it is hoped that the forgotten existence of the sun will be evoked by modern people and its value will be restored.

This work was produced to be installed in the lobby of Hoban group headquarters where the artist's studio (H ART LAB) is located. I put the emotions and ideas I felt while living in this space far from the conventional studio for 10 months as if I was going to work. Whereas the previous 〈Wilson〉 series attempted to meet the audience in the Metaverse space, 〈Wilson #2021.Hoban〉 exists in the 'here' and 'now' and attempts a concrete action to connect the sun in distant outer space with the audience.





〈개인주의자의극장〉, 이장원, 물들, 정세영 공동제작  
 용복할 디원예술 프로젝트, 제작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VR 3set, Kuka 6 Axis Robot, Custom Robot Hand, Projector, Sound System, PC  
 2020





## 낯선 경험을 통해 조우하는 인공지능의 실체 〈Monad X〉

이승아  
독립 큐레이터

오늘날 미디어에 의한 일련의 변혁은 새로운 현상 이기보다는 인류가 지나온 역사에서 여러 번 되풀이해 온 것들이다. 반면, 새로운 기술 미디어의 발견과 과학기술로 인한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다. 유형무형의 수많은 전자장치를 포함해 인공 산물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하루 하루를 경험하며 이런 인공물들이 점점 더 우리의 일상생활 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로봇 역시 미래의 삶에 등장하는 주요 인공물 중의 하나로 많은 논문에서 다루며 점점 더 인간의 옆에서 체계화 하려는 여러 학문적 시도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장원의 〈Monad X〉는 인간과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성장과 진화를 하는 사물의 움직임 자체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10축 관절을 갖고 있는 로봇 형태의 움직임은 사물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의 방법의 하나인 강화 학습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Monad X〉라는 이 로봇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과 신선한 상호작용을 제안한다.

전시공간은 어둡고 빨간 IR(적외선) 등이 켜져 있는데 이 등은 그동안 그가 지속적으로 작업해온 '태양'의 존재를 떠올리게 만들며 그 아래에 있는 물체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든다. 실버 컬러의 원통이 이어져 있는 형태의 인공물이 관객과 마주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은 기이하다. 그는 이 인공물

## The Re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countered through Unfamiliar Experiences 〈Monad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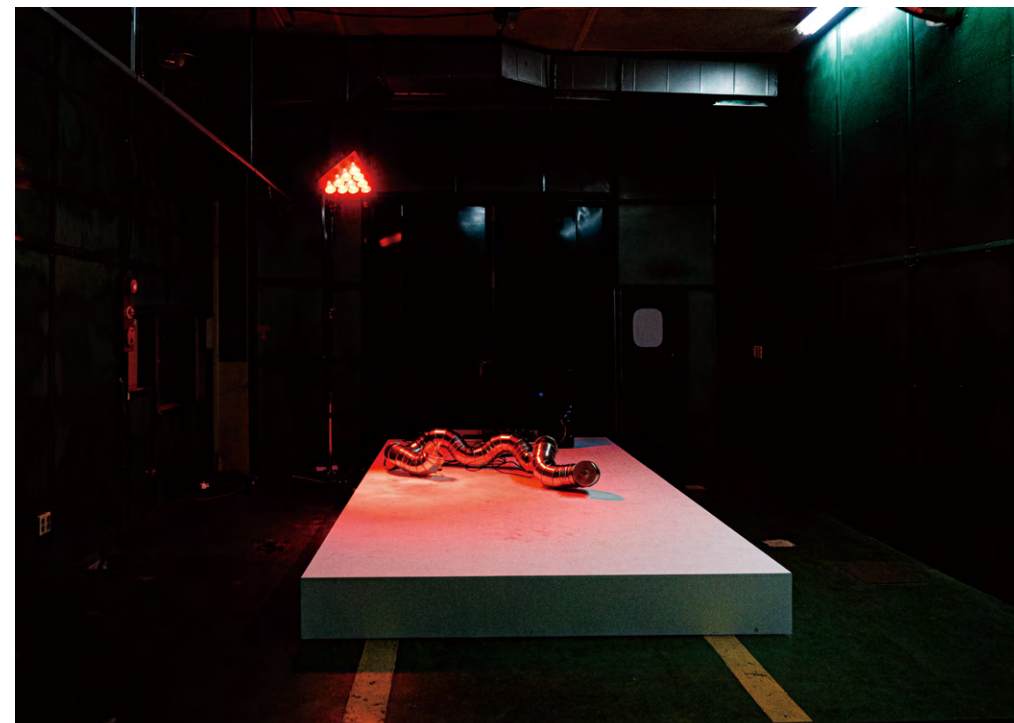
Seunga Lee  
Independent curator

The series of transformations by the media today are not new phenomena, but have been repeated many times in the history of mankin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the discovery of new technological media and science and technology is faster and stronger than ever. Every day we experience artificial products, including numerous tangible and intangible electronic devices, scattered around us, and these artifacts are increasingly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our daily life and at the same time affecting our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Robots are also one of the main artifacts that appear in the future life, and are covered in many papers, and various academic attempts to systematize them more and more next to humans are being discov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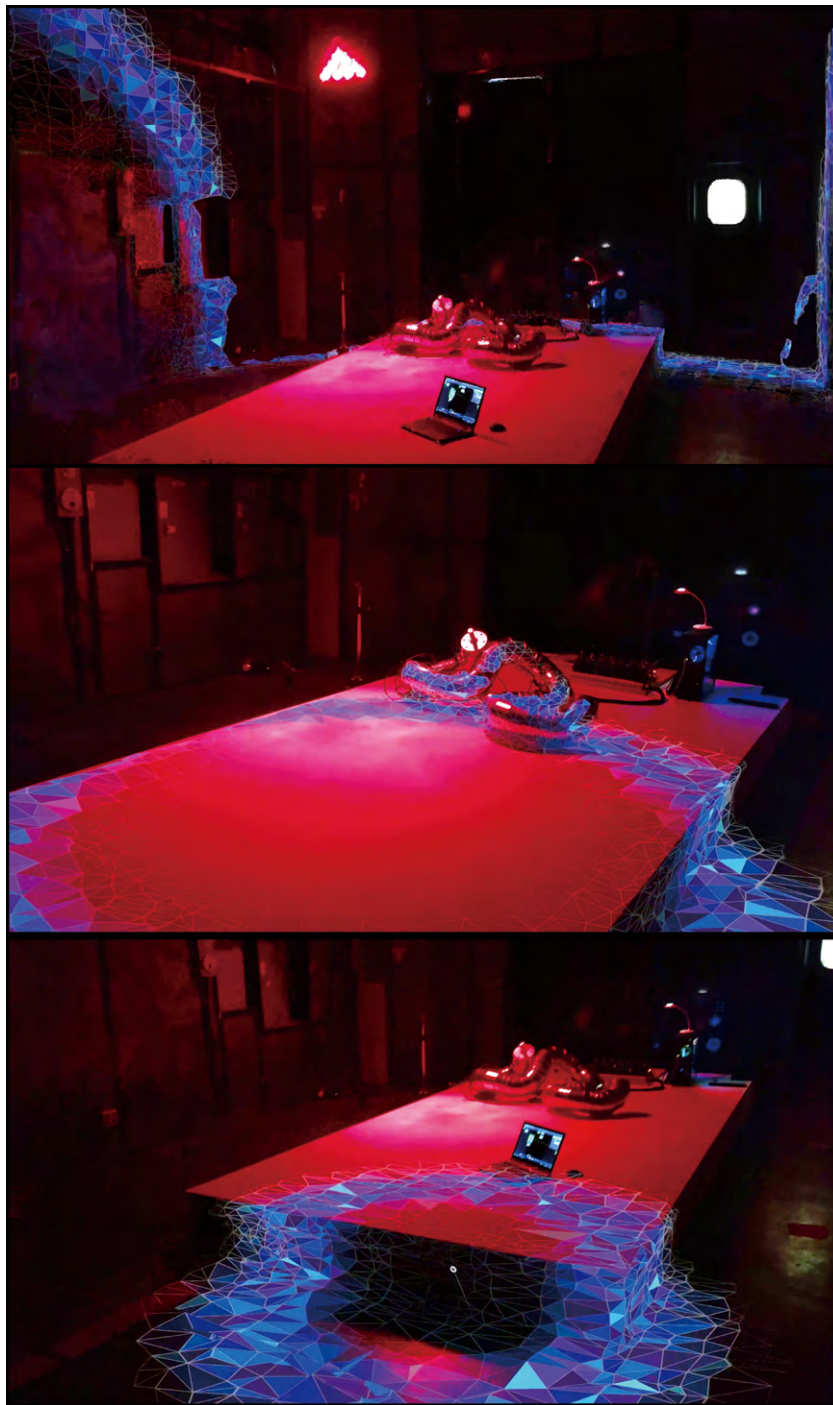
*Monad X* by Jangwon Lee is a work that physically embodies the movement of objects that grow and evolve on their own by recognizing humans and the environment. A robot-shaped moving object with 10-axis joints has a self-evolving mechanism through reinforcement learning, one of the machine learning metho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robot, *Monad X*, proposes a new possibility of experience and fresh interaction rather than serving as a new interface in the relationship with humans.

The exhibition space is dark and lit with red IR (infrared) lights, which reminds us of the existence of the 'sun', which he has

Monad X: phase I (installation view)  
3D Printing, harmonic geared motor, custom duct elbow, HoloLens 2, EEG Interface, PC  
Dimensions variable  
제작지원 : zerOne  
2021







Monad X: phase I (installation view)  
3D Printing, harmonic geared motor, custom duct elbow, HoloLens 2, EEG Interface, PC  
Dimensions Variable  
제작지원 : zeroOne  
2021

을 조각-로봇-생명체 사이의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름 또한 Monad에 X를 붙여서 다양한 의미의 수용이 가능해 보인다. 고대 서양 철학자들은 모나드를 하나의 존재로 지칭하거나 단일의 본질적 개념으로 설명했다. 생물학에서는 단세포, 근원의 생물을 일컫는 말이었으며 플라톤은 이 개념을 형이상학적으로 실재의 차원에서 '하나'의 의미로 언급했다. 더불어 이데아를 지칭하는 최소의 진리이자 궁극의 단위, 혹은 실제로 모나드를 설명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모나드의 탄생에는 몸이 없고 의식만 있다는 것이다. '모나드'에는 오늘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이 드러나며 이장원의 <Monad X> 역시 인공지능이라는 스스로 학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 예측을 넘어서는 우연성이 발견된다.

이 작품은 특히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주변의 가상환경, 특히 메타버스의 환경의 경험 이후, 그 이전보다 현실에 대한 재발견의 지점, 그로 인한 행위의 중요성에서 시작된 물리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시공간에서 들어선 관객들은 독특한 생명체처럼 보이는 사물이 바디(관절)를 여러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선 <Monad X>의 불편하고 불투명한 움직임에서 오는 '낯선' 경험과 마주하게 된다. 홀로렌즈를 끼고 보면 관객(존재)의 눈의 시선을 추적해서 <Monad X>가 움직이고 함께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관객은 <Monad X>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인터랙티브의 방식이 아닌 작가가 꾸준히 진행해왔던 태양과 자연의 속성, 그 자연 아래서 인간이 의지에 맞게 변형하고 바꿀 수 없는 속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더불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진화의 메커니즘 안에서 동시대 AI(인공지능)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담고 있다.

been continuously working on, and makes him focus more on the object underneath. It is strange to see an artifact in the form of a continuous silver colored cylinder moving slowly while facing the audience. He defines this artifact as something between sculpture-robot-life. The name also seems to be able to accept various meanings by adding an X to Monad. Ancient Western philosophers referred to the monad as a being or described it as a single essential concept. In biology, it refers to a single-celled, primordial organism, and Plato referred to this concept in the metaphysical sense of 'one' in terms of reality. In addition, he explained the monad as the minimum truth and ultimate unit or substance that refers to the idea.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in the birth of a monad there is no body, only consciousness. In 'Monad', aspects similar to today's 'artificial intelligencepro-grams' are revealed, and Lee's *Monad X* is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learns by itself and creates movements, so a contin-gency that goes beyond prediction is discovered.

In particular, this work focuses on the physical movement that started from the importance of the virtual environment around it - especially after the experience of the environment of the metaverse, which is changing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oint of rediscovery of reality more than before, and the importance of the action. The audience, entering the exhibition space, is confronted with the 'unfamiliar' experience that comes from the uncomfortable and opaque movement of *Monad X*, which goes beyond simple interaction as objects that look like unique creatures move their bodies (joints) around several axes. When wearing a HoloLens, *Monad X* moves and reacts by tracking the gaze of the audience (existence), so that the audience can know that *Monad X* is looking at them. This is not a universal interactive method, but metaphorically reveals the properties of the sun and nature that the artist has been steadily progress-ing, and the properties that humans can't change and transform according to their will under that nature. It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same time.



이장원	
<div>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div> <div>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div>	
<div>주요 개인전</div> <div> <div>2021</div> <div>start.up, H ART SPACE</div> </div> <div> <div>2014</div> <div>enlightenment project, 가나오케이</div> </div> <div> <div>2014</div> <div>an AU – 149597870, 영은미술관</div> </div> <div> <div>2013</div> <div>sun project, 아트스페이스 정미소</div> </div> <div> <div>2009</div> <div>principia, 토탈미술관</div> </div> <div> <div>2006</div> <div>sunTracer project - Helsinki, Harakka Island &amp; HIAP, Helsinki, Finland</div> </div> <div> <div>2005</div> <div>protocol, 스페이스셀</div> </div> <div> <div>2004</div> <div>encoding/decoding, 아트스페이스휴</div> </div>	
<div>주요 레지던시 및 전문 연구소</div> <div> <div>2021</div> <div>H ART LAB, 호반문화재단</div> </div> <div> <div>2019</div> <div>zer01ne lab, 현대자동차그룹</div> </div> <div> <div>2018</div> <div>zer01ne creator, 현대자동차그룹</div> </div> <div> <div>2013–16</div> <div>영은창작스튜디오, 영은미술관</div> </div> <div> <div>2010–12</div> <div>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연구원</div> </div> <div> <div>2008–09</div> <div>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div> </div> <div> <div>2006</div> <div>HIAP(Helsinki International AIR Programme), Helsinki</div> </div> <div> <div>2005–06</div> <div>고양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div> </div>	
<div>주요 그룹전</div> <div> <div>2021</div> <div>zer01ne Day 2021, 원효로 정비스,</div> </div> <div> <div>2021</div> <div>d-Revolution, 광주디자인비엔날레</div> </div> <div> <div>2021</div> <div>40x40x40, 김세중미술관</div> </div> <div> <div>2021</div> <div>내일의예술, 예술의전당</div> </div> <div> <div>2020</div> <div>우리와 당신들, 경기도미술관</div> </div> <div> <div>2020</div> <div>개인주의자의 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div> </div> <div> <div>2019</div> <div>파라다이스 아트랩 쇼케이스, 파라다이스시티</div> </div> <div> <div>2019</div> <div>Boderless in everything, 원효로 정비스</div> </div> <div> <div>2019</div> <div>Out of the Box, Ars Electronica Center, Austria, Linz</div> </div> <div> <div>2018</div> <div>Future Humanity,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div> </div> <div> <div>2018</div> <div>zer01ne Day, 원효로 정비스</div> </div> <div> <div>2018</div> <div>Kinetic Art Today, 김종영 미술관</div> </div> <div> <div>2017</div> <div>Science Art ; Carbon Free, 제주도립미술관</div> </div> <div> <div>2017</div> <div>인간 x 기계 x 시스템, 빛고를 시민문화회관</div> </div> <div> <div>2017</div> <div>Art of Things : Actor, 토탈미술관</div> </div> <div> <div>2017</div> <div>화학의 정원 – 경계에 피는 꽃, 한국화학연구원</div> </div> <div> <div>2017</div> <div>Let's Play, 63아트 미술관</div> </div>	
<div>작품 소장</div> <div>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신세계프라퍼티, 영은미술관, 63아트미술관</div>	

Jangwon Lee	
<div>Seoul National University, BFA in Sculpture, Korea</div> <div>Seoul National University, MFA in Sculpture, Korea</div>	
<div>SELECTED SOLO EXHIBITIONS</div> <div> <div>2021</div> <div>start.up. H ART SPACE,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4</div> <div>enlightenment project 2014, ganaOK,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4</div> <div>an AU – 149597870 km, Youngeun Museum, Korea</div> </div> <div> <div>2013</div> <div>sun project, Artspace Jungmiso, Seoul, Korea</div> </div> <div> <div>2009</div> <div>the Principia, Total Museum, Seoul, Korea</div> </div> <div> <div>2006</div> <div>sunTracer project - Helsinki, Harakka Island &amp; HIAP, Helsinki, Finland</div> </div> <div> <div>2005</div> <div>protocol, space Cell, Seoul, Korea</div> </div> <div> <div>2004</div> <div>encoding/decoding, art space HUE, Seoul, Korea</div> </div>	
<div>SELECTED RESIDENCY &amp; SPECIALIZED LABORATORY</div> <div> <div>2021</div> <div>H ART LAB, Artist,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9</div> <div>zer01ne LAB, Creator,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8</div> <div>zer01ne creator, Creator,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8</div> <div>KIAS, Art and Science Seminar,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3–16</div> <div>Youngeun Museum Residency Program, Artist, Gyeonggi, Korea</div> </div> <div> <div>2010–12</div> <div>Researcher, KIST, Interdisciplinary Fusion Technology Division, Researcher, Seoul, Korea</div> </div> <div> <div>2008–09</div> <div>SeMA NANJI RESIDENCY, Artist, Seoul, Korea</div> </div> <div> <div>2006</div> <div>HIAP (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e Programme), Artist, Helsinki, Finland</div> </div> <div> <div>2005–06</div> <div>MMCA Residency Goyang, Artist, Gyeonggi, Korea</div> </div>	
<div>SELECTED GROUP EXHIBITIONS</div> <div> <div>2021</div> <div>zer01ne Day 2021, Wonhyo-ro, Korea</div> </div> <div> <div>2021</div> <div>d-Revolution, Gwanju Design Biennale, Gwangju, Korea</div> </div> <div> <div>2021</div> <div>40x40x40, Kimsechoong Museum, Korea</div> </div> <div> <div>2021</div> <div>New media art special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Korea</div> </div> <div> <div>2020</div> <div>Us Against You,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Korea</div> </div> <div> <div>2020</div> <div>A Theater for an Individualis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9</div> <div>zer01ne Day,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9</div> <div>paradise art LAB showcase, Paradise Studio, Incheon, Korea</div> </div> <div> <div>2019</div> <div>Out of the Box, Ars Electronica Center, Linz, Austria</div> </div> <div> <div>2018</div> <div>Future Humanity, Hyundai Motor Studio,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8</div> <div>Kinetic Art Today, Kim Jong yung Museum, Seoul, Korea</div> </div> <div> <div>2017</div> <div>Science art : 2017 : Carbon Free, Jeju Museum of Art</div> </div>	
<div>COLLECTIONS</div> <div>National Museum of Mordern and contemporary Art, Shinsegae Property,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63 Art Museum ART Ban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R Museum of Contemporary of Busan, Busan, KR</div>	



# H ART LAB Creator

Art  
Critic

김보라

Bora Kim

조숙현

Sookhyun Cho

조재연

Jaeyeon Cho



# 나의 H ART LAB 이야기

김보라

H ART LAB 1기 입주이론가

"여기에서 글이 쓰입니까?"

오픈 스튜디오에 오셨던 어느 평론가분이 질문 하셨더라고요. 진정 궁금해서라기보다 글을 쓰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자신의 짐작을 확인하고자 던지는 물음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 "네, 그럼요"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희미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H ART LAB은 제게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H ART LAB 입주 이론가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H ART LAB에서 보내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스스로 질문에 보게 되네요. 이 공간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잠시나마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 12월 아트랩 공모에 지원하던 순간으로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어느 때처럼 성적처리 마감 업무로 분주한 연말을 보내던 중이었죠. 메일함에 도착한 모 미술 전문 매체의 뉴스레터를 확인하던 중 상단 배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H ART LAB 제1기 입주 작가를 공모한다는 문구 였습니다. H ART LAB이라는 명칭이 생소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어느 창작 공간 프로그램과 달리 이론가를 3명이나 뽑는다는 점이 신선했어요. '한번 지원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인해 피로감과 갑갑함이 있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였기에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운 좋게도 입주 이론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해 첫 출발이 좋아! 왠지 올 한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라며 기대감으로 충만했죠.

'STUDIO G'. 입주 작가들과 처음으로 만나고 홈페이지에 게재될 프로필을 촬영하던 2월의 어느 날, 제비뽑기로 배정받은 제 작업실입니다. 널찍한 책상과 의자,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책꽂이, 정사각형 티테이블, 예쁜 녹색과 청색 의자가 있는 방이었어요. 이곳에 작은 그림 몇 점, 몇 권의 책, 개운죽,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등 식물을 갖다 놓으면서 저의 H ART LAB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H ART LAB은 독특하게도 호반그룹 사옥 안에 위치한 창작공간이라서 사무 공간 일부를 공유하는 느낌이었어요. 신축 건축물인 만큼 로비부터 깔끔한 인상을 주는 쾌적한 공간이었죠.

2021년 한해 동안 H ART LAB에서 보낸 시간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교류와 만남이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1기 입주 작가로 총 10명이 함께 했었는데요. 물론 예기치 않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된 면도 있고 다들 각자의 활동에 바빠서 충분히 소통하진 못한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틈틈이 교류했던 소중한 시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H ART LAB의 분위기 메이커 구혜영 작가의 친화력, 반듯함과 상상력을 겸비한 김영남 작가, 나나 작가의 맑은 품성, 펠릭스 작가의 지적 통찰력, 박해수 작가의 꼼꼼함과 영민한 감각, 걸크러시 이여운 작가의 예술혼과 놀라운 인맥, 이장원 작가의 성실성과 진지함, 조숙현 기획자의 재기 발랄함과 유쾌한 웃음, 조재연 비평가의 매력적 글쓰기. 모두 제가 부러워하거나 배우고 싶은 점들이에요. 미술계라는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성 넘치는 H ART LAB 동기들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았답니다. 지원자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는 후일담을







전해 들었는데요. 일 년 동안 생활하면서 1기 작가 구성과 조합이 탁월했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8월과 11월에 진행된 초대 작가 김보희 선생님, 이강소 선생님 강연과 뒤이은 선후배 작가 간 대화의 시간도 무척 소중한데요. 역시나 레지던시 활동의 백미는 서로를 알고 함께 나누는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지요. 이처럼 H ART LAB이 네트워크의 장소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개인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돌이켜보면 예년에 비해 많은 결실이 있었던 한해였어요. 지난 20년 가까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왔기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강의와 연구인데요. 2021년에도 강의를 하면서 동시대 미술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고 번역서 출간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밖에도 박재영 작가 개인전 서문, 앨리스 달튼 브라운 회고전 서문, 게르하르트 리히터 전시와 줄리안 오피 전시 리뷰, 비대면 강의와 이강소 작가의 강연에 관한 짧은 에세이, 윤지영 작가론,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 《ART NODE》 기획 글, 나나와 펠릭스 포스코미술관 개인전 서문, 구영웅 작가론, 구혜영×김영남론 등을 썼답니다.

마지막으로 H ART LAB은 제게 침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나 소요되는 거리를 오가다 보니 월 10회 출석이라는 규칙이 부담스럽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동이 수월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으면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갖는 중요성을 절감했지요. 특히 이른 아침이나 주말 저녁에 스튜디오 유리문을 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치 진공 상태에 앉아있는 것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우주에 떠 있는 느낌이 이와 비슷할까요. 바쁜 일상 중에 잠시 끼어든 중간 휴식 혹은 명상 같은 시간이었지요. 몇 해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불멍', '물멍'처럼 'H ART LAB멍'이라고 저 혼자 이름 붙여보기도 했었답니다. 딱딱한 전공 서적 대신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는 독서의 공간이기도 했구요. 참, 주변 맛집을 찾는 소소한 재미와 양재천 산책도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화가 호크니와 평론가 게이퍼드의

대화를 엮은 책에서 '공간은 신(Space is God)'이라는 구절을 읽었던 어렵풋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이지 H ART LAB은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어요.

곳곳에 머물렀던 시선들, 함께 나눈 대화, 오가던 길에 들렀던 카페와 편의점 등, 일 년 동안 저도 모르게 사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여기저기 축적해 놓은 걸까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만큼 처음엔 낯설었던 공간과 사람 사이에 어느새 정이 쌓인 것 같아요. 이제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과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항상 그렇듯 우리 삶은 흘러 가겠지만, 어디서 또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될지 모를 일이지요. 1기 입주 작가 모두가 앞으로도 멋진 활동 이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리고 H ART LAB에서 얻은 좋은 에너지를 기억하면서 이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해요. 호반문화재단과 H ART LAB이 우리 문화예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벽).

이 글은 제1기 입주 이론가로서 보낸 지난 일 년을 회고하며 자유롭게 쓴 것이다. H ART LAB을 공급해하는 상상의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여 구어체로 서술하였다.



# My Story of H ART LAB

**Bora Kim**  
H ART LAB Critic

"Were you able to get some work done in this place?" A critic who came to the open studio asked a question. Rather than because he was genuinely curious, I felt that he was asking a question to confirm his guess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write. At that moment he said, I was not ready to answer. I just replied with a faint smile. If so, what kind of space would H ART LAB be to me? What did it mean to work as a theorist in H ART LAB Residency? At this point, with the last month remaining at H ART LAB, now I ask myself a question. To those of you who are even a little curious about this space, I would like to tell you my story. I think it is personally meaningful to look back on the past year, even for a moment.

I have to start here from the moment I applied for the Art Lab contest in December 2020. As usual, I was having a busy end of the year with deadlines for grading. While checking the newsletter of a certain art media that arrived in my mailbox, the top banner caught my eye. It was the phrase that the first artists in H ART LAB residency were invited. The name of H ART LAB was unfamiliar, but looking into the contents, it was refreshing to see that three theorists were selected unlike other creative studio programs. I thought, 'Should I apply?' I felt tired and cramped due to the sudden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I think I was even more drawn to it because I felt that something new was needed. I remember being very happy when I heard that I was lucky enough to be selected as a move-in theorist after going through the 1st document screening and 2nd interview screening. 'It's a good start to the new year! For some reason, I think I will be

able to spend this year well."

'STUDIO G'. This was my studio assigned by lot one day in February, when I first met the resident artists and was filming a profile to be published on the website. It was a room with a large desk and chairs, a bookshelf occupying one wall, a square tea table, and pretty green and blue chairs. My H ART LAB life began by placing a few small paintings, a few books, and plants such as Sander's dracaena, scindapsus, and monstera here. H ART LAB was uniquely located inside the Hoban group building, so it felt like sharing a part of the office space. As it was a new building, it was a pleasant space that gave a neat impression from the lobby.

I thought deeply about the meaning of the time I spent at H ART LAB in 2021. I think it can be said in three main ways. First of all, I wanted to say that it was a space for exchange and meeting. There were a total of 10 artists as the first resident artists. Of course, the COVID-19 situation had been unexpectedly prolonged, and it felt like we had not been able to communicate enough because everyone is busy with their respective activities, but I still remember the precious time we had with each other from time to time. H ART LAB's mood maker Hyeyoung Ku's friendliness, Youngnam Kim's politeness and creativity, Nana's clear personality, Felix's intellectual insight, Hyesoo Park's meticulousness and sagacity, Yeo Woon Lee's artistic spirit and amazing connections, Jangwon Lee's sincerity and devotion, the curator Sookhyun Cho's wit and jolly laughter, the Art Critic Jaeyeon Cho's charming writings..... These are all things I envied or wanted to learn. Although

we were in the same fence as the art world, I was stimulated by H ART LAB colleagues who are full of personality who are active in various genres and fields. I heard a later story that the competition was very high due to the large number of applicants. It was not the only time during my one year of living that I thought that the composition and combination of the first group was excellent. The lectures by the invited artists, Bohie Kim and Kangso Lee, held in August and November, and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senior and junior artists that followed were also very valuable. Again, I realized that the best part of the residency activities is the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share. Like this,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H ART LAB was a place for the network.

The second meaning can be found in the parts related to personal activities. Looking back, it was a year with many fruits compared to previous years. Lectures and research are my main occupations because I have invested the most time and energy for the past 20 years. While giving lectures in 2021, I published papers on contemporary art and entertainment in academic journals and prepared translations for publication. Other works include: Introduction to Jae Young Park's solo exhibition, Introduction to Alice Dalton Brown's retrospective exhibition, Gerhard Richter's exhibition review and Julian Opie's exhibition review, a short essay on non-face-to-face lectures and Kangso Lee's lectures, a criticism of Ji Young Yoon's art practice, a special article for the open studio program ART NODE, the introduction to Nana & Felix's POSCO Museum of Art solo exhibition, writings on Hyeyoung Ku × Youngnam Kim's art, and Young Woong Koo's painting.

Lastly, H ART LAB was a space like a comma for me. There was a time when the rule of attending 10 times a month was burdensome because I was traveling a distance that took 3 hours round trip. However, it is not easy to move around, but when I arrived at the studio and sat at my desk, I was able to experience a sense of peace and relaxation that I could not feel anywhere else. Each time,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alone time

and space. Especially in the early morning or weekend evening, when I close the studio glass door and sit quietly, I feel as if I am sitting in a vacuum. I thought the feeling of floating in space would be similar to this. It was like a break or meditation in the middle of a busy daily life. I even tried to name it 'H ART LAB-meong' by myself, like 'Bulmeong (staring into the campfire)' and 'Mulmeong (staring into the water)' that have been popular for a few years. It was also a space for reading novels and essays instead of hard major books. Indeed, it was a little fun to find nearby restaurants and a walk in Yangjaecheon Stream was a good thing that couldn't be missed. I vaguely remember reading the phrase 'Space is God' in a book that compiled the dialogue between David Hockney and Martin Gayford, and indeed, H ART LAB was a place that made me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space in many ways.

The gazes that stayed in various places, the conversations we had together, the cafes and convenience stores we stopped by on the way..... Have I been accumulating invisible energy here and there for a year without realizing it? As much as the time I spent here, I feel like a friendship has built up between people and places that were unfamiliar at first. Now that I think about leaving, I feel sad and empty. But where there is a meeting, there is also a parting. As always, our lives will pass, but we never know where we will meet each other again. I would like to end this short story with my sincere wishes for all of the first H ART LAB team to continue their wonderful activities in the future, and remembering the good energy I gained from H ART LAB. I hope that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and H ART LAB will become a strong support for our culture and arts. Thank you for listening. (nodded).

This article was written freely while looking back on the past year I spent as the first theorist in the residency. It was written in a colloquial form by telling a story to an imaginary reader who is curious about H ART LAB.



<div>김보라</div>	
<div> <div>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초빙교수</div> <div>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 강사</div> </div>	
<div> <div>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미술비평 졸업(미술학 박사)</div> <div>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졸업(문학 석사)</div> <div>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문학사)</div> </div>	
<div> <div>수상 및 선정</div> <div> <div>2021</div> <div>홍익대학교 우수교원 표창</div> </div> <div> <div>2019</div> <div>동덕여자대학교 우수교원 표창</div> </div> <div> <div>2017</div> <div>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 연구지원 선정</div> </div> <div> <div>2016</div> <div>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 연구지원 선정</div> </div> <div> <div>2008</div> <div>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전시기획지원 선정</div> </div> </div>	
<div> <div>저서 및 역서</div> <div> <div>2016</div> <div>『미술비평: 이론과 실천』(A&amp;C, 2016) *공저</div> </div> <div> <div>2016</div> <div>『아트폼스-사람이 만든 예술, 사람을 만드는 예술』(시그마프레스, 2016) *공역</div> </div> <div> <div>2015</div> <div>『미디어 비평용어 21』(미진사, 2015) *공역</div> </div> <div> <div>2013</div> <div>『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미진사, 2013) *공역</div> </div> <div> <div>2008</div> <div>『개념미술』(마로니에북스, 2008)</div> </div> <div> <div>2007</div> <div>『바실리 칸딘스키』(마로니에북스, 2007)</div> </div> </div>	
<div> <div>주요 논문</div> <div> <div>2020</div> <div>"세계극장: 아비 바르부르크의 문화이론에 나타난 퍼포먼스 패러다임", 『영상문화』 Vol.36, 한국영상문화학회</div> </div> <div> <div>2019</div> <div>"디지털 미디어 시대 회화의 확장에 대한 고찰-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lt;스트립&gt; 연작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20, No.3, 한국기초조형학회</div> </div> <div> <div>2018</div> <div>"아비 바르부르크와 그리자이유 이미지: 그 함의와 현재성에 대한 고찰", 『미학예술학연구』 제55집, 한국미학예술학회</div> </div> </div>	
<div> <div>기타 주요 저술</div> <div> <div>2019</div> <div>"빛이 시작된 곳에서 생태적 삶을 사유하다", 《2019KRAFTWERK: 호모 심비우스》 기획전시 서문</div> </div> <div> <div>2016</div> <div>"그리움을 담아-이중섭의 &lt;바닷가의 아이들&gt;, 『art now』</div> </div> <div> <div>2015</div> <div>"김환기의 &lt;여름 달밤&gt;", 『art now』</div> </div> <div> <div>2013</div> <div>"최우람의 근작에 나타난 순환과 확장 구조", 웹진 『미술과담론』</div> </div> <div> <div>2012</div> <div>"때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슬픔-이수경의 설치작업", 월간 『한마음』</div> </div> <div> <div>2011</div> <div>"경계인 선무의 전시", 선무 특별전 《세상에 부럼 없으라》 리뷰, 『미술세계』</div> </div> <div> <div>2008</div> <div>"그림과 말이 빚어내는 풍경", 기획전시 《입장들》 서문</div> </div> <div> <div>2007</div> <div>"무규정의 작가, 정연두", 웹진 『컬처뉴스』</div> </div> <div> <div>2006</div> <div>최선아 개인전 《긴 것 짧은 것》 리뷰, 웹진 『앨리스온』</div> </div> <div> <div>2006</div> <div>노석미 개인전 《Unfussy Life》 리뷰, 『아트인컬처』</div> </div> </div>	

<div>Bora Kim</div>	
<div> <div>Visiting Professor, Dept. of Painting, Hongik University</div> <div>Lecturer, Dept. of Curator, Dongduk Womens University</div> </div>	
<div> <div>Ph.D. Hongik University (Art Criticism)</div> <div>M.A. Hongik University (Art Studies)</div> <div>B.A. Yonsei University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	
<div> <div>AWARDS AND GRANTS</div> <div> <div>2021</div> <div>Best Teacher Award, Hongik University</div> </div> <div> <div>2019</div> <div>Best Teacher Award, Dongduk Womens University</div> </div> <div> <div>2017</div> <div>Next-Generation Researcher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div> </div> <div> <div>2016</div> <div>Next-Generation Researcher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div> </div> <div> <div>2008</div> <div>Arts Grants, Arts Council Korea</div> </div> </div>	
<div> <div>BOOKS</div> <div> <div> <div>Art Criticism: Theory and Practice</div> <div>(Seoul: A&amp;C, 2016)</div> <div>*co-author</div> </div> <div> <div>Artforms</div> <div>(Seoul: Sigmapress, 2016)</div> <div>*co-translator</div> </div> <div> <div>Critical Terms for Media Studies</div> <div>(Seoul: Mijinsa, 2015)</div> <div>*co-translator</div> </div> <div> <div>The Art of Art History: A Critical Anthology</div> <div>(Seoul: Mijinsa, 2013)</div> <div>*co-translator</div> </div> <div> <div>Conceptual Art</div> <div>(Seoul: Maroniebooks, 2008)</div> <div>*translator</div> </div> <div> <div>Wassily Kandinsky</div> <div>(Seoul: Maroniebooks, 2007)</div> <div>*translator</div> </div> </div> </div>	
<div> <div>SELECTED ARTICLES &amp; ESSAYS</div> <div> <div>2020</div> <div>"Theatrum Mundi: The Performance Paradigm of Aby Warburg's Culture Theory," <i>Journal of Visual Culture</i>, Vol.36, Korean Association for Visual Culture</div> </div> <div> <div>2019</div> <div>"A Study on the Expansion of Painting in the Digital Media Era –focused on Gerhard Richter's Strip Series," <i>Journal of Basic Design &amp; Art</i>, Vol.20, No.3,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amp; Art</div> </div> <div> <div>2018</div> <div>"Aby Warburg and Grisail Image: A Study on Its Implication and Nowness," <i>The Journal of Aesthetics &amp; Science of Art</i>, No.55, The Korean Society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div> </div> <div> <div>2019</div> <div>"Thinking about Ecological Life Where the Electric Light Began," Preface for the Exhibition <i>KRAFTWERK 2019: Homo Symbious</i></div> </div> <div> <div>2016</div> <div>"With Longing: Joongseup Lee's Kids at the Seashore," <i>art now</i></div> </div> <div> <div>2012</div> <div>"Sometimes Dazzlingly Beautiful Sadness: Sookyung Lee's Installation," <i>Hanmaeum</i></div> </div> <div> <div>2011</div> <div>"The Marginal Man, Mu Sun's Show," Special Exhibition <i>There is Nothing to Be Envious of, Misulsegye</i></div> </div> <div> <div>2007</div> <div>"Yeondoo Jung, The Artist Who Can't Be Determined," Webzine <i>Culture News</i></div> </div> <div> <div>2006</div> <div>"Sunah Choi's Solo Show Long and Short," Webzine <i>ALICEON</i></div> </div> <div> <div>2006</div> <div>"Seokmee Noh's Solo Show Unfussy Life," <i>Art in Culture</i></div> </div> </div>	



# 호반에서의 1년

조숙현

H ART LAB 1기 입주이론가

＊

호반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 스튜디오 H ART LAB 1기에 선발되어 이론가로 입주하게 되었다. 금천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이론가나 큐레이터로 입주한 경험이 있지만 건물 사옥에서 창작 스튜디오 입주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터뷰할 때 충고가 너무 높아서 인상적이었다. 충고가 높을수록 사람의 창의력이 자극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보통 레지던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강남 기업 사옥에 창작 스튜디오를 한다는 발상이 놀라웠다. 장점은 집에서 가깝고, 건물과 공간이 깨끗하고 예쁘다는 것이다. 마침 아트북프레스 출판사 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고민하던 시점이었는데 1인 사무실로 쓰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공간은 없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단점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강남순환로, 양재 IC, 과천 IC, 중앙로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위치상 일단 길이 막히면 무한정 밀린다. 오리엔테이션에도 20분을 지각했더니 제비뽑기에 밀려서 가장 바깥쪽 방을 배정받았다.

＊

작년 겨울부터 빙빙돌던 이진주 아트북이 끝을 보이고 있다. 파주 인쇄소에서 작가님과 함께 감리를 마치고 보도자료와 텀블벅 페이지를 정리했다. 아름다운 이진주 작가님의 작업이 이제 책으로 출간되어 세상과 만나게 된다!

＊

H ART LAB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었다. 이 날 입주 작가님과 이론가들과 처음 만났는데 낯을 가리는 나로서는 좀 서먹했다. 아는 얼굴도 있었지만... 뭔가 아는 체 하기도 멧쩍은 분위기였다.

이 건물은 뭔가 사람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다. 프로필 사진은 포토샵을 과도하게 해서 피부가 라텍스처럼 보인다. 사진작가는 이 얼굴이 더 보기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침 올해 마흔 살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나이를 일만 남았고, 주름이나 흰머리 등은 쿨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한국인은 노화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창작 스튜디오가 있는 4층에는 다른 공유 오피스 입주자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레지던시 앞 복도가 우주선의 정거장처럼 중간 통로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타 업체 직원들이 사적인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린다는 점이다. 건물자체가 소리가 울리는데다가 본의 아니게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는데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큐레이터에게 부탁해서 '이곳에서 대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구도 써붙였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좀 더 눈에 잘 띄고자 아이폰 전화금지 그림을 급조해서 써붙였다.

＊

사무실에 책과 커피머신, 소소한 컬렉션 몇 점, 랩탑, 컵과 그릇 등 작은 집기들을 가져다 놓고 나니 뭔가 그럴싸해졌다. 신이 나서 친구들도 초대하고 웬만한 미팅도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이진주 작가님 아트북을 편집하면서 편집비 대용으로 작가님을 졸라서 그림을 한 점 받았다. 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새 그림인데, 제목이 무려 <자기만의 방 On my own's room>이다. 사무실 맨 꼭대기에 걸어두고 나를 지켜보게 하였다. 버지니아 울프 글의 힘은 통찰력인 것 같다. 무언가를 창작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은 꼭 필요하다.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옳은 명제인가?

※ 조새미 박사와 작년 가을부터 진행했던 책 『뮤지엄 게이트』가 출간되었고,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전이라면 출판기념회 겸 작은 파티라도 열어드렸을텐데 (사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좀 강의로 대체되었다. 출판사를 연지 만 2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 출판사를 열었을 때는 스스로도 불안했고, 주변의 응원보다는 만류와 조소, 비아냥, '두고보자' 식의 시선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책이 출간되면 소소한 지지를 보내주는 지인들과 아직도 책에서 지식과 감동을 얻으려는 독자층 덕분에 아직까지는 재미 있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고 싶은 책이 무궁무진하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번다거나 문화계를 제패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이 있다. 책을 쓰는 저자, 북 디자이너, 편집자, 인쇄소, 독자 등 누구도 완전히 악한 마음이나 이기적인 계산으로만 책을 접하지는 않는다. 2만 원짜리 책으로 바쁜 저녁 시간 2시간을 쪼개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이 넉넉한채로 집으로 돌아간다. 21세기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럭셔리한' 삶이 있을까?

※ 밤늦게 편집 작업을 하다가 잘 안 풀려서 와인을 한 병 땀다.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는 밤을 마감으로 지새워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편집하거나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 저자가 쓴 글이 무한 수정과 교정 확인 과정을 거쳐 인쇄소에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죽어라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보며 확인 또 확인을 거친다. '편집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다. 밤중에 텍스트를 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특히 시, 그리고 영시 등을 한 글자 한 글자 곱씹다 보면 머릿속의 잡생각이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시각예술 기획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건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이메일, 카톡, 문자, 홈페이지, 책, 잡지 등 모든 활자는 깨물고 싶을 만큼 예쁘고 절대 안 질린다.

바쿠스의 도움으로 한 챗터 편집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은 뒤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팽팽한 얼굴에 커트머리 20대는 온데 간데 없고 술과 피로에 절은 웬 나이드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나이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던 결심이 한 순간에 무너져내렸다.)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 네덜란드 대사관의 제안으로 아트북전시 《번덕스러운 부피와 두께 Versatile Volumes》한국 협력 큐레이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매년 Best Dutch Book Designs 33권을 뽑는데 2019년 선발된 책 33권과 더불어 아트북프레스에서 선별한 국내 작가의 책 17권을 함께 전시하는 행사였다. 아트북 '전시'에 걸맞춰 네덜란드의 유명 디자이너 TT가 가구를 제작했고, 한국의 아트북은 로와정 작가님들이 책 한 권 한 권에 걸맞는 책꽂이를 디자인 해주었다. 로와정 작가님과 협업하는 일은 '프로와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네덜란드에서 선발된 책이 너무 아름답다... 특히 현재 북유럽 그래픽 디자이너의 '살아 있는 전설' 이루마 붐이 디자인한 램бран트 책은 출판 편집자로서 충격에 가까운 자극을 주었다.

※ HART LAB 초대 작가 김보희 작가님의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진행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 허찬미 작가님의 『창작을 위한 변명 Excuse for Creation』 주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 이 책은 주문이 들어오면 아트북 공방에서 책을 한 권 한 권 손으로 싸는 핸드메이드 바인딩 공정을 거친다. 처음 이 책을 기획했을 때는 무모할 정도로 대범했다. 작가의 작업 (이불천에 그린 그림)을 더미북에 한 권 한 권 바인딩해서 그야말로 작가의 작품이 책의 표지가 되는 책을 기획했는데, 모두가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또 어찌어찌 책을 만들게 되었다. 좋은 아트북 선생님, 인쇄소, 그리고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허찬미 작가님이



이 책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번이나 걸음 하면서 둘이 종일 일만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나름대로 재미있었는데.

※ 금천구립도서관 사서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아트북프레스에서 출간한 책의 저자와 역자들과 함께 릴레이 강의(줌)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책도 구매해 주셨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출판사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재미있고 신난다!

※ 호반 그룹 사옥이 위치한 동은 정확히는 서초구 우면동이다.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남키드인 나에게도 생소한 곳으로, 어렸을 때는 '강남의 강북'으로 불리었던 곳으로 기억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울의 모든 동네 구석구석이 재개발되고 이곳까지 대기업 신사옥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가을 밤 유난히 울창한 풀벌레 울음소리가 이전의 흔적을 대변한다. 창작 스튜디오가 1달에 10번 출석을 해야 하는데 가끔 일수가 모자랄 때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와서 12시를 넘기고 출석 체크를 하는 편법을 썼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저녁에 풀벌레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늦게까지 버티고 있다. 개인적으로 HART LAB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가을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왔을 때 부는 가을 바람과 풀벌레 소리이다. 중고마켓에서 새로 산 빈티지 청자켓을 입고 풀벌레 소리를 한참 듣다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마침 클래식 fm 라디오에서 황덕호 선배의 jazz 수첩이 나오고 선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덕호 선배, 요즘은 잘 지내시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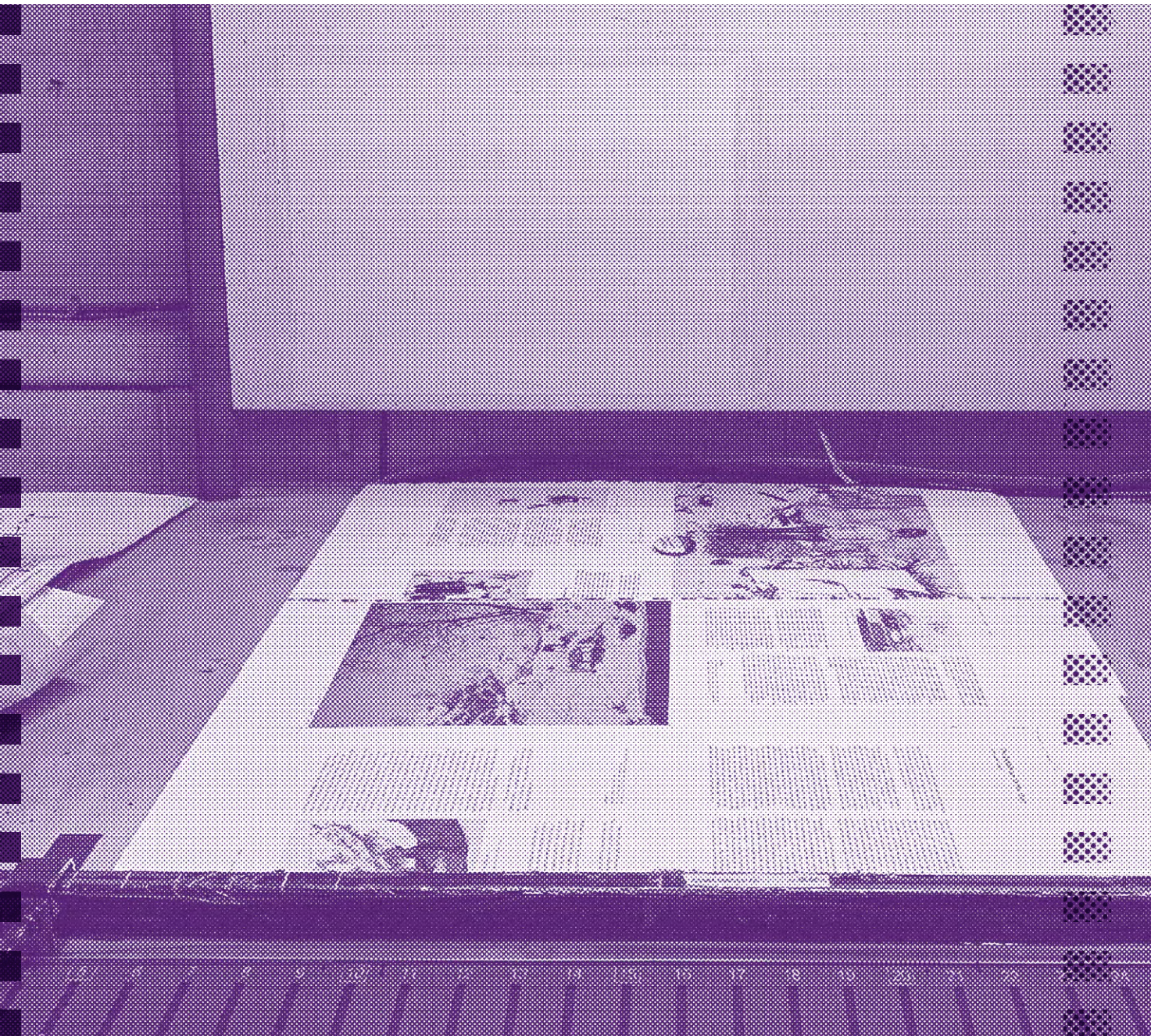
※ 코로나여도 가을 외부 문화 행사는 꿈임이 없다. 광주로, 제주로, 태백으로, 인천으로 계속 '비평가 매칭' 이니 '외부 큐레이터' '특강 강사' 등으로 불러 다닌다. 바쁜 것도 감사한데 무엇보다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설렌다. 이런 시국에도 작가를 하겠다고 아등바등대는 젊은 작가들 만나면 늘 좋은 기운을 받고 온다.

※ HART LAB 오픈스튜디오가 진행되었다. 나는 이론가로서 나나앤 펠릭스와 이장원 작가의 평론을 맡았다.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아트애펀크 프로그램 '제로원'의 멘토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아트애펀크(예전에는 '과학기술 융복합 예술'로 불리던 용어가 업데이트 되었다) 예술에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이장원 작가님의 작업을 더 알고 싶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뭔가 마음 속에서 송고한 감정이 생겼다. 태양을 모티브로 심오하고 아름다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나앤펠릭스는 창작 스튜디오 바로 앞 방인데 나에게 정신적으로 위안을 많이 주는 좋은 사람들이자 예술가이다. 오픈 스튜디오때 열렸던 전시도 아주 좋았다.

※ 12월 10일, 아트북프레스가 창간 3주년을 맞은 날이다! 요즘 핫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창간기념회를 기획하고 특수 케이크를 주문 제작했다. 그동안 출간된 네 권의 책을 케이크 안에 넣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다.

※ 어느덧 창작 스튜디오 퇴소를 앞두고 있다. 예쁘고 자랑스러웠던 애인을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 들어올 때 '독립 큐레이터도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곳에서 강의와 평론 등을 하고 싶다. 책도 한 권 쓰고 싶다' 라고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다른 건 얼추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까지 세 번째 책을 못 쓰고 있다... 내년에는 다른 어딘가에서 꼭 그 책을 써야할텐데.





# 1 year in HOBAN

**Sookhyun Cho**  
H ART LAB Critic

\*

I was selected as a theorist in the first phase of H ART LAB, an art residency run by Hoban group. He has experience moving in as a curator or a theorist at the Geumcheon Art Factory and Incheon Art Platform, but this is the first time doing a residency in the office building. During the interview, the floor height was so high that I was impressed. I have read that the higher the floor, the more creativity is stimulated. Residency is usually located in a place where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live, but the idea of residing in the corporate office building in Gangnam was surprising. The advantage is that it is close to the house, and the building and space are clean and pretty. It was at the time I was thinking about the opening of the office of the Art Book Press publishing house, but I am grateful that there is no more suitable space to use as a single-person office. The downside is that transportation is inconvenient. Because Gangnam Circulation Road, Yangjae IC, Gwacheon IC, and Jungang-ro interlock at once, once the road is blocked, it is pushed back indefinitely. I was also 20 minutes late for the orientation, so I was pushed by a lottery and was assigned the outermost room.

\*

Jin Ju Lee's art book, which has been struggling since last winter, is coming to an end. After supervising with the writer at the Paju printing house, I organized the press release and Tumblr page. The work of the beautiful artist Jin Ju Lee is now published as a book and meets the world!

\*

H ART LAB took a profile picture. It was the first time I met the resident writers and

theorists on this day, and it was a bit awkward for me as a shy person. There were some familiar faces, but there was an atmosphere that even pretended to know something. There is something about this building that makes people withdrawn. The profile picture is over-photoshopped so that the skin looks like latex. The photographer may have thought this face looked better, but I accept my face as it is. I just turned 40 this year, and there are only a few things left to do in the future, and I want to accept wrinkles and gray hair in a cool way. It seems that Koreans tend to be too sensitive about aging.

\*

On the 4th floor where the residency is located, other shared office tenants are also working together.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hallway in front of the residency is connected to an intermediate passage like a spaceship station, and every time employees from other companies make private calls, they can hear the story intact. The building itself reverberates and you unintentionally overhear the conversation, which is not an embarrassment. I asked the curator to write the phrase 'Please don't call me here', but to no avail. To make it stand out a little more, I improvised and pasted the iPhone phone ban picture.

\*

After bringing books, a coffee machine, a few small collections, a laptop, and small household items such as cups and bowls to the office, something became more plausible. I was so excited, I invited my friends and held any meeting in the office. While editing artist Jin Ju Lee's art book, I got a painting by beating the artist in exchange for the editing fee. It's a new painting I've wanted to have



for a long time, and it's titled <On my own's room>. I hung it at the top of the office and made him watch me. The power of Virginia Woolf's writing seems to be insight. In order to create something, 'my own room' is absolutely necessary. How simple and clear is the proposition?

\*

The book Museum Gate, which I have been working on since last fall with Dr. Sae Mi Cho, was published, and a "conversation with the author" was held. Before Corona, we would have held a publication celebration and a small party (actually, I like it the most), but due to Corona, it was replaced by Zoom lectures. It has been a little over two years since I opened the publishing house. When I first opened the publishing house, I was anxious myself, and rather than cheering from the people around me, the views of dissatisfaction, ridicule, sarcasm, and 'let's leave it alone' were overwhelming. However, thanks to the acquaintances who always give small support when a book is published, and the readership who still wants to get knowledge and impressions from the book, it has been fun so far. And there are endless books I want to publish in the future! It will be difficult to make a lot of money while running a publishing company or to dominate the cultural world, but there is always a great joy in meeting good people. No one who writes a book, a book designer, an editor, a print shop, or a reader, comes into contact with a book solely with a completely evil heart or selfish calculation. With a book worth 20,000 won, we split our busy evening into two hours, talk about books, and go home with a full heart. In the 21st century, living in Korean society, can there be a life as "luxury" as this?

\*

I was editing late at night and it didn't work out, so I got a bottle of wine. From the late 20's until now, I've been spending countless nights as a deadline. More people than you think are unaware of the process of editing or creating a book. The author's writing goes through infinite revision and proofreading process before being sent to the printing house. In the process, it goes through confirmation and confirmation by looking at

the text and images telling them to die. The term "paranoia" is not for nothing. It sounds very painful, but it is not. Reading tex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puts my mind at ease. In particular, if you meditate on poems and English poems letter by letter, all the thoughts in your head disappear. And as a visual art designer, I think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is text. Emails, KakaoTalk, text messages, homepages, books, magazines, etc. All letter are so pretty that you want to bite them and never get tired of them. After editing a chapter with the help of Bacchus, I went to the bathroom to wash my hands, and then looked in the mirror and was startled. A woman in her twenties with a taut face and short hair is coming, but there is no one around and there is an old woman standing in front of her with alcohol and fatigue!

\*

At the suggestion of the Dutch Embassy, I participated in the art book exhibition Versatile Volumes as a co-curator in Korea. The Netherlands selects 33 Best Dutch Book Designs every year, and it was an event to exhibit the 33 books selected in 2019 along with 17 books by Korean authors selected by Art Book Press. In line with the art book "exhibition", the famous Dutch designer TT produced furniture, and for the Korean art book, Artist RohwaJeong designed bookshelves that fit each book. Working with RohwaJeong makes me feel "the joy of working with a professional". The book selected in the Netherlands is so beautiful... The book selected from the Netherlands is so beautiful... In particular, the Rembrandt book designed by Iroma Boom, who is now called the "living legend" of a Nordic graphic designer, gave a shocking stimulus as a publishing editor.

\*

I started a conversation with the artist of H ART LAB, artist Bohee Kim, who resides in the elderly. She made up her mind that she would never do anything like hosting a public meeting again.

\*

I suddenly receive a lot of orders for Excuse for Creation by Chan Mi Heo. When an



order comes in, this book goes through a handmade binding process that wraps each book by hand in an art book workshop. When I first planned this book, it was recklessly bold. By binding the artist's work (pictures drawn on blankets) to a dummy book one by one, I planned a book in which the author's work is the cover of the book. It was possible through collaboration with good art book teachers, printing houses, and artists. As writer Chan Mi Heo walked from Busan to Seoul several times for this book, the memories of the two working all day come to mind. It was fun in its own way.

\*

The librarian at Geumcheon-gu Public Library gave me a good suggestion. It was to conduct a relay lecture (zoom) with the authors and translators of books published by Art Book Press. Besides, he bought me a book. Whenever something like this happens, I feel like the publisher did a good job. So much fun and exciting!

\*

Hoban Construction is located in Umyeon-dong, Seocho-gu. As a Gangnam kid who was born and raised in Gangnam, this place is unfamiliar to me, and I remember it as a place called "Gangbuk of Gangnam" when I was young. As the years passed, every nook and cranny of Seoul was redeveloped, and new corporate headquarters were created even here. However, the exceptionally thick sounds of grass insects on an autumn night represent the traces of the past. Residency requires attendance 10 times a month, but sometimes, when the number of days is insufficient, I used a shortcut to come near midnight and check attendance past 12 o'clock. However, in the fall, they stay up late to hear the grasshoppers in the evening. Personally, the most beautiful experience in H ART LAB is the autumn wind and the sound of grasshoppers when I come out after working late at night in the fall. I put on a new vintage blue jacket I bought at the second-hand market and listened to the sound of insects for a long time before starting the car. Just in time, on the classic FM radio, Deok Ho Hwang's jazz notebook came out and I heard the senior's welcoming voice. Deok Ho

loves to drink and I wonder how he is doing these days.

\*

Even in COVID-19, the cultural events outside the fall are non-stop. Gwangju-ro, Jeju-ro, Taebaek-ro, and Incheon continue to be called "critic matching", "external curator", "special lecturer", etc. I am grateful to be busy, but above all, meeting new writers is always exciting. Even in times like these, I always receive good energy when I meet young writers who say they want to become writers.

\*

H ART LAB open studio was held. As a theorist, I have been the critic of Nana & Felix and writer Jangwon Lee. This year, while working as a mentor curator for 'Zero One', an art and tech program run by Hyundai Motor Company, I became interested in art and tech (the term "scientific and technology convergence art" was updated in the past). I wanted to know more about the work. During the interview, a sublime feeling arose in my heart. A profound and beautiful work was in progress with the motif of the sun. Nana & Felix is a room right in front of the residency and they are good people and artists who give me a lot of mental comfort. The exhibition held during the open studio was also very good.

\*

December 10th is the 3rd anniversary of Art Book Press! Using the popular "Metaverse" these days, we planned an online launch commemorative event and made a special cake to order. I put the four published books in the cake. I am deeply grateful to everyone who has helped me so far.

\*

I am about to leave the residency. It leaves a feeling of regret like letting go of a beautiful and proud lover. When I first came in, I said, 'Independent curators, like artists, need their own space, and I want to give lectures and critiques here. I suddenly remember saying, 'I want to write a book too'. Other than that, I lived a very hard life, but I haven't written a third book yet... I'll have to write it somewhere else next year.



2014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졸업  
영상 커뮤니케이션 학과 석사  
(논문: 한국 커뮤니티 아트의 예술성/공공성 연구)

주요 전시기획	레지던시
2021 KF(한국국제교류재단) 갤러리, 한국 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 <번덕스러운 부피와 두께> 협력 큐레이터	2021 호반문화재단 H ART LAB 입주 이론가
2020 해외문화홍보원, 온라인 콘텐츠 기획 Cooking Korean Art 디렉터	2020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큐레이터
2018 강원문화재단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일대, 강원국제비엔날레	2019 금천예술공장 입주 이론가
2018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큐레이터	

출판
2016 서울 인디 예술공간
2015 내 인생에 한 번, 예술가로 살아보기

강의
이화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평생학습원, 홍대 KT&G 상상마당 아카데미, 금천구립도서관, 아트스페이스 휴 등에서 강의 및 특강

2014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ersity, Seoul  
MA in Visual Communication

CURATING	RESIDENCY
2021 <i>Versatile Volumes</i> 60th anniversary of Korea- Netherlands diplomatic relations, KF gallery	2021 Hoban Cultural Foundation H ART LAB
2020 <i>Cooking Korean Art</i> On-line Contents project director,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2020 Incheon Art Platform
2018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i>The Dictionary of Evil</i>	2019 Gemchon Art Fatcory

PUBLICATION
2019 <i>Two Way Art</i> Naver "art and performance" serial article
2016 Indie Art Spaces in Seoul
2015 Art Residencies in Europe

LECTURE
Lecturer at Ewha Women's University, Gacheon University, Dongkuk University, Gyewon Art University etc.



# 그다음 누구도 비웃지 않게 된다

## 정희영: 짐승에 이르기를

조재연  
HART LAB 1기 입주이론가

### 경고문

이 이야기에서 어떤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기소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추방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플롯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총살당할 것이다.

— 지은이의 명령에 따라, 군사령관 G.G.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핀의 모험』

### 1

모두가 약하다고 외칠 수는 없을까, 각자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투사처럼 굽히지 않는 의지로 세상을 변혁하는 이야기를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세계를 몇 개의 명제로 단호하게 진단하고, 적을 규탄하는 위대한 일은 내게 할당되지 못한다. 내 생김새는 오랫동안 비겁하고 비천하다. 광장의 절정 위에서 나는 늘 비껴서 있었다. 누군가 밀치기도 전에 인도에 먼저 올랐던 그리고 매쓰거운 분무를 몇 분 버티지도 않던 나는 쫓겨난 어느 쪽에 입을 맞추어야 할지 몰랐을 때부터 내 자격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내 몸도 타인의 물건도 숨기는 데 익숙한 내 앞은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그래서 무언가 쓸 때마다 나는 늘 에둘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우회에도 애써 걷는 까닭은 비겁은 차치하더라도 비천으로 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단 절박함에서였다. 고귀하고 완고함이란 조금도 없는 천함과 미약에서 길어낼 답이 어딘가엔 존재한다는 것. 외려 강함을 서로 앞다투어 외치는 이들이 초래한 세상에서 오직 미력으로써 발견할 가치가 있다는 것. 이 명예 같은 희망을 뿌리칠 길은 없었다. 그러니 비겁함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너라도 이 경계를 넘어가주었으면.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승리가 나온다. 그들은

놓지도 울지도 않는다. 그러나 《짐승에 이르기를》(이하 《짐승전》)은 조그만 발치에도 눕고, 어느 누구보다 먼저 우는 이들로 꾸러진다. 수평의 쪽수와 수직의 문단도 없이 그저 짓음으로써, 울음은 처음으로 가해자가 된다. 고귀한 자가 가치에 닿는 일은 그의 고귀함을 재귀로 증명할 뿐이지만, 비천한 자가 가치에 닿는 일이란 그간 알려져 있지 않던 가치의 평등한 새 얼굴을 밝힌다. 그다음 누구도 저열함을 비웃지 않게 된다. 민주주의의 프로그램은 양쪽에서 실행된다. 고귀한 자를 비천한 위치로 폐위하는 것과, 비천한 자를 고귀한 자리로 격상하는 것. 급진, 변혁과 거리를 두게 된 민주주의가 진리를 담지한 폭력이 될 수 있었던 연유는 전자에 있다. 보편, 전체라는 개념을 훈계하거나 사리게 된 민주주의가 어느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강제할 수 있었던 까닭은 후자에 있다. 이 둘은, 모두가 고귀한 자리에 올랐다고 믿기에, 찬탈專制의 주체를 마다한 인간의 조건 아래선 과거형으로 쓰인다. 그러나 《짐승전》에선 여직 비천한 자가 그 찬탈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제 짐승은 사납게도, 폭력적인 변혁과 보편 그리고 진리라는 낱말을 다시 거머쥔다.

### 2

그와 만나기 위해서 당신은 발설하는 마음을 억눌러 말을 잃어야 하며, 서고 싶은 목을 베어내고, 또 뵈고자 하는 눈을 뚫어 도려내야 한다. 그러니 권동현+권세정의 〈세디: 도도와 만나는 방법〉(2021)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인간인 당신의 폐위이다. 늙어 눈, 귀를 먼 개는 곁에 살아온 이를 더는 올려 대하지 못한다. 그는 부러 허리를 세워 당신의 무릎에 두 발을 올릴 수 없고, 무엇을 기대하며 앓는 일은 지켜지지 않는다. 그에게 기대를 요청케 했던 인간의 고귀함은 이제 효력을 지니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도 바뀌지 않았으므로,

또한 그는 언제나 인간의 고귀함을 보고 었드린 것이 아니었기에, 애초에 고귀함은 이 관계에서 무엇도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빙된다. 인간의 고귀함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외려 고귀함을 발휘한 것은 결핍으로 알려진 존재의 '비천함'이다. 그는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인간의 눈에 수직의 시야가 전부였을 때, 오직 그의 높이만이 대지가 수평임을 인식하도록 했다. 인간에게 사랑이 주고받는 것일 때, 그의 진동하는 몸 끝만이 단지 존재로 사랑에 빠지고, 주는 것만으로 완전할 수 있음을 느끼도록 했다. 고귀함이란, 소유로 누군가를 거두는 능력이 아닌 지님 없이 나누는 것이란 깨달음으로, 작업은 우리 중 가장 먼저 인간의 폐위를 받아들인다.

이성의 부재, 언어의 불충분, 행위의 결핍 등 인간과 비인간인 동물의 차이는 다양하게 열거될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 인간은 무언갈 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나 어떤 역량의 유무로 결정되는 차별은 비단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 역시 같은 층위에 있다. 인간적이라 치부되는 특정 능력을 배경으로 하는 위계는 동물뿐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의 모든 존재와 잠재적으로 충돌한다. 궁극적인 평등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의 입증이 아니라, 그런 입증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 역량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를 묻음한다. 동물의 인권화가 아닌 인권의 동물화. 그러니 〈개집〉(2021)의 개의 형상은 짐승조차 지나 불가능과 무의미의 가장 짙은 곳까지 내려가 먼저따위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불가능과 무의미로 덕지덕지 점철된 그래서 가장 급진적으로 비천한 존재의 행방으로, 그 위에 나열된 존재 모두의 해방에 접근한다. 명료함의 포기로 도려낸 안구, 수직의 위계를 처분하고 베어낸 목. 그러나 사랑이 더 이상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듯, 볼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성스럽게 빚어낸 형상. 〈세디: 도도와 만나는 방법〉속, 대가리가 된 머리는 처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그가 그랬듯 주변을 구른다.

사물事物에 제각기 영혼과 소명을 함유케 했던 모든 초월적인 것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단절은 앞서 말한 차이를 문법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방의 기획마다 인간의 자기 회복, 즉 인류가 갖고 있는 본질과 능력의 자기 긍정이 등장했다. 여기서 차이 없이는 정체성의 불안에 빠저드는 근대적 주체의 강박이 읽힌다. 폐위는 이마저도 돌이켜야 한다. 그러나 위계를 은폐하기 위해 구성됐던 평등의 이념은 폐지되지 않고, 회귀 속에서도

무진형제〈계적(軌迹)〉-목하, 세계진문(目下, 世界珍門)〉  
디지털화한 35mm 사진 포맷에선, 8분  
2018





—회귀로써만— 남아 이행된다. 실종되거나 죽은 동물과 의사소통을 한다고 주장하는 데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등장은 근대인의 성취를 일순간에 무너뜨린다. 무니페리의 <실종: 유령으로도 돌아 오지 못하고>(2021)는 폐위의 또 다른 전선이다. 인간은 결별했던 주술과 신비의 세계에 재진입한다. 그러나 이보다 급진적인 것은 동물을 향한 '언어'의 사용이다. "너는 여기서 사고를 당했고,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제 이승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여기 두고 너의 영혼을 잘 챙겨가렴." 대화는 언어의 당사자들이 대등한 이해 능력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 소통을 나눌만한 자격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비언어적 개체를 향한 언어적 주체의 언어 사용. 다시 말해 인간이 전근대에 입회하지 않고선, 짐승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선 가능할 수 없는 사건이 무니페리의 작업에서 발생하고 한다. '저 데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말은 정말 개소리 아닌가.'라고 느끼는 순간 작업은 적중했다. 짐승에게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짐승과 같은 권력을 지니게 됐을 뿐. 강기석의 퍼포먼스 <꼭 움켜쥐다 스스로 놓았다>(2021)는 이렇게 비인간화된 인간의 지위를 극화한다. 권동현+권세정, 무니페리의 작업이 인간과 짐승의 전도된 과제를 폐위의 형식으로 제시한다면 강기석의 퍼포먼스는 폐위 이후의 현존을 보여준다. 인간의 손은 누군가의 눈가에서 눈물을 닦을 수 있다. 동시에 그 자리에 날 달린 것을 들었던 자들이 세상을 호령하거나, 필요한 어떤 것을 생산해 지평에서 가장 먼 곳과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해 문명을 만들어낸 역사가 존재한다. 거대한 목적(동기)엔 그것에 걸맞은 행위가 따른다. 똑같이, 웅대한 행위엔 웅대한 목적이 연결된다. 이는 비용과 효용의 비례 관계처럼 자본주의 아래에서도 계승되어온 근대철학의 공리였다. 그러나 폐위된 이들의 손은 어쩔지 비대칭적이다. 등장한 이들의 분투奮闘가 고작 얼음을 녹이기 위한 일이라면, 얼음은 절로 스스로를 용해하기에 행위는 무용해진다. 한편 행위가 세계의 거대한 질서일 역학力學을 거슬러 용해를 중단시키는 일이라면 이는 분투가 아닌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연기자의 행위는 남루한 까닭에 무모하다. 결국 불필요한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비대칭 위에서 행위는 걱정 안에 있는 것과 별개로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혹은

거짓 목적만을 지닌다—. 그리고 이는 폐위 이전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다.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일에 대한 헌신.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위해 격정에 오르는 일은 폐위 이후의 인간에게만 가능하다.

3  
작품이 자유를 내용으로 갖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유 자체를 행사하는 순간은, 작품이 작가가 재현하는 내용에 대해 초연함으로써 구성된다. 작품의 자율성, 무엇보다도 내부 형상의 자율성은 형상에 자리와 기능을 부여하게 한 주제와 서사에 대해서 갖는 자율성이다. 작가가 의도한 방향에 종사하지도 거스르지도 않는, 그저 그것에 관심 없음으로써 세계의 외부로 탈각되는 대상은 작품에 돌이킬 수 없는 자유를 기입하고 만다. 주어진 세계 밖을 사유할 수 없다는 오래된 규약은 잠시 기각된다. 김송희의 <나는 지금 달팽이를 죽이러 간다>(2021)에서 인간은 온전한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속아낸 달팽이 무리를 곤란한 표정으로 마주한다. "살아있다. 다 살아있다. 나는 지금 이 달팽이들을 죽이러 간다. 달팽이도 살아있고 달도 살아있고 돼지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다. 내가 달팽이를 죽이러 간다." (김송희, 『일기』, 2000~2021) 다른 생명을 기르는 일이란 또 다른 생명을 소거하는 일이라는 모순을 생각하는 인간은, 자랑스러울 만큼 이상적인 모습을 온전히 나타낸다. 그는 살육의 거북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불살不殺을 거들먹거리지도 않는다. "속지 않는 자가 방향한다"는 명제가 실현되는 순간. 변증법 속에서 눈을 지새우는 인간은 이다지도 아름다울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두 줌에 가득한 달팽이의 형상이다. 이성의 몽유夢遊를 중단시키고 각성이라는 메시지가 그려지지만 여기엔 낮선 감정이 동반된다. 이 낮선 형상은 행위에 초연한 것처럼 보인다. 끊임없이 시선을 맞추려는 인류의 눈과는 달리 달팽이 모두는 그 눈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들 중 어느 누구하나도 목숨을 부지하려 설득에 나서겠다가거나 인류의 죄책감을 초래하겠다면 시선을 구걸하지 않는다. 인간을 얼어붙인 난처와 잔혹 사이로, 그들은 완전한 태평과 단념에 도달해 있다. 외부에 대한 무상無常과 내적 자유. 이는 이상ideal의 개념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가 두 손바닥의 위에서 그저 편안히 웅크리거나 들어 올린 높이를 감상하는 것은 몽롱해진 정신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올림피아의 신들이 누렸던 것과 거의 같은 만족과 행복을 향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때 짐승은 인간이 폐위를 고민할 틈도 없이 인간보다 높은 곳에 선다. 위대한 그림은 위대한 주제를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위대함은 작품의 도착지로서 강요하는 힘을 지니며, 그에 맞춰 위대함을 행사할 수 있는 작업 또한 거대한 힘을 갖고 있을 테다. 다만 위대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대함을 뿌리치거나 내용당이친다면 그 작업은 또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일까.

시간과 공간은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 앞에서도, 모두가 따로이 세계를 갖지 않는 까닭은 '세계선世界線'의 증명 때문이었다. 각자는 시간의 팽창으로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이 차이는 물리적인 사건을 연결한 궤적, 세계선이 모두에게 일치하게 됨으로써 무마된다. 그로써 존재들은 차이를 무릅쓰고 하나의 지평 위로 그려질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외부는 차이를 무한히 승인하면서도 공동의 지평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제노사이드 같은 비극의 용의자가 동일성으로 검토된 이후, 인간 내부에서 보편은 드물게만 찾아지고 만다. 윤리로 승화한 차이가 오직 상대적인 것을 통해 이상을 이룩할 수 있다 전할 때, 모두가 분리된 처소에 있다면 지평에 함께 있음을 나타내는 낱말 '세계'는 사라진다. 동일성과 자발적으로 단절한 동시대인은 부정적인 요소에 가차 없이 연루되지만. '세계'를 잃어버린 이상 더는 세계를 바꾸자 할 수 없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은 외려 인간 외부, 짐승들 사이에 간직돼 있다. 짐승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닐 테다. 대신에 그들은 현실의 삶을 지배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개념을 보여준다. 무진형제의 <궤적(軌迹)-목하, 세계진문(目下, 世界珍門)>(2018)은 인간이 망각한 개념 '세계'를 인간에게 일깨운다. 제목의 의미를 헤아릴 때, 궤적은 하나의 세계로 입장하는 보편의 진입로, 세계선을 가리킨다.

영상 속에서 소설 『해저 2만리』의 문구 아래로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이 도시의 정경과 중첩될 때, 아쿠아리움은 인류의 시야로 짐승을 관찰하는 공간이기를 멈추고 짐승의 목하目下에 놓인 인류의

처소를 보여준다. 도시는 모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때 짐승의 망막에 비친 것은 무엇도 분할하지 않는 오직 하나로 동일화된 분포다. 타워에 명시된 555m, 555.65m<sup>2</sup>의 수치와 극여강, 조기여강 등의 종차는 대상의 정체가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차이시켰는지를 말한다는 점에서, 분별은 대상보다 대상을 보는 관점, 차이에 함몰된 인간 자신을 드러낸다. 지식은 외부가 아닌 스스로를 알아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첩 속에선 높이도, 넓이도, 종차도, 나아가 주객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란 해발로 의미짓는 것이기에 잠긴 도시는 더 이상 높이를 지니지 않으며, 구획된 경계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수면 속 공간은 넓이 또한 지니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평형의 상태처럼 종으로도 주체와 객체로도 분리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나는 자유롭다./다만 벽, 이게 무엇보다도 나를 화나게 한단 말이야." 짐승을 화나게 한 벽은 세계를 존재로부터 격리시킨 '차이'다. 자연을 일컬을 때 풍경과 짐승을 분리하지 않듯, 존재로서 해수海獸는 세계와 단 한 번도 결별을 짓지 않는다. 근대 이후 조금도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한 인간과 달리 세계의 변혁에 가담했던 짐승은 차이를 모르는 세계의 첫 표정을 인간에게 보여준다. 인간만이 아는 차이들 그러나 "이것을 다 알아도,/사실은 여전히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신세계로부터-"

4  
오늘을 위협하는 새로운 배후가 생겼다. 우리는 전화선 속에서, 새벽 어귀에서 남모르게 드나드는 울음을 엿듣는다. 부주의하게도 부스럭 소리를 이따금 내며 미행에 가담하는 까닭은 그들을 볼 못한 것으로 믿으려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밀봉된 것은 소음, 체취, 숨뿜는 한 줌, 발톱 몇 조각, 배설물 몇 덩이, 공연음란公然淫亂 따위일테지만 충분히 불순해 마지않는다. 왜냐하면 의연한 인류는 성숙해진 이후로 언제 한번 이 밀봉된 유형들을 남에게 내보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을 지배하는 논리는 그런 것을 감히 허락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죄는 야용 혹은 멍멍 또는 그렇그렇 등등.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한 목록은 이런 것들이다. 그가 언어 없이 사람의 마음을 열 울음을 가졌다는 것. 직립으로 얻은 높이를 허물어버린다는 것. 고된 여정 끝에 결별한 신비와 신화를 다시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늘 어디선가 내 것에 되었던 믿음을 흐트려놓는 것. 온 힘을 다해 이룩한 최선<sup>최</sup>을 허무속 내버리게 하는 것. 짐승에 관한 작업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다. 다만 인간이 돌아갈 고향으로서의 자연과 고귀함을 품은 이상적 존재로서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충성심과 모범성을 부여하기 위해 종사했을 뿐이다. 그러나 《짐승전》은 오직 비능력과 비천함, 저열함, 종작없음, 부정함으로써만 고요히 빛난다.

"평온한 거리만큼은 낯설어야 한다. 고요한 피비린내가 인간과 비인간을 무작위로 덮어가는데 그것을 사건이 아닌 일상으로 여길 수 있으니 말이다." 정희영의 말처럼 평온한 거리가 낯설어가는 이유는 전시가 속속들이 미행에 따라붙은 우리를 의도치 않게 그들과 눈맞추게 하기 때문이다. 그 눈동자 위로 다시 스스로를 보게 될 인간은 고요한 피비린내를 맡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종의 것이든 피를 보면서도 가여워도 않는 우리. 그 대신에 새벽까지 심장 타는 냄새를 맡는 금수들. 전시는 차라리 피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미쳐 도는 기억을 "현세계가 선사한 두 눈을 찔러서라도 설렁 눈 먼 짐승이 될지라도 피끓는 자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는" 예언으로 출석시킨다. 그럼에도 자연이 초록 페인트 밖에 옆지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래서 붉은 색이 없다면, 우리의 손목을 잘라야겠다. 정희영이 인용한 문구를 고쳐 적는다. "나는 이제 동물이야, 언니" 동기를 찾고, 교훈을 찾고, 플롯을 찾았으니 군사령관 G.G의 명령과 우리의 바람에 따라 우리의 기소, 추방, 총살을 찌꺼기까지 받아들인다. 강함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모두가 약하다고 외칠 수는 없을까. 투사처럼 굽히지 않는 의지로 세상을 변혁하는 이야기로는 나는 도무지 시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비천함과 저열함으로 마지막까지 닿겠다.

참조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창작과비평사, 2009  
나희덕, 『파일명 서정시』, 창작과비평사, 2018  
마크 트웨인, 김옥동 옮김, 『허클베리핀의 모험』, 민음사, 2009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현대신서, 2001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옮김, 『불화』, 도서출판 길, 2015  
자크 랑시에르, 박기순 옮김, 『아이스테시스』, 2019  
정희영, 『짐승에 이르기』 전시서문, 2021  
진은영,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과지성사, 2003



강기석 〈꼭 움켜쥐다 스스로 놓았다〉  
싱글채널 비디오, 8분  
2021

권동현+권세정 〈세다: 도도와 만나는 방법〉  
싱글채널 비디오, 15분 8초  
2021(사진: 정영돈)

# Then No One will Laugh Hee Young Chung: to the Beast

Jaeyeon Cho  
H ART LAB Critic

WARNING

Anyone who tries to find any motive  
in this story will be prosecuted.  
Anyone who tries to find a lesson  
in this story will be banished.  
Anyone who tries to find any plot  
in this story will be shot.

— By order of the author, military commander G. G.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

Can't we all shout that we are weak, instead of talking about strength owned by each of us? I cannot tell the story of changing the world with an unbending will like a fighter. The great work of diagnosing the world firmly with a few propositions and condemning the enemy is not assigned to me. My appearance has long been cowardly and lowly. At the top of the square, I was always out of the way. Having reached the sidewalk before anyone could push me, and who didn't last a few minutes in the stinky mist, I knew my disqualification from the moment I didn't know which side to kiss on the cigarette. I am used to hiding my body and other people's things, and my face is laid out with emotion. So every time I wrote something, I had no choice but to go back. However, the reason why they worked so hard even in this detour was out of desperation that there was a meaning that could be saved by ignorance aside from cowardice. Noble and stubbornness means that somewhere there is an answer that can be extracted from the lowliness and weakness. It is worth discovering only through beauty in a world created by those who clamor for strength. There was no way to escape this yoke-like hope. So even if it's

2

In order to meet him, you must suppress your utterance and lose your words, cut off the neck where you want to stand, and pierce the eyes you want to see. So, the event that occurs in Dong Hyun Kwon and



Se Jung Kwon's <Sedi: How to Meet Dodo> (2021) is your dethronement as a human being. A dog with old eyes and deaf ears can no longer look up to the person who lived next to him. He has a broken waist and can't put his feet on your lap, and sits expecting nothing. The human nobility that made him ask for expectations is no longer in effect. But since he did not change any mind, nor did he ever prostrate at the sight of human nobility, it is evidenced that nobility in the first place realized nothing in this relationship. Human nobility was ineffective from the beginning. It is the 'lowness' of beings known for lack of dignity that has been shown to be noble. He knows what true nobility is. When the human eye had all its vertical vision, only his height allowed him to perceive the earth as horizontal. When love is a give-and-take for a human being, only the tip of his vibrating body makes him feel that he can fall in love with just being, and be complete just by giving. With the realization that nobility is not the ability to acquire someone by possession, but to share without knowledge, the work is the first among us to accept the dethronement of a human being.

The difference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animals, such as lack of reason, lack of language, and lack of action, can be enumerated in various ways, but the essence is the same. Humans can do something, but animals can't. However, discrimination determin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certain capabilities does not only occur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the elderly, women, and sexual minorities is also on the same level. The hierarchies behind certain abilities that are considered human potentially collide not only with animals, but with all beings in the realm where they are unable to exercise those abilities. The ultimate equality is not the proof of the ability to perform a certain action, but it asks whether the difference and capability can be reduced to meaningless despite such proof. The animalization of human rights, not the humanization of animals. Therefore, the shape of the dog in <Dog House> (2021) goes beyond even the beast and descends to the

darkest part of impossible and meaningless, inevitably composed of dust. It approaches the liberation of all the beings listed above, with the whereabouts of the most radically lowly beings dotted with impossibility and meaninglessness. Eyes cut out by abandoning clarity, neck cut off after disposing of vertical hierarchy. However, just as love no longer presupposes giving and receiving, a form carefully crafted while knowing what cannot be seen. In <Sedi: How to Meet Dodo>, the head, called "head", rolls around as he did from the lowest point for the first time.

The voluntary severance from all transcendental things that allowed objects to contain their own souls and vocations had no choice but to adopt the aforementioned difference as a grammar. Thus, in every project of liberation, human self-recovery, that is, self-affirmation of the essence and ability of mankind, appeared. Here, the obsession of the modern subject, who falls into the insecurity of identity without any difference, is read. The deputy must take this into account. However, the idea of equality, which was constructed to cover up the hierarchy, is not abolished, but remains and is implemented in the regression—only as a regression. The emergence of a dead animal communicator who claims to communicate with missing or dead animals destroys the achievements of modern people in an instant. Moony Perry's <Disappearance: Can't Even Come Back As a Ghost> (2021) is another front for dethronement. Humans re-enter the world of magic and mystery that they broke up with. But more radical than this is the use of 'language' towards animals. "You have had an accident here, and you are already dead. You now leave everything you have in this life here and take care of your soul." Conversation presupposes that the parties of the language share equal comprehension skills and have the qualification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use of language by linguistic subjects towards non-verbal entities. In other words, an event that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human participation in the pre-modern era and recognition of the same qualifications as animals occurs in Moony Perry's work.



The moment I felt, 'Isn't that Dead Animal Communicator's words really bullshit?' The job was successful. It's not about giving the beast the status of a human. Humans only have the same power as beasts. Ki Seok Kang's performance <Grab and Release> (2021) dramatizes this dehumanized status of human beings. If the works of Dong Hyun Kwon, Se Jung Kwon, and Moony Perry present the overturned task of humans and beasts in the form of dethronement, Ki Seok Kang's performance shows the existence after dethronement. A human hand can wipe the tears from someone's ey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history in which those who heard flying things commanded the world or produced something necessary to reach the furthest and highest places on the horizon and create a civilization. A great purpose (motivation) is accompanied by an action commensurate with it. Equally, a grand purpose is associated with a grand action. This was an axiom of modern philosophy that has been handed down under capitalism like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cost and utility. However, the hands of those who have been deposed are somewhat asymmetrical. If the struggle of those who appeared is just to melt the ice, the ice itself melts itself, so the action is useless. On the other hand, if the action is to stop the fusion against the mechanics, which is the great order of the world, this is nothing more than a struggle, not a struggle. The actor's actions are reckless because they are sloppy. After all, on the asymmetry of the unnecessary or the impossible, the action has no purpose—or only a false purpose—independent of what is in the passion. And this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humans before the dethronement. Commitment to work for which no results exist. It is only possible for human beings after the dethronement to rise in passion for things that they do not expect so much in return.

3

The moment when a work does not have freedom as its content, but exercises its own freedom itself, is constituted by the work's premiere of the content that the artist reproduces. The autonomy of the work, and

above all, the autonomy of the internal form, is the autonomy of the subject and narrative that gives the form a place and function. An object that is dislodged to the outside of the world by not engaging in or against the direction the artist intended, or simply not interested in it, writes irreversible freedom into the work. The old convention that one cannot think outside the given world is temporarily rejected. In Song Hee Kim's <I Am Going To Kill The Snails Now>(2021), humans face a group of snails that have been cut out to harvest whole cabbage with a troubled expression. "Alive. They're all alive. I'm going to kill these snails. The snails are alive, the chickens are alive, the pigs are alive, and the people are alive. I'm going to kill the snails." (Song Hee Kim, "Diary", 2000~2021) Human beings, who think of the contradiction that raising another life is the elimination of another life, fully exhibits an ideal figure enough to be proud of. She is aware of the awkwardness of slaughtering, but that doesn't mean she can't help but kill. The moment when the proposition "He who is not deceived wanders" is realized. Is Lee Da-ji beautiful as a human being who keeps his eyes open in the dialectic?

But the most beautiful figure is that of a snail in two handfuls. The message of awakening is drawn by stopping the dream of reason and awakening, but this is accompanied by an unfamiliar feeling. This unfamiliar form seems detached from the action. Unlike the human eye, which constantly tries to make eye contact, all snails turn their backs on them. Neither of them begs their gaze to persuade them to spare their lives, or to inflict a sense of guilt on humanity. Between the embarrassment and cruelty that freeze humans, they have reached complete serenity and renunciation. External freedom and inner freedom. This is what the concept of the ideal requires. It is not because of his hazy mental state that he admires the heights he has raised, curled up comfortably above the palms of his hands, but because he enjoys almost the same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at the gods of Olympia enjoyed. At this time, the beast stands taller than the human, without any time for humans to worry about dethroning. A great picture may have called



for a great subject. Greatness has the power of coercion as the destination of the work, and the work that can exercise greatness accordingly must also have enormous power. However, if you do not accept greatness and reject it or throw it away, how powerful is that work?

Even in the face of the result of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at time and space are relative according to speed, the reason everyone does not have a separate world is because of the proof of the 'world line'. Each one experiences a different world due to the expansion of time, but at the same time, this difference is overcome by the fact that the trajectory and world line connecting the physical events coincide with each other. In this way beings could be drawn on a single horizon,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this way, the outside of man infinitely approves the difference, but does not lose the common horizon. However, since the suspects of tragedies such as imperialism, totalitarianism, and genocide are examined as the same, universals are rarely found in humans. When it is said that differences sublimated into ethics can achieve ideals only through relative things, the word 'world', which indicates that we are together on the horizon, disappears if we are all in separate places. Contemporaries who have voluntarily cut off their identity are mercilessly involved in negative factors. As long as we have lost the 'world', we can no longer change the world. The ability to change the world is reserved outside of humans and among the beasts. The beast itself would not have political significance. Instead, they show the concept of politics in that they deviate from the logic that governs real life. Moojin Brother's <Traces - Now and Now, the World's Truth> (2018) awakens to humans the concept of the 'world' that has been forgotten by humans. When figuring out the meaning of the title, the trajectory refers to the world line, the universal entrance to one world. In the video, when the Rod World Tower Aquarium overlaps with the city scene under the words of the novel '20,000 Leagues Under the Sea', the aquarium ceases to be a space for observing animals through the eyes of mankind and shows the habitation of mankind under the

eyes of the beast. . The city sank below all the waters. At this time, what is reflected on the retina of the beast is a distribution that is identical to the only one that does not divide anything. In that the 555m and 555.65m2 values specified on the tower and the species difference of the polar fish river and the early fish river do not refer to the identity of the object, but to how the object was differentiated, discernment is the point of view of the object rather than the object, and the person immersed in the difference. reveals Knowledge has only come to know itself, not outside. However, in the overlap, there is no difference in height, width, species, or even the main audience. Since altitude means elevation, a submerged city no longer has a height, and in the absence of a demarcated boundary, the space under the water has no width either. Everything was not separated into species, subject and object, as in the state of phase equilibrium. "Here I am free./But the wall, it pisses me off more than anything else." The wall that made the beast angry is the 'difference' that isolates the world from existence. Just as we do not separate the landscape from the animals when we refer to nature, the sea and water, as beings, never break up with the world. Unlike humans, who have not changed the world at all since modern times, the beasts that participated in the change of the world show humans the first expression of the world that does not know the difference. Differences only humans know But "You have to know that even if you know all these things,/the truth is, you still don't know anything./-From the New World-"

4

A new mastermind has emerged that threatens today. We overhear cries secretly in the telephone line, at the mouth of the dawn. The reason he inadvertently joins the trail with an occasional rustle is to believe that they are discord. What is sealed there may be noise, body odor, a handful of cotton balls, a few pieces of toenails, a few pieces of excrement, and public performance obscenity, but it is impure enough. This is because the resolute mankind has never shown these sealed patterns to others at any time since they matured. The logic



that dominates reality does not dare allow such a thing. Your sins are meowing or doggy or snarling and so on. So the list we feared is this. That he had tears to open people's hearts without words. To destroy the height gained by standing upright. To make you want to believe in the mystery and myth that broke up after a long journey. To blur the belief that it has always been mine somewhere. To let the best things you achieve with all your strength might be thrown away in vain.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as no work on animals. However, the story of animals as ideal beings embracing nature and nobility as a hometown for humans to return to was only engaged in to give them loyalty and exemplariness. But 《The Story of the Beast》quietly shines only through incompetence, lowliness, lowliness, no end, and denial.

"A peaceful street should be unfamiliar, because the serene smell of blood randomly covers humans and non-humans, so it can be regarded as a daily routine rather than an event." As Hee Young Chung said, the reason why the peaceful streets are unfamiliar is that the exhibition unintentionally makes us, who have been followed closely, make eye contact with them. Humans who will see themselves again through those eyes cannot help but smell the still fishy smell of blood. We, of any species, do not feel pity for seeing blood. Instead, they smell the burning heart until dawn. Rather, the exhibition brings the memory that makes one's head go crazy when smelling blood as a prophecy "I will try to live in this world with blood boiling even if I become a blind animal even if I stab my eyes that the present world has given me." And yet, if it seems that nature only spills green paint, so there is no red color, then we have to cut off our wrists. Rewrite the phrase Hee Young Chung quoted. "Now I'm an animal, sister" Having found a motive, a lesson, and a plot, we accept our charges, exiles, and firings to the muck according to the orders of the military commander G.G and our wishes. Instead of talking about strength, can't we all shout that we are weak? I can't even begin with a story of changing the world with an unbending will like a fighter. But I will reach the end with

this lowliness and lowliness.

References

Soo Young Kim, 『Variations of Love』, Changbi Publishers, 2009  
Hee Duk Na, 『File Name Lyric Poetry』, Changbi Publishers, 2018  
Mark Twain, Translated by OK Dong Kim,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Mineumsa, 2009  
Alain Badiou, Translated by Jong Young Lee, 『Ethics』, Dongmoonseon Contemporary, 2001  
Jacques Rancière, Translated by Tae Won Jin, 『Discord』, Gil Publishing, 2015  
Jacques Rancière, Translated by Ki Soon Park, 『Istesis』, 2019  
Hee Young Chung, 《To the Beast》Exhibition Preface, 2021  
Eun Young Jin, 『Dictionary of Seven Words』, Moonji Publishing, 2003



조재연

lunaticwhale.de

홍익대학교 미학과 석사 수료

동국대학교 법학과 및 철학과(복수전공) 졸업

경력 및 수상

2021–

미술잡지 아트인컬처 기자 재직 중

2021

H ART LAB 이론가 부문 선정

2020

홍익대학교 대학원 표창장 수상

2019

Graphite on Pink 제3회 비평공모전 1위 수상

2020

비영리공간 싹 "싹수 프로젝트" 비평가 부문 선정

2017

대안공간 눈(現예술공간 봄) "차세대 유망 문화예술비평가 프로그램" 선정

2016 –21

웹진 크리티크-칼 필진

2020

「폭발」(백지훈 개인전 《Nontype》 도록 기고)

「우리, 지옥에서 살아요」(최수련 개인전 《태평선전》 도록 기고)

「미적 유기체로 아버지」(안부 개인전 《잘-못-하다》 도록 기고)

「폐허의 연인」(허단비 개인전 《영혼의 발돋움》 웹진 전시 서문 기고)

「생쥐와 인간은 뽕족한 수가 없다」(허단비 개인전 《영혼의 발돋움》 전시 서문 기고)

「기억을 딛고 얻은 망각」(남지연 개인전 《Stroy(story story)》)》 도록 기고)

「실수가 개와 늑대의 시간」(김학량 개인전 《벽화》 도록 기고)

「바다 알려지 잠수함」(김학량 개인전 《바다와 나비》 도록 기고)

「시계판에 총」(구나 개인전 《너와나와너와나》 도록 기고)

「사뭇 지속하는 다툼」(송가현 기획 《이스트빌리지 뉴욕》 「그래비티 이팩트」 비평공모전 1위 수상작)

\* 이외에 『월간미술』, 『퍼블릭 아트』, 『그래비티 이팩트』, 『BGA』, 『크리티크-칼』 등 다수 매체에 기고.

주요 저술

2022

「우리 중에 밀고자」(김예솔 《Willow》 도록 기고)

「저문 강에 샅을 씻고」(차지량 〈Surfing〉 텍스트 협업)

「여름 이상의 형이상학」(고현정 The Sweet Sunburn 전시서문 기고)

2021

「독을 차고」(안민 〈Conscience〉 시안미술관 도록 기고)

「흐린 날, 미사일」(차지량 〈New Home — Stay〉 프로젝트 기고)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이현수 개인전 《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도록 기고)

「네 입속에 내 앞」(하므음 「종이 속 전시」 도록 기고)

「생, 나는 달지 않는 등」(정의철 개인전 《Look at me now》 도록 기고)

「그다음 누구도 비웃지 않게 된다」(정희영 기획 《짐승에 이르기를》 도록 기고)

「우리의 죄는 희망」(김연재, 유지원 2인전 《아포칼립스 모으기》 전시 서문 기고)

「저녁은 어떻게 오지」(강원제 〈선택되지 않은 그림〉 시안미술관 도록)

Jaeyeon Cho

lunaticwhale.de

Hongik University Aesthetics, Master's degree

Dongguk University, Double major in Law and Philosophy, BA

WORK EXPERIENCES & AWARDS

2020

Hongik University Award Certificate

2019

Graphite on Pink 3rd Criticism Contest, The 1st Winner

2021–

Magazine Art in Culutre, Editor (during office)

2021

H ART LAB, Theorist

2020

The non-profit space SSac Project Critic Program

2017

The alternative space Art Space Noon Critic Program

2016 –21

The webzine Critic-al writer

*The Last Settlement of Accounts* (Ahn Dongil, *The Aimless Bullet*)

*How Can Come Evening* (Kang Wonje, *Unselected Painting*)

*The Source of The Ingredient* (Kang Seokho, Lee eunjoo, *A Virtual Shadow Shines in The Sky of Information*)

SELECTED WRITINGS

2022

*Push Among Us* (Kim Ye-sol, *Willow*)

*Wash the shovel in the river in the evening* (Cha Ji Ryang, *Surfing*)

*The Metaphysics of Summer* (Ko Hyun-jung, *The Sweet Sunburn*)

2021

*Equipped With Poison* (Ahn Min, *Conscience*)

*Cloudy day, Missile* (Cha Jiryang, *New Home — Stay*)

*We Need to Euthanize Rentier* (Lee Hyunsoo, *Ever Green*)

*My Leaves in Your Mouth* (Ha M-eum, *A Exhibition in Paper*)

*A Life, I Can't Reach* (Jung Euicheol, *Look at me now*)

*Then, No One Laughs at* (Chung Heeyoung, *To the Beast*)

*Our Sin is Hope* (Kim Yeonjae, Yoo Jiwon, *Collecting Apocalypse*)

*Turn off The Lights and Wake up* (Park Jihyung, *Fathomless*)

*The Texture of The Reunion* (Park Hyun, *thedesert.xyz*)

약력

Curriculum Vitae

138

139

조재연

Jaeyeon Cho



# H ART LAB Program

전시 및 프로그램

Exhibition & Program

강연

Lecture

오픈 스튜디오

Open Studio

이론가 작가  
매칭 프로그램

Artist and Critic  
Matching Program



## 전시 및 프로그램

H ART LAB은 입주자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시 및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 ART LAB이 위치한 호반문화재단 사옥 내에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입주자들의 전시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이여운 개인전 《Shape & Shadow》  
Yuwoon Lee's Solo Exhibition 《Shape & Shadow》  
2021. 7. 28 ~ 9. 19



나나와 펠릭스 개인전 《카메라,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하늘에 개신 우리 아버지》  
Nana & Felix's Solo Exhibition 《Camera, Cigarette, Whiskey, and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2021. 12. 17 ~ 1. 13

## Exhibition & Program

H ART LAB provides opportunities to present in various way, including exhibitions and projects, to actively support artists and critics residents' creative activities. H ART LAB uses various spaces of Hoban Construction headquarter building where the H ART LAB located to support exhibitions and projects for the artists and critics.

박혜수 <토론극장: 우리, 둘> Re:View 영상 제작 지원  
《Forum Theater URI》Review video production support



박혜수 <오래된 약국 2021 쇼트> 프로그램  
Program by Hyesoo Park 《Ancient Pharmacy 2021 short version》  
2021. 10. 29





## 강연

원로 작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H ART LAB 입주자 창작 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강연을 기획합니다. 입주 이론가의 경우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합니다. 2021년 에는 초대작가인 김보희, 이강소 작가의 작업 세계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강연1. <김보희의 작업세계>  
Lecture 1. <Bohie Kim's Artworks>

2021. 7. 14



## Lecture

Masterpiece artists an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to present lectures that inspire H ART LAB artists. Critics residents give lectures on research projects. In 2021, Kim Bo-hee and Lee Kang-so gave lectures based on their art works.

강연 2. <이강소의 실험미술>  
Lecture 2. <Kangso Lee's Artworks>

2021. 11. 5





## 오픈 스튜디오

입주자들이 입주 기간 동안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는 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보여 줍니다. 입주 이론가들은 개인 스튜디오 오픈과 더불어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비평 강연과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결과물을 공개합니다.



초대작가 김보희 전시 / Bohie Kim's Exhibition



## Open Studio

The H ART LAB open studio, where the artists present the results of their art work in their H ART LAB studio to the public. They present not only the results of their art work, but also the working process. The critics disclose the results of H ART LAB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shows their H ART LAB studios and have critical lectures and consulting during the open studios.



초대작가 이강소 스튜디오 / Kangso Lee's Studio





# H ART LAB, 그 첫 번째 노드에서 점의 확산을 기대하며

김보라  
H ART LAB 1기 입주이론가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딘가에 접속된다. 뚜렷한 목적에서,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연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끝없이 이어지는 접속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단절과 고독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2020년에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그러하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오가는 길거리를 바라보다 보면 문득 그 풍경 자체가 생경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은 모습을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게 되어 버릴 때가 올 듯 싶기도 하고,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현황을 연일 보도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어쩌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나,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동지애 비슷한 애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 조심하느라 거리를 두는 데다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만나니 아무래도 인간적 교분을 쌓기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말 '얼굴'의 뜻은 '열이 담긴 꿀'이라는데, 코로나 시기에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거나 마스크를 쓴 채로 만나는 탓에 그만큼 상대의 정신이나 마음에 가닿는 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통 방식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 '영혼의 창'인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대화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따금 제한된 소통이 남기는 메마르고 삭막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술을 통한 교류와 소통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지와 문자, 음악을 통해 연결된다. 거리두기가 가능한 각자의 공간에서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이다. 어딘가에 있을 익명의 수신자에게 송신자로서 '나,

여기에 있어요!'라고 신호를 보내다가, 또 수신자로서 비슷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누군가를 발견할 때 반갑고 기쁘다. 나와 통하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이외에도 '연결감(連結感)'이 중요하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L'enfer, c'est les autres)"라고 쓰기도 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다. 누군가를 통해 자극받고, 배우고, 에너지를 얻으며,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감정으로 삶을 살아갈 힘을 내는 것이다.

호반그룹 산하 호반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 공간인 H ART LAB은 2021년 3월, 전 세계적 전염병 상황 속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이어지면서 입주작가 사이 활발한 교류에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에서도 초대 작가 강연으로 선후배 예술가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바 있으며,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나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의 제목은 《ART NODE》다.

'교점' 또는 '결합점'을 뜻하는 노드(node)는 네트워크 분기점이나 접속점을 가리키는 컴퓨터 용어로, '매듭'을 뜻하는 라틴어 'nodus'에서 유래했다. 《ART NODE》라는 제목에 H ART LAB의 첫 번째 매듭, 그 결실을 공유한다는 이 행사의 취지와 미술을 매개로 한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H ART LAB 1기 입주작가와 이론가는 올 한해 미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접속했으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작품 발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각자의 활동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로서 호반건설 사옥 내 스튜디오 공간을 오가며 서로의 작업 세계를

이해하고 예술적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좀 더 적극적 소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H ART LAB의 출발점에 함께 섰던 1기 구성원들은 이곳에서의 인연과 만남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작업 세계를 펼쳐나

갈 것이다. 앞으로도 H ART LAB이 많은 예술가의 든든한 창작 플랫폼이자 예술의 확산을 모색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시, 강연, 공연, 상연회 등 다채로운 코너가 마련된 이번 《ART NODE》 자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이의 기억에 남을만한 뜻깊은 교차점이 되기를 바란다.

입주작가 나나와 펠릭스 스튜디오 / Nana & Felix's Studio







임주작가 박혜수 스튜디오 / Hyesoo Park's Studio



# H ART LAB, Expecting the Spread of Dots on that First Node

**Bora Kim**  
H ART LAB Critic

Living in a hyperconnected society, we are connected somewhere from the moment we wake up in the morning. For a clear purpose, sometimes it is connected unknowingly. Ironically, however, in the midst of endless connections, the disconnection and loneliness between people grow even more. This is even more so after the COVID-19 crisis that suddenly began in 2020. As everyone wears a mask and looks at the street, there is a moment when the scenery itself comes unfamiliar. Now, I think there will be a time when I feel awkward without a mask, and I feel depressed about how I am living in this world while listening to the news that reports the endless status of COVID-19 every day. Perhaps that's why it's true that just because they're passing through difficult times together, they feel a similar affection for all of them living in the same era.

However, it seems that it is difficult to build a relationship because they are keeping a distance from each other to be careful and meet with most of their faces covered. The meaning of the Korean word "face" is "a state of mind" and people who first met during the COVID-19 period usually communicate online or meet with masks on, so it seems that there is a limit to touching the other person's mind. Such a communication method is bound to be different from meeting each other's faces and talking while looking into the eyes, which are the "window of the soul." The dry and stark feeling of limited communication sometimes leaves a corner of the mind empty.

In this situation, it may be because of exchange and communication through art that is comforting. Even in a life where it is difficult to meet in person due to COVID-19, we are connected through images, texts,

and sound. It is to transmit and receive in each space where distancing is possible. I'm glad and happy when I signal an anonymous recipient somewhere, 'I'm here!' as a sender, and I find someone who expresses similar thoughts or feelings as a receiver. The fact that someone who has the same sensitivity as me exists somewhere in the world makes me feel that I am not alone. Yes, in addition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necessary for a person's survival, a sense of connection is important. Sartre also wrote, "L'enfer, c'est les autres," but we can never live alone. It is to gain strength to live life by being stimulated, learning, gaining energy through someone, and feeling connected to someone.

H ART LAB, an art residency program of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started in March 2021 during COVID-19 pandemic situation around the world. Despite the difficulty of active exchanges between tenant artists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the mentor artist lecture provided a time for communication between artists, and although it is still cautious, it seeks opportunities for a wider network through open studio programs. The open studio, which opens for three days from December 17th 2021 is titled "ART NODE". A node, meaning "intersection" or "bonding", is a computer term for a network junction or junction, derived from the Latin word "nodus" meaning "knot". Under the title "ART NODE," the first knot of H ART LAB, the purpose of the event to share its fruits, and the connection through art.

The residency artist and theorist of H ART LAB accessed this year with a common denominator of art, and despite the COVID-19 situation, they conducted their own activities more diligently than ever,



including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of works. In addition, I was able to spend time understanding each other's art world and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artistic exchanges by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art studios. Looking back on the past year, it is regrettable that COVID-19 has not been able to communicate more actively due to inevitable conditions, but the art residency artists and theorists who were at the starting point of H ART LAB will be more active thanks to their relationship and meeting here. It is expected that H ART LAB will continue to serve as a strong creative platform for many artists and a hub for the spread of art, and I hope that this "ART NODE" itself, which has a variety of corners such as exhibitions, lectures, and performances, will be a memorable intersection for everyon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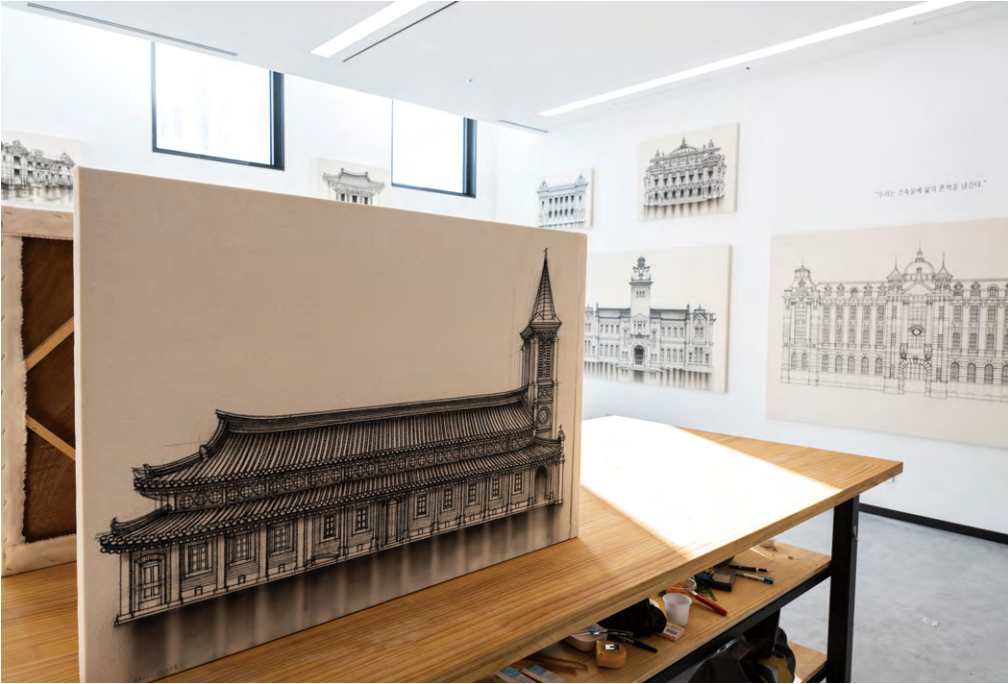
입주작가 이정원 스튜디오 / Jangwon Lee's Studio



입주작가 구혜영 x 김영남 스튜디오  
Hyeyoung Ku x Youngnam Kim's Studio



입주작가 이여운 스튜디오 / Yuwoon Lee's Studio







오픈스튜디오 연계행사 <Uncanny> 상영회  
Open Studio Program, <Uncanny> screening event



오픈스튜디오 연계전시 <84B>  
<84B>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오픈스튜디오 연계행사 <add:실연> 공연  
Open Studio Program, <add:Broken Heart> concert



오픈스튜디오 연계토크 <변명과 비명들>  
Open Studio Program, <excuses and screams> lecture



## 이론가 작가 매칭 프로그램

### Artist and Critic Matching Program

H ART LAB에 입주한 작가와 이론가는 창작 교류 프로그램 일환인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작가와 이론가는 입주 기간 동안 서로의 작업세계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작업 발전 방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H ART LAB artists and critics participate in the matching program.  
Critics and Artists are matched, and critics are criticizing to artists.  
This gives creators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 direction of artist's art work.

## 경계에 대한 시선의 교차 : 구혜영×김영남의 예술

김보라  
H ART LAB 1기 입주이론가

### S#1.

#### 구혜영 또는 통짜라 불리는 그녀

지난 1년 동안 스튜디오를 오가며 그녀를 마주할 때  
마다 한여름 태양의 기운을 느꼈다. 근데 정작  
그녀는 자신이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없다더니 진짜로 그런 걸까. 여러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그녀의 새로운 면면을 발견  
한다. 「아트스타코리아」라는 방송 프로그램과 몇몇  
전시를 통해 작업을 접한 후 퍼포먼스와 설치 미술가  
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못하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재다능하다. 피아노를 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르네상스맨인 것이다. 한때 극단을 결성한  
적이 있을 만큼 연기와 연출에 대한 관심은 오래  
되었으며 피아노 연주 실력은 수준급이다. 얼마 전  
에는 공중파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했고 음원과  
뮤직비디오 「팽수와 함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혜영의 활동 영역은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  
회화, 음악은 물론 연기까지 무한 확장 중이다. 과거  
어느 날, 한 장의 이미지로 그녀를 사로잡았던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처럼 결코  
하나의 장르에 고정할 수 없는 아티스트인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의외의 사연을 들려준다. 수줍음  
이 많아 이를 극복하느라 퍼포먼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퍼포먼스 현장에서의 긴장감과  
에너지,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체험이 짜릿하다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 혹은 무언가 좋아  
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구체적  
으로 말하자면 모네, 세잔, 반 고흐 등 어려서부터  
동경했던 화가의 작품을 오마주하고 세계 아마  
추어 피아니스트 콩쿠르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  
아카펠라 그룹을 조직하여 공연을 계획하는 작업  
모두 예술이다. 구혜영에게 예술은 곧 삶이며 예술

과 삶의 일치가 그녀의 지향점이다.

이렇듯 구혜영의 열정 넘치는 퍼포먼스 작업은  
일견 유쾌해 보이나, 그 저변에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흘러지는 삶,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인생,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삶에 대한 사유다. "나는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삶을 통해 죽음을 보고 싶다"라는  
작가의 말은, 끝이 있기에 소중한 이 시간을 강조  
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즉 죽음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다. 바니타스  
(vanitas)가 구혜영의 다채로운 예술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불꽃 같은 그녀의 강렬함은 순간에  
집중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애초 영상과 설치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던 그녀는 2009년 골드스미스 대학원 재학  
당시 '퍼포먼스 데이' 행사에서 샌드위치 장례식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장례식은 런던에서 즐겨 먹던  
BLT 샌드위치 상자 형태를 빌어 거행되었고 서울  
에서 열린 개인전 《김밥의 천국》(2013)을 통해  
김밥 장례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역시 유학 시절에  
시작된 비닐 퍼포먼스는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반영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녀의 작업에서는 쉽게 사라지고  
소비되는 것에 대한 제의 혹은 축제가 펼쳐진다.  
또한 그 속에서 엿보이는 희극성으로 삶과 예술 사이  
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sup>1</sup>

그렇다면 구혜영 작가는 왜 '통짜'인가? 통짜  
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작명쇼〉  
이후였다. 어려서부터 불리던 이름을 바꾸고자

<sup>1</sup>  
양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옮김, 세계사, 2007(1992), 26쪽.



마음먹은 작가는 로또 방송 형식으로 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로또 쇼처럼 한글 자모가 적힌 공을 투명한 구에 넣고 돌려서 나온 순서 그대로 받아 적은 글자가 바로 통짜였다. 삶과 예술의 합일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그랬듯 우연이란 방법론을 적극 도입한 결과, 새 이름을 찾은 것이다. 이후 구혜영 또는 통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S#2.**  
**영화와 미술, 문학을 아우르는 그**  
김영남 작가의 이력은 독특하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던 그는 예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대학에 진학하여 영상연출과 비디오 아트를 공부했다. 한때 연극에 심취하기도 했던 그는 부산국제영화제, 타이베이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화려한 경력의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첫 연출작 「내 청춘에게 고함」(Don't Look Back, 2006)으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상을 수상했고 한일 합작영화 「보트」(No Boys No Cry, 2009)를 연출했으며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썼다. 구혜영 작가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를 전시 형식으로 구현하여 《그의 사라짐에 관하여》, 《구멍 난 현실》 등에서 영상과 설치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폭넓은 활동을 하는 그녀만큼이나 그도 이미지, 텍스트, 퍼포먼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김영남의 예술은 꿈과 무의식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 세기의 초현실주의와 맞닿는 주제이기도 한데, 특히 불안이라는 현대인의 감정과 불완전한 현실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주요 창작 원천으로 삼았던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말에 노트를 두기도 하는 그는 꿈을 모으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도 듣는다. 이렇게 수집한 꿈이 소재가 되어 「오리의 웃음」(A Duck's Grin, 2018)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 중년 남성이 옛 애인을 찾아 나서면서 겪는 일들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이 영화에 15개의 꿈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겨 있다. 2015년 이래 이러한 초현실주의 경향의 영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에 영향을 끼친 예술을 묻자 그는 스페인의 감독 루이스 부뉴엘(Luis Buñuel, 1900-1983)의 영화와 아르헨티나 소설가 훌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azar, 1914-1984)의 마술적 리얼리즘에 매력을 느꼈던 순간을 이야기한다. 김영남 감독의 영화를 보며 관객으로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영화 속 사물이나 색이 갖는 의미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산, 풍선, 그리고 검정이 담고 있는 상징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비디오아트를 전공한 영화감독답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적 이미지와 미장센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특징이 보인다.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잠과 죽음의 유비 관계다. 구혜영의 작업은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하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면, 김영남의 작업은 '깨어남과 잠 사이 문지방을 넘쳐 흐르는 수많은 이미지의 발자국'<sup>2)</sup>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경계와 현실을 넘어서는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두 작가의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3.**  
**'구남', 그녀와 그의 보랏빛 콜라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다. 장거리 마라톤 같은 예술의 길을 가는 일은 때때로 외롭고 힘이 드는 일. 한 사람의 머릿속을 맴도는 아이디어와 의심은 곁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 어느새 확신과 실천으로 변화하고, 한 사람의 신중함이 주저함과 머뭇거림으로 이어지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의 실행력이 힘을 발한다. 이를테면 영상 작업을 하고자 했던 미술가와 설치 작업을 동경하던 영화감독의 협업으로 멋진 영상 설치 작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구혜영 작가의 추진력은 김영남 작가의 상상을 구체화하고, 구혜영 작가는 김영남 감독의 연출력을 통해 비닐 여왕이자 생명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사제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귀환한다. '구남(구혜영×김영남)'의 예술은 이들이 때때로 즐기는

<sup>2)</sup>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I 폭력비판을 위하여 I 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옮김, 길, 2012(2008), 145쪽.

핑퐁 게임처럼 펼쳐진다.  
구남의 첫 만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간간이 인연을 이어오다가 듀오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9년이다. 전시 《통짜의 고백》을 위한 협업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은 단편 영화 「우산과 모종삽(우연한 순간)」(2020)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비닐 연대기: 숲속의 비닐」(2020) 등 일명 '비닐 3부작'이 제작된다. 「우산과 모종삽」은 장기 프로젝트인 '데일리 액팅(Daily Acting)'의 일환으로 구혜영 작가가 홀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대사나 내레이션 없이 배경 음악이 깔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행위가 계속된다. 계단을 오르거나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 장면, 숲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나무에 걸려있던 빨간 손잡이의 모종삽과 식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심는 상황, 계단에 앉아 졸다 잠에서 깨어 갑자기 맨발로 걷는 장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다가 골목길에 버려진 우산을 발견하여 이를 펼쳐본 후 가져가는 장면, 끝으로 이 붉은 우산을 숲속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다. 제목 그대로 영상에 등장하는 모종삽과 우산은 정신분석학적 함의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지만 내러티브 구성없이 주인공의 일상과 백일몽을 오가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단서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구남의 작업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보여준다. 결국 해석은 감상자의 몫일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구혜영 작가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한 게 사실이나, 예전 인상대로 그녀는 내게 여전히 강렬한 태양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녀에게서 느낀 색상이 빨강에 가깝다면, 김영남 작가의 작업에서 느낀 이미지는 영화 「보트」의 엔딩 부분처럼 깊은 파랑이다. 따라서 두 작가의 합체인 구남은 보랏빛인 셈. 다른 듯하나 교집합이 존재하는 두 예술 세계의 몽타주로 생성되는 창조적 시너지를 구남의 콜라보레이션에서 확인하게 된다. 원고 작업을 위한 인터뷰 말미에 구혜영은 르네 마그리트와 조제트 마그리트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예술과 환상, 사랑과 우정이 함께 어우러지고 꿈과 현실 사이의 흐릿한 선을 넘나드는 삶이리라. 경계에 대한 사유와 예술적 상상을 공유함으로써 구남은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 Intersecting Perspectives on Boundaries: The Art of Hyeyoung Ku x Youngnam Kim

Bora Kim  
HART LAB Critic

## S#1 An Artist called either Hyeyoung Ku or Tongjjwa

For the past year or so, I have felt the energy of her midsummer sun every time I came face to face with her in and out of her studio. But she said that she was like a tree. You can't tell from the outside, but is it really like that? As I find and read various sources, I discover a new side of her. After hearing about her work through a broadcast program called *Art Star Korea* and several exhibitions, I only knew of her as a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artist. She is a true Renaissance man of this era, playing the piano, painting, singing, dancing and acting. Her interest in acting and directing is long enough that she once formed a troupe, and her piano playing skills are top-notch. Not long ago, she appeared in an over-the-air television drama and released a soundtrack and music video "With Pengsoo". As such, Hyeyoung Ku's field of activity is infinitely expanding from performance, installation, video, painting, and music to acting. Like Jean Cocteau (1889-1963), who captivated her with one image of her one day in her past, she is an artist who can never be pinned to one genre.

However, she tells her unexpected story. She said she was shy and started her performance to overcome this. However, she said that her experience of sharing her tension, energy, and moments in the performance scene is thrilling. For her, it is her art to take on a new challenge or do something she likes. Specifically, she pays homage to the works of artists she admired since childhood, such as Monet, Cézanne, and Van Gogh, and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world amateur pianist

competition, organizing an a cappella group and planning a performance are all art. For Hyeyoung Ku, art is life, and the unity of art and life is her goal.

As such, Hyeyoung Ku's passionate performance work looks delightful at first glance, but underneath it lies a serious attitude towards life. It is a thought about a life that constantly flows and scatters, a life where joy and sorrow coexist, and a life that is in contact with death. The artist's words, "I want to see life through death, and death through life," emphasizes this precious time because it has an end. Memento mori, that is, when you remember death, you can stay true to your present life. Vanitas are penetrating Hyeyoung Ku's colorful art. Her flame-like intensity comes from her ability to focus on the moment. She first went to England to study her film and installations, but first performed her sandwich funeral in 2009 while attending Goldsmith's Graduate School on her Performance Day event. Her funeral was held in the form of a BLT sandwich box, which she enjoyed eating in London, and was converted into a Gimhap funeral through her solo exhibition, *Heaven of Gimhap* (2013) held in Seoul. As expected, the vinyl performance that started while she was studying abroad has been reborn as a new version to reflect the era of the pandemic Corona and continues. As such, in her works, rituals or festivals

1  
Henri Bergson, *Laughter-Poetry on the Meaning of Comedy*, translated by Yeon Bok Chung, Segesa Publishing, 2007 (1992), p.26.

are held about things that are easily lost and consumed. It also maintains a balance between life and art with the comedy that is seen in it.<sup>1</sup>

Then, why is the artist Hyeyoung Ku 'Tongjjwa'? She started using the name Tongjjwa after her *Naming Show* in 2018. The artist decided to change her name, which she had been called since childhood, and performed a name change performance in the form of a lottery broadcast. Like a lottery show, a ball with Hangul letters written on it is put into a transparent sphere, rotated, and the letters written in the order they came out were Tongjjwa. As avant-garde artists who pursued the unity of life and art, she actively adopted the methodology of chance, and as a result, she found a new name. She has since worked under the name Hyeyoung Ku or Tongjjwa.

## S#2 An Artist who encompasses film, art and literature

Youngnam Kim's biography is unique. He was an engineer who majored in computer science, so he decided to do art again, so he went back to college and studied video directing and video art. He was once immersed in theatre, and is also a film director with a splendid career, winning awards at world-renowned film festivals such as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Taipe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s first directing film, *Don't Look Back* (2006), won the International Criticism Award at the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directed the Korean-Japanese joint film, *No Boys No Cry* (2009), and has produced several screenplays. He not only appeared in dramas with artist Hyeyoung Ku, but also presented video and installation works such as *On His Disappearance* and *Hole in Reality* by implementing the themes covered in the film in an exhibition format. As much as she does her wide range of activities, he freely crosses the boundaries of her images, texts, and performances.

Youngnam Kim's art focuses on the world of dreams and the unconscious. This is also a theme that touches the surrealism of the last century, and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expressing modern people's feelings of anxiety and imperfect reality. Like the artists who used automatism as their main source of creation, he also keeps a notebook at his bedside, so he records his dreams and listens to other people's dreams in order to collect them. The dreams collected in this way became the subject of films such as *A Duck's Grin* (2018). The story of 15 dreams is contained in an omnibus format, which follows a situation that cannot be clearly explained about what a middle-aged man goes through while looking for his ex. Since 2015, this kind of surrealist film work has been developed.

When asked about the art that influenced such work, he was fascinated by the films of Spanish director Luis Buñuel (1900-1983) and the magical realism of the Argentine novelist Julio Cortázar (1914-1984). When watching a film directed by Youngnam Kim, the audienc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eaning of objects and colors in the film. It draws attention to the symbolism contained in the repeated appearance of umbrellas, balloons, and black. As a film director who majored in video art, he has the characteristic of delicately adjusting the poetic image and mise-en-scène that stimulates imagination. Most of all, listening to his story makes me think about the analogy between sleep and death. While Hyeyoung Ku's work deals with a world where life and death coexist like two sides of a coin, Youngnam Kim's work focuses on 'the footprints of countless images that overflow the threshold between awakening and sleep'<sup>2</sup>. This interest in images that transcend boundaries and reality can be seen as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 two artists.

2  
Walter Benjamin, *About the concept of history | For Criticism of Violence | Surrealism et al.*, Translated by Seong Man Choi, Gil Publishing, 2012 (2008), p. 145.



### S#3 'KUNAM', Purple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artists

There is a saying,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Going down the artistic path like a long marathon is sometimes lonely and tiring. Ideas and doubts circling in a person's head receive the energy of the person next to them and turn into conviction and practice, and while one person's prudence leads to hesitation and hesitancy, the other person's execution power comes into play. For example, the collaboration between an artist who wanted to work on video and a film director who longed for installation can complete a wonderful video installation. artist Hyeyoung Ku's driving force materializes artist Youngnam Kim's imagination, and artist Hyeyoung Ku splendidly returns as a vinyl queen and a priestess delivering a message of vitality and hope through director Youngnam Kim's directing skills. The art of 'KUNAM (Hyeyoung Ku×Youngnam Kim)' unfolds like a ping-pong game they sometimes enjoy.

KUNAM's first meeting dates back to 2004. It was in 2019 that they started working as a duo after walking their separate paths and maintaining a relationship from time to time. Although there was a collaboration for the exhibition *Confession of Tongjijwa*, the first full-scale collaboration can be said to be the short film *Umbrella and Shovel (Accidental Moment)* (2020). After that, *Vinyl Trilogy* such as *Vinyl Chronicle: Vinyl in the Forest* (2020) will be produced. *Umbrella and Shovel* is a work in which artist Hyeyoung Ku appears alone as part of her long-term project, *Daily Acting*. Various actions continue with the background music playing without lines or narration. Scenes of climbing stairs or sitting on a bench in the sunlight, Scenes of walking through a forest, finding and planting a seedling shovel and a plant with a red handle hanging from a tree, Scenes of waking up from sleep on the stairs and walking barefoot suddenly, Eating ice cream On the way, he finds an umbrella abandoned in an alleyway, unfolds it and takes it away, and finally, the act of hanging this red umbrella on a branch in

the forest continues. As the title suggests, the seedling shovel and umbrella appearing in the video are objects that evoke psychoanalytic implications,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clear clue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otagonist goes back and forth between his daily life and daydream without a narrative composition. As such, KUNAM's work shows the indistinguishable boundary between dream and reality. In the end, interpretation will be up to the viewer.

It is true that while writing this article, I checked various aspects of artist Hyeyoung Ku that I had not known well until now, but she still comes to me as a strong image of the sun, as I had before. If the color of her felt from her is close to red, the image of her as seen in Youngnam Kim's work is deep blue like the ending part of the movie "No Boys No Cry". Therefore, KUNAM, the union of the two artists, is purple. KUNAM's collaboration confirms the creative synergy created by the montage of the two art worlds that seem different but intersect. At the end of the interview for her manuscript work, Hyeyoung Ku said she wanted to live like René Magritte and Georgette Magritte. It will be a life in which art and fantasy, love and friendship harmonize together, crossing the blurry line between dream and reality. By sharing thoughts on boundaries and artistic imagination, KUNAM is not saying that what cannot be revealed transparently is our life.

## 오래된 미래 공간으로의 침입, 그 흔적의 기록: 나나와 펠릭스

조속현  
H ART LAB 1기 입주이론가

버려진 물건, 쓸모를 다한 공간, 오래되어 새로운 것에 밀려나는 구닥다리, 죽어가는 것들. 이런 존재들은 21세기 자본주의 도시 서울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추거나 숨겨야 할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언젠가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도 저렇게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이 차가운 도시를 밤낮으로 서성거린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반짝이고 영롱하기만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것들에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도시의 한 켠에는 언제나 '진짜' 삶이 꿈틀대는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것들에 머무는 예술가의 시선은 언제나 비평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언제나 더 빠르고, 더 강하며, 더 새로운 것들이다. 반면에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한다. 예술가의 독특하고 따뜻한 관심을 받은 미물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라는 명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다. 꽃을 꽃이라고 부를 때 비로소 꽃이 피어나는 김춘수의 시처럼 말이다. 나나와 펠릭스가 H ART SPACE에서 선보인 전시 <카메라,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2021)는 두 가지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진 전시이다. 나나와 펠릭스가 서울에서 수집한 버려진 액자와 사진이 하나의 결이다.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함이나 재활용센터에서 주워온 액자의 대부분은 비워져 있지만, 때로 그 안에 액자의 과거 사연이 딸려 오기도 한다. 종교 관련 문구와 그림, 가훈, 서예, 수묵화, 공예작품 등도 있지만, 놀랍게도 익명의 가족사진, 백일 및 돌 사진 등이 끼워진 상태로 버려진 액자도 있다. 나나와 펠릭스가 수집한 액자의 사연을 알고 난 뒤

부터, 무엇을 버릴 때마다 흠칫 망설여 질 때가 있다. 오늘 내가 버리는 이 물건들은 과연 버림받을 만큼 쓰임을 다했는가? 이 물건을 나중에 다시 찾거나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런 버려진 물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편 발견된 빈 액자에는 나나와 펠릭스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넣어 전시장의 다른 축을 완성한다. 나나와 펠릭스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과 다른 메트로폴리스를 오가며 서로를 비교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은, 그 속도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나나와 펠릭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밤의 풍경'이었다.

서울의 중심, 종로의 밤거리는 내게 방향하던 젊은 날들을 헌사한 장소였다.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고전 영화를 한 편 보고, 가장 저렴한 순댓국밥으로 고픈 배를 채우고, 친구 한 명 없이 종로의 보도블록을 사정없이 쏘다녔다. 그렇게 서성이다 어느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 취객들이 저질러 놓은 아름답지 못한 흔적들이 길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이 종로 구석구석에 자랑스럽게 걸린 'I Seoul U'와 부딪치면서 기이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목격하곤 했다. 때로는 서울의 소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와 함께 충돌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새벽 서너시 쯤이 되면 탱크처럼 큰 청소차가 대로는 물론 골목 구석구석까지 말끔하게 물청소를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도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귀빈이나 외국인들에게 민낯을 보여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듯했다. 나나와 펠릭스가 서울의 밤거리에서 포착한 풍경 또한 서울의 '공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의무처럼 밤 산책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징그럽고, 희한하며, 웃기는 풍경이다. 콘크리트 보도와 건물 벽을 비집고 올라



오는 풀떼기, 벽을 뚫고 나와 벽 안쪽의 삶을 증명하는 구불구불한 호스들과 기이한 형상들, 마치 쿵푸의 고수처럼 작은 틈 속을 비집고 주차해 놓은 자동차들, 첩첩산중처럼 겹쳐진 광고들의 두터운 마티에르와 그 속에서 미스터리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들. 이런 풍경들은 글로벌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의 눈에 특히 잘 띄는 풍경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풍경은 서울의 매끈하고 흠집 하나 없는 낮과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서울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이다. 서울의 삶이 언제나 새롭고 반짝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자생하는 삶의 흔적을 포착한 풍경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며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호반 H ART LAB 오픈 스튜디오에 맞춰 열린 전시는 호반그룹 2층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벌어졌다. 이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의 모습을 간직한 채 잠시 잠들어 있는 공간이었다. 2015년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해 있을 때부터 송도 신도시의 빠른 건설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들에게 모델하우스는 잠재적인 꿈의 전시 공간이었다.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분양과 동시에 쓰임을 다 하는 곳, 주거 공간이되 주거를 허용하지 않는 곳, 가장 새것이지만 이미 과거가 된,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그들은 시적인 울림을 발견하였다.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가장 선진적인 주거를 표방하는 이 공간 역시 누군가의 흔적은 남아 있다. 작은 네모로 잘려 나간 벽지 안쪽에 연필로 쓴 숫자와 기호들. 콘센트를 뜯어 내고 나자 드러난 전선과 피복들. 의도를 가늠하기 힘든 점선과 구멍들. 나나와 펠릭스는 이곳에 '수집된 버림'을 군데군데 비치하여 전시를 완성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오천 년의 역사" 등 아파트 브랜드가 내거는 슬로건도 서예 족자로 함께 전시되었다. 근대적인 스타일 속에서 외치는 신도시와 아파트 공화국의 슬로건은 나나와 펠릭스가 추구하고 발견하는 예술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또다시 기이한 이 도시의 풍경을 재현한다.

# Invasion into the Old Future Space, th Record of its Traces: Nana and Felix

Sookhyun Cho  
H ART LAB Critic

Abandoned objects, unused spaces, old bridges pushed aside by new ones, and dying things. Such beings are not only not welcomed very much in the capitalist city of Seoul in the 21st century, but also become objects to be hidden or concealed. Maybe one day my existence and my life will disappear quietly like that? This fear haunts this cold city day and night. But is our life always shining and shining? Of course not. In a corner of a city that quietly gives way to new things, there is always the other side of the 'real' life.

The gaze of an artist who stays on things marginalized in society always captures the hearts of critics. The values that ordinary people seek are always faster, stronger, and newer. On the other hand, artists value small and trivial things that people ignore. When an artist's unique and warm interest is reborn in the name of art, we can only put into practice the proposition of 'all living things are beautiful' at the social level. Just like in the poem written by Chun Soo Kim, where flowers bloom only when they call them flowers. The exhibition <Camera, Cigarette, Whiskey, and Our Heavenly Father>(2021) presented by Nana and Felix at H ART SPACE is a photographic exhibition with two textures. Abandoned frames and photos that Nana and Felix collected in Seoul are one texture. Most of the frames picked up from the recycling centers or the recycling centers in apartment complexes are empty, but sometimes the stories of the frames are attached to them. There are religious phrases and paintings, hymns, calligraphy, ink paintings, and craft works, but surprisingly, there are also

frames abandoned with anonymous family photos, hundred days and stone photos embedded in them. After learning the story of the picture frames that Nana and Felix have collected, there are times when I am hesitant whenever I throw something away. Are these things that I throw away today really used up enough to be thrown away? Will you find this item again or regret it later? Where the hell do these discarded items go? Meanwhile, in the found empty frame, photos taken by Nana and Felix are put in to complete the other axis of the exhibition hall. Nana and Felix have been traveling back and forth between Seoul and other metropolis for a long time to compare and explore each other. Seoul, which is changing at the fastest rate in the world, was surprising enough by its speed alone, but the place where Nana and Felice's eyes stayed was the 'Night Scenery'.

The night street of Jongno, the center of Seoul, was a place dedicated to my wandering youthful days. I watched a classic movie at Seoul Art Cinema, filled my hungry stomach with the cheapest sundae soup, and roamed the sidewalk blocks in Jongno without a single friend. When I came out of an alleyway after drinking alcohol, the unbeautiful traces of drunken people remained on the roadside, and the traces collided with 'I Seoul U' proudly hung in every corner of Jongno, forming a bizarre image. used to witness Sometimes the noise of Seoul collided with the song "You were born to be loved". Then, around three or four in the morning, there was a scene where a large tank-like cleaning truck was cleaning the streets and alleys with water. It seemed that the city was not yet ready to



show its true face to distinguished guests and foreigners visiting Seoul. The scenery Nana and Felix captured on the streets of Seoul at night is also far from the 'official' image of Seoul. What they discovered while walking at night like a duty was a gruesome, bizarre, and funny scene. Weeds creeping up the concrete sidewalks and the walls of buildings, strange serpentine shapes of hoses protruding through the walls as if proving life inside the walls, cars squeezing into small gaps like kungfu masters, the thick matiere of advertisements stacked thickly like bricks and the women smiling mysteriously in them... These landscapes may be particularly prominent in the eyes of artists living the lives of global nomads. In addition, this appearance contrasts with the smooth and flawless daytime scenery of Seoul. But paradoxically, Seoul is a more beautiful city at night than during the day. Life in Seoul is not always made up of new and shiny things, but because it is a landscape that captures the traces of a self-sustaining life, it is even more special and touching.

The exhibition held in line with the Hoban H ART LAB open studio was held at the model house located on the 2nd floor of Hoban Construction. This model house was a space where they slept for a while while preserving the appearance of an apartment that was sold out. The model house was a potential dream exhibition space for them, who witnessed the rapid construction process of Songdo New Town from the time they moved into Incheon Art Platform in 2015. They found a poetic reverberation in a surreal space that was never written, but is used at the same time as the sale of an apartment, a place that is a residential space but does not allow housing, and a surreal space that is the newest but has already become the past. Although no one lived, this space, which stands for the most advanced residence, also has traces of someone. Numbers and symbols written in pencil on the inside of the wallpaper cut out into small squares. When the outlet was ripped off, the wires and coverings were exposed. Dotted lines and holes whose intentions are difficult to determine. Nana

and Felix completed the exhibition by placing 'collected discards' here and there. The slogans of apartment brands such as "Where you live tells you" and "5,000 years of history" were also displayed with calligraphic scrolls. The slogan of a new city and apartment republic shouted out in a modern style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value of art pursued and discovered by Nana and Felix, and again reproduces the bizarre landscape of this city.

# 이장원: 미디어, 인덱스, 모듈로서의 태양

조속현  
H ART LAB 1기 입주이론가

## 1. MEDIA

시작은 미디어 아트이다. 이장원 작가의 작업은 매체 미술로 시작하여 뉴 미디어 아트로 발전되어 가는 새로운 아트 장르의 출범과 진화 과정과 맥락 안에 위치한다. 작가는 특히 백남준, 빌 비올라와 같은 초기 미디어 아티스트가 미디어를 다루는 방식과 형태에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sup>1</sup> 미디어 아트에서 아티스트가 '미디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아트의 철학과 감성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 작가가 기성 예술의 형식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왜 새로운 미디어를 선택하였는지, 그 미디어는 작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관객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관찰하면 의미 있는 비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장원 작가가 주목한 미디어는 '빛', 그리고 빛의 근원이 되는 '태양' 이다. 작가의 이야기는 태양 빛의 속성과 근원이 되는 파동과

입자에 대한 탐구, 그리고 태양 움직임의 알고리즘을 키네틱 아트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 2. SOLAR SYSTEM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이제 막 신화의 시대가 시작하였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해와 달이 뜨고 물이 차고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무렵, 무시무시한 용이 나타나 (혹은 늑대가) 해를 삼켜버렸다. 뒤이어 달을 그리고는 별들을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서는 어떠한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왕은 급히 저 포악한 용을 잡아 해와 달과 별들을 구하여 마침내 세상을 구할 용사를 모집하였다. 무수한 용사들이 용과 싸움을 벌였지만 수백 수천가지 모습으로 변신할 줄 아는 용과 대적하여 어느 누구도 용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공포에 떨며 실패하였다. 물론 반신인 즉 인간과 신 사이에 태어난 영웅이 등장하여 그 용을 잡아 죽이고 배를 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제자리에 돌려 놓았다. 그리하여 세상은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제 이 영웅에 의해 새롭게 이해된 우주의 운행과 자연사물의 실체가 드러난다."<sup>2</sup>

김노암 평론가가 2005년 작가의 개인전 서문에서 언급한 이 오래된 이야기는 태양이 사라져 버린 세상(디스토피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역으로 태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낭만적이고 신화적인 이 전래동화가 언급되는 이유는 작가가 태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외심

1 미디어 아트(media art)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회화나 설치 조각 등 '전통적인' 재료와 방식을 사용하는 예술과 구분된다. 초창기 미디어 아트는 주로 대중 매체(책, 영화, 잡지, 신문, 만화, 포스터,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를 예술에 도입한 형태를 일컬었으며, 주로 대중 매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후 뉴 미디어 아트(new media art)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두루 활용한 예술로 발전하였으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창작 및 표현 과정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예술 작품 및 그 창작 행위'로 규정되는 디지털 아트(digital art)와도 혼용되어 사용된다. 마이클 러시(Michael Rush, 1999)는 디지털 아트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컴퓨터 아트, 디지털 변형 사진, 웹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가상현실). 이장원 작가의 작업은 컴퓨터와 과학지식,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뉴 미디어 아트로 장르 규정될 수 있지만, 기초 과학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르 규정에만 종속되지 않는 흥미로운 지점을 가지고 있다.

2 김노암 전시 서문 〈프로토콜 : 이장원 뉴미디어 설치〉(2005, 스페이스 셀) 중 도입부 발췌.



내지는 추격 논지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지구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태양 에너지와 움직임의 엄격한 질서를 알고리즘으로 치환하여 작업화한다. 언제나 태양을 쫓는 〈SunTracer〉는 1년 365일 24시간 태양을 바라보며 관측하고 방송하는 기계이다. 〈Sun Sculpture〉는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와 위치를 알고리즘화하여 태양의 위치를 가리키는 매우 느린 움직임이 부여된 키네틱 아트이다. 여기에는 태양을 미디어 아트의 대주제로 선택한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는데, 작가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망각되는 절대 존재인 '태양'의 실상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3. INDEX**

인덱스(index)의 사전적 정의는 색인, 또는 목록이며,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그 데이터의 이름과 크기 등의 속성과 그 기록 장소 등을 표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덱스는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를 증거하며, 가장 실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자 데이터이다. 그러므로 인덱스는 가장 실재적이지도 비실재이다. 인덱스의 이런 속성은 이장원 작가가 '망각된 태양'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가령 예를 들어 〈Sun Sculpture〉의 경우 태양의 존재를 가장 망각하기 쉬운 지하 공간에서도 언제나 인덱스에 의거하여 태양의 위치를 가리키는 작업이다. 이장원의 작업에서 인덱스는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개인 예술가가 선보일 수 있는 아트 테크놀로지를 실현한다.

〈SunTracer〉에서 보여주는 지칭성과 미니멀 조각으로서의 트러스 구조 등은 작가의 미감을 엿볼 수 있게 하며, 프로토콜과 알고리즘, 모듈을 작업의 구조로 사용한 것은 테크놀로지의 실현을 입증한다. 하지만 일부 아트 테크놀로지 작업들이 보여주는 단순한 '코딩'의 한계를 벗어나 때로 서정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묻어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제로원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천장을 뚫은 조각 작업 등은 "이 위를 쳐다보면 태양이 보인다" 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극명하게 압축 단순화하였고, 〈월슨〉 작업은 '매일 망각하지만 언제나 존재하는' 절대 존재에 관한 의인화를 작업으로 가져온 사례이다.

**4. IRIS**

2021 호반그룹 창작 스튜디오 H ART LAB에서 선보이는 이장원 작가의 작업 〈Smart Iris〉 역시 태양에 모티브를 받은 작품으로, 태양 광선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형식을 띤다. 모듈형 태양 조리개가 열로, 행으로 설치된다. 태양 광선의 세기에 따라 아이리스는 조리개를 폼다가 오므린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 작업은 태양을 바라보다 그을린 색을 띠고 있다. 이장원 작가의 가장 근작인 이 작업은 '태양을 쫓는 사람'이 시도하는 또 하나의 변형된 뉴 미디어 아티이자, 흥미로운 인터랙티브 작업이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와 비평 작업 과정 속에서 비평가로서 가장 매력과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이것이다 :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열망하고 망각을 거부하는 작가의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작업실에서, 차에서, 작업이 설치된 공간에서, 작가와 작업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한결같은 태양의 차갑고 뜨겁고 정확한 움직임을 지칭한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한단 말인가?

# Jangwon Lee : Media, Index, the Sun as a Module

Sookhyun Cho  
H ART LAB Critic

**1. MEDIA**

The beginning is media art. Jangwon Lee's work is located within the context and process of initiation and evolution of a new art genre that begins as media art and develops into new media art. This artist is said to have been particularly inspired by the way and form of media handled by early media artists such as Nam Jun Baek and Bill Viola.<sup>1</sup> The philosophy and sensibility of media art is largely determined by how an artist interprets 'media' in media art. I believe that it will lead to meaningful criticism by observing why the artist chose a new medium rather than following the format and method of established art, what that medium means to the artist and how it

is interpreted to the audience. The media that Lee paid attention to is 'light' and the 'sun' that is the source of light. The artist's story is connected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sun's light and the waves and particles that are the source, and the work that connects the algorithm of the sun's movement with kinetic art.

**2. SOLAR SYSTEM**

"There is an old story. The age of mythology has just begun. When the heavens and the earth parted, the sun and the moon rose, the waters filled, and people, animals, and plants began to shape each other's world, a fearsome dragon (or wolf) appeared and devoured the sun. It was followed by drawing the moon and eating the stars. The world was enveloped in pitch-black darkness, unable to create any new life. As the end of the world approached, the king of men hurriedly killed the ferocious dragon to save the sun, moon and stars, and finally recruited a warrior to save the world. Countless warriors fought with the dragon, but they fought against the dragon who could transform into hundreds of thousands of shapes, and failed with fear that no one could see the shape of the dragon. Of course, a demigod, a hero born between a human and a god, appeared, slaughtered the dragon, and split the ship to return the sun, moon, and stars to their place. Thus, the world overcomes the crisis and opens a new era. Now,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the reality of natural things are revealed by this hero."<sup>2</sup>

This old story, mentioned by critic Noh Am Kim in the preface to the artist's solo exhibition in 2005, inversely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the sun in that

<sup>1</sup> Media art has developed in earnest since the 1970s, and is distinguished from art that uses 'traditional' materials and methods, such as paintings and installation sculptures. In the early days, media art mainly referred to the form of introducing mass media (books, movies, magazines, newspapers, cartoons, posters, television, video, computers, etc.) . Since then, new media art has developed into art that utilizes digital technology throughout, and digital art is defined as 'art works that utilize digital technology as a key element in the creation and expression process and their creation'. ) is also used interchangeably. Michael Rush (1999) classified digital art into five major categories (computer art, digital transformation photography, web art, interactive art, and virtual reality). Jangwon Lee's work can be defined as a genre of new media art in that it utilizes technologies such as computers, scientific knowledge, and algorithms, but has an interesting point in that it does not depend only on genre regulation in that it utilizes basic scientific knowledge.



it raises awareness of the world where the sun has disappeared (dystopia). The reason this romantic and mythical fairy tale is mentioned is probably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artist's awe or pursuit of the sun. The artist replaces the solar energy, the source of Earth's energy, and the strict order of movement with an algorithm to make it work. <Sun Tracer>, which always follows the sun, is a machine that observes and broadcasts while looking at the sun 24 hours a day, 365 days a year. <Sun Sculpture> is kinetic art with very slow movements that indicate the position of the sun by algorithmizing the speed and position of the sun's movement. This includes the artist's intention to choose the sun as the main theme of media art, and the artist constantly reminds us of the reality of the 'sun', an absolute existence that exists anytime and anywhere but is easily forgotten in people's minds.

**3. INDEX**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index is an ordered list, and it means "when data is recorded, attributes such as the name and size of the data and the recording location are displayed in a table". Indexes are not real, but they testify to reality, and are records and data that can best understand reality. Therefore, the index is the most real and unreal. This property of the index serves as an important clue that Jangwon Lee reminds of the existence of the 'forgotten sun'. For example, in the case of <Sun Sculpture>, even in the underground space where the existence of the sun is most easily forgotten, it is a work that always points to the position of the sun based on an index. In Lee's work, the index realizes art technology that individual artists can exhibit beyond a simple record. The referentiality and truss structure as a minimal piece of art shown in <Sun Tracer> give a glimpse into the artist's aesthetic

sense, and the use of protocols, algorithms, and modules as the structure of the work proves the realization of technology. However, beyond the limits of simple 'coding' shown by some art technology works, lyrical and analog sensibility is sometimes embedded. The sculpture work through the ceiling at Hyundai Motor Company's Zero One Festival dramatically compressed and simplified the artist's message, "If you look up, you can see the sun," and the <Wilson> is an example of bringing the personification of an absolute existence that 'everyday is forgotten but always exists'.

**4. IRIS**  
Jangwon Lee's work <Smart Iris>, presented at the 2021 Hoban group creative studio H ART LAB, is also a work inspired by the sun and takes the form of interactive art that responds to the sun's rays and the movement of passersby. Modular solar apertures are installed in columns and row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the sun's rays, the iris opens and closes. This work, made of brass, has a tan color as it faces the sun. This work, Lee's most recent work, is another modified new media art attempted by 'The Sun Chaser' and an interesting interactive work. However, in this interview and the critique process, the point I find most attractive and interesting as a critic is this: Where does the artist's longing for objects that are invisible but always present and refusing to forget them come from? In the studio, in the car, in the space where the work is installed, the artist and his works always and consistently refer to the cold, hot, and precise movement of the sun. What kind of psychology does this come from?

**2**  
An excerpt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preface written by Noh Am Kim <Protocol: Jangwon Lee's New Media Installation> (2005, Space Cell).

# 니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 박혜수 : 어디서 다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조재연  
H ART LAB 1기 입주이론가

**1**  
어찌할 수 없는 갈라섬을 이별(離別)이라 말하고 제힘으로 갈라섬을 비로소 작별(作別)이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구의 것이 아니길 바랐던 이 '별'의 일을 두 번이나 해야 했다. 전자의 별이 노도처럼 존재를 제 마음대로 어디든 도착하지 못하도록 휘젓는 일이라면, 후자의 별은 그 출렁임에 대한, 허우적거림에 대한 인정과 선택 그리고 결단의 일. 그렇다면 이 별이 존재에게 준 책무는 사실 어딘가 도달하거나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이다지도 파도를 만드는 일인 것은 아닐까. 많은 날을 다 보내고 그 많은 날 보내고, 그제서야 깨달은 것은 내게 당신을 보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만큼 보내고도 여전히 남을 정도로 내게 당신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 지워질 것뿐 아니라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만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영원? 그렇게 감상적인 단어가 세상에 남아있을 리가, 하고 의심했던 자리에 이별로써 못 믿을 것이, 작별로써 다시 믿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나 사랑은 제 갈 길로 갔지만, 영원만은 이 자리에 남아 있어라. 사랑을 고백하는 문장이 '너(만)'라는 개별성에서 필연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원'과—당신과 나의 마음이 같다거나 우리가 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점에서—'보편'의 개념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면, 반대로 이별이란 영원과 보편에 대한 불화 더 나아가 적대의 사건일 테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말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관계는 없다'는 유능한 학자의 말처럼, 더는 영원한 것과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재 증명에 이별은 헌신한다. 그러나 이별이 작별로 점철될 때 존재의 감옥을 출소하려

했던 영원과 보편은 다시 종신형을 언도받는다. 작별엔 모든 것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모든 것이 더없이 존재하고 만다. 사랑에서 무언갈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영원'이란 낱말은, 이제 작별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종사한다. '너(만)'라는 구체(具體)에서 필연적으로 시작된 사랑은, 이제 '너'가 없으므로 오직 추상(抽象)에서, 보편에서 응고된다. 그 찰나, 작별은 너무 낯설어 사랑과 사무치게 닮아있다.

**2**  
이별이 작별이 되는 때, 그러니까 영원과 보편이 잠시 숨을 죽였다가 다시 피어나는 사이. 박혜수가 기획한 헤어질 때 하는 말 시리즈에서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다. 그 맨 처음의 시간에 『헤어질 때 하는 말』(2021)이 있다. 그는 굿바이 투 러브 (2013-)를 진행하며 설문 실연수집 을 통해 관객들의 실연 사연과 옛 연인이 남긴 물품을 수집했다. 이후 2021년에 설문 헤어질 때 하는 말로 이별 시 연인에게 건넨(받은) 말들을 추가로 모았고, 직접 적은 에세이와 임형태가 촬영한 옛 연인의 물품 사진을 더해 책으로 엮었다. 작가는 여기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상처받을 마음이 있는가?'/그렇다면... 사랑은 당신의 몫이다." (11쪽) 덕분에 <어디서 다시 무엇이 되어 만나랴> (2021)를 끌고 갈 마음의 정체를 알았다. 이 작품에는 앞선 말에 응답하듯 "맛아도 혼자보다 나아"라는 글귀가 빼곡히 채워져 있다. 그 마음은 기꺼이 자멸을 선택한 마음이다.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에서 얻은 문장은 분명 그렇게 읽힌다.  
영화 속 마츠코에게 사랑은 늘 불행과 한 몸이 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한평생 사랑을 갈구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는 순간에도



# I Still Go on without You

## Hyesoo Park: What Will We Become and Where Will We Meet Again

Jaeyeon Cho  
HART LAB Critic

### 1

If we call Separation, which we can't help it, a farewell, and if we say goodbye to Separation with our own strength, we had to do the work of this 'Dividing' twice, which we always wished was not of the Earth. While the former word of farewell stirs existence to prevent it from arriving anywhere at will, like a roar, the word of the latter, the start, spurred recognition, choice, and decision about the turmoil and struggles. Then, perhaps the responsibility this star gave to beings is not to reach or have to reach somewhere, but rather to create these waves. After all these many days and so many of you, what I finally realized is not that I have the power to send you away, but that there are so many of you that I still have enough to leave even after I have sent you all away. Therefore, from the fact that there are things that cannot only be erased but will never be erased, a certain kind of belief is bound to arise. Eternity? In the place where people think that such a sentimental word may not exist in the world anymore, events that would be unbelievable as parting, and again believed as farewell, occur. In this way, love has gone its way, but You remain here, my eternal.

Even though the sentence to confess love inevitably begins with the individuality of 'you (only you)', if you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concepts of 'eternity'—in the sense that you and I have the same heart, or that the love we share is 'that' love that the world knows in common—and 'universal', on the contrary, parting is not only a relationship of discord between eternity and universality, but also Furthermore, it will be an adversarial relationship. Even though we had to keep silence when we say, 'How can possibly love change,' and

as a competent scholar says, 'There is no sex', parting devotes itself even in the midst of saying that there is no longer anything eternal and universal. However, Eternal and Universal, which tried to escape from the prison of existence when parting is littered with farewells, are again sentenced to life in the prison. Saying farewell does not leave everything behind, but everything that remains exists perfectly. The word 'eternity', which was used to preserve something for the sake of love, now engages in parting with something immortalized 'forever'. Love, which began inevitably on the concreteness of 'you (only you)', now solidifies only in abstraction and universality, since there is no 'you'. At that moment, farewell feels so unfamiliar that it resembles love terribly.

### 2

When parting becomes farewell, that i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eternity and universality, where they hold their breath for a while and then bloom again. It is such a time to be together in the Word to Say When Parting series curated by Hyesoo Park. At the very beginning, there is "Word to Say When Parting," (2021). He conducted Goodbye to Love (2013-) and collected the stories of the audience and the items left by ex-lovers through the survey Breakup Collections . Afterwards, in 2021, he collected additional words handed to (or received) from lovers when they parted with a survey Words to Say When Parting , and compiled an essay with photos of the ex-lovers' items taken by Hyung Tae Lim. The author wrote here: "'Are you willing to be hurt for someone's sake?'/ 'If that's the case... love is your responsibility.'" (p. 11), thanks to his work, I found out the identity of the

"맞아도 혼자보다 나아"라고 되뇌었고, 한 이별이 영원과 보편을 의심케 한대도 그는 이별을 굳이 작별의 형태로 접었다. 혐오스런 마초코를 결국 미워할 수 없다면 그에게서 우리가 기꺼이 상처받을 마음을 발견한 까닭이리라. 사랑에는, 물론 그린 그림이 조명 아래서 빛나다가 외려 그 조명의 누적 때문에 사라지듯, 언젠가 사랑의 누적을 말미암아 누군가 떠나리라는 예감이 있고, 그 떠남이 상처가 될 것이라는 이치가 존재한다. 그 이치를 모른 척할 뿐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사실 존재가 승인한 것은 상처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꼭 그에게 받겠다는 결단이었다. 박혜수는 설문 답변지로 종이학을 접은 뒤 다시 피고는 그것을 불도장으로 태웠다. 작별. 사랑하며 살겠다는 말이—사랑과—함께 죽겠다는 말로 변하거나 두 말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 그것들과 마주치는 눈길은 어찌 이리 먹먹한 먹빛이 아닐 수 없다.

예감되고 이치로 쓰인 상처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랑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영원과 보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별. 이것이 자학인지 자학인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작업은 그것이 '멍의 일'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다. 그런 한에서 작품은 폭력을 망각한 결핍 혹은 중독과는 거리를 둔다. 관계가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일인지는 이 거대하게 늘어붙은 채로서의 멍이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만 알기에는, 멍은 화면을 모조리 채우지 못했다. 멍은 흔적과 추억 그리고 감정까지 모조리 태울 것처럼 모든 화면에서 일어나지만, 단 하나의 문장만은 태우지 못한(않은) 채 남겨 놓았기에, 아뿔싸 우리는 그 하얀 틈 사이로 잃지 않고 돌아온 영원을 읽게 된다. 아니 차라리 그것은 사랑으로 인해 종이가 접히고 퍼지는 동안 그리고 이별로 몸 전체를 그을리는 사이, 행간으로서 거기에 처음부터 있었다. 다만 다른 모든 것이 소거되는 동안 지워지지 않음으로써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치를 작가도 우리도 수습하려 들 수 없다. 오히려 그 상황이 '영원'이기만을 바랄밖에. 목련과 도화가 각각 존재할 때 그것을 두 개라고 셈할 수 없는 이유는, 개수가 개별성으로는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목련끼리의 셈과 도화 간의 셈만이 가능하듯 개수는 오로지 동일성만으로 이룩된다. 따라서 박혜수가 모은 실연 사연 속 이별은 몇 개의 이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이별이 몇 개씩이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이별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작가는 이별이 아니라 작별을 말할 수밖에. 작별의 시점에서 '너'라는 개별자를 비로소 잃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작품의 모든 사연이 등을 돌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편이 회귀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과 나의 마음이 같았다거나 우리가 했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통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보편은 이별에 의해 배면(背面)으로 향했지만, 개별자(나)란 없는 것처럼 닥칠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너'가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사랑만을 받아들이는 추상으로의 보편은 작별로써 정면에 나선다. 이리 들어가며 그렇게도 살아지긴 하는가 내내 물을 테지만, 너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 3

이별이 존재에게 준 책무가 묶였다가 풀리는 매듭과 같은 파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이 리듬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가까스로 생을 도모하는 것과 같을 테다. 헤어질 때 하는 말 의 표면이 가진 주름과 굴곡들이 때때로 너울 같아 은결이 반짝이는 밤바다처럼 보이는 것은, 그의 모양만이 아니라 멀리서 달을 경유해 오는 빛과 그리고 마침내 온 수면을 물들이며 떠오를 장래의 빛더미를 담지하는 까닭이다. 그만 저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러다 사라진 그대처럼 함께 무너지고 싶을 때를 무릅쓰고 그저 존재하는 것을 벗어나 살아내겠다고 고통을 작심한 존재에게 늘 '아름다움'이란 낱말을 쓰고 싶었다. '아름다움'에 패한 무늬로 잠시 가없다가도 오랫동안 사랑스러울 우리. 그 무늬로 박혜수는 헤어짐을 지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자신들이 아끼는 무언가, 본모습을 보여줄"(158쪽) 순간을 만남도 황홀의 시기도 아닌 실연의 시기에서 찾았다. 나를 고백하고 싶어 나는 이제 서야 작별을 하고 있다. 이별이 작별이 될 때.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넣자. 작별이 작품이 될 때.

#### 참조

김수영, 「너를 잃고」, 『꽃잎』, 민음사, 2019  
박혜수, 『헤어질 때 하는 말』, 갖고싶은책, 2021  
신형철, 「이렇게 헤어짐을 짓는다」,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18  
심보선, 「이 별의 일」, 『눈앞에 없는 사람』, 문학과지성사, 2011



heart that will lead <What Will We Become and Where Will We Meet Again>(2021). As if in response to the previous words, this work is filled with the phrases, "It is better to be beaten than to be alone". That heart must have been willing to choose self-destruction. A line from the movie Memories of Matsuko definitely came to me like that. For Matsuko in the movie, love has always been one with misfortune, but nevertheless, she longed for love for the rest of her life. Even in moments of suffering from abuse from her loved one, she repeated, "It's better to be beaten than to be alone", and even though parting casts doubt on eternity and universality, she dares to fold it in the form of farewell. If we can't end up hating her abhorrent Matsuko, it's probably because in her, we find a willingness to be hurt. Just as a picture painted with water shines under the light and the shining soon disappears as the light accumulates, love also has a premonition that someone will leave because of the accumulation of love, and there is a reason that the leave will hurt. We pretend that we do not know this principle, but everyone is well aware of this fact. So, in fact, what the existence approved was not that we would not be hurt, but that we would surely receive it from our loving ones. After Hyesoo Park folded the paper crane with her questionnaire answer paper, she unfolded it and burned it with a fire stamp. Farewell. There are moments when the word to live with love turns into death—with love—or the point in time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ords is no longer felt. The eyes that meet those moments seem like a color of ink that is so heartbreaking.

A love that is willing to choose the wounds created by premonition and reason, and a farewell that puts eternity and universals back in their place to make it possible. You will not know whether this is self-righteousness or sadism. However, he only knows that work is 'making a bruise of the heart'. In that sense, the work distances itself from the lack of or addiction that has forgotten violence. How cruel a relationship can be is attested by the bruises of these massive charred ashes. Nevertheless, as far as knowing one thing, the bruises couldn't fill the entire screen. Bruising occurs on every screen as if

it will burn traces, memories, and emotions, but only one sentence is left unburned. Rather, it was there from the beginning as an interline, while the paper was folded and unfolded for love and the whole body scorched with parting. It is only revealed at the end by remaining there while everything else is being erased. Neither the artist nor us try to rectify this confrontation. Rather, we can only hope that the situation is 'eternity'.

The reason that magnolia and peach blossoms cannot be counted as two when each exists is because the number cannot be individually counted. Just as it is possible to count only the number of magnolias or only the number of drawings, the number is achieved only through identity. Therefore, the breakup in the breakup story collected by Hyesoo Park is not about how many breakups exist, but how many different breakups exist. So we cannot say goodbye to others. Therefore, the artist has no choice but to say farewell, not farewell. When we finally decide to lose the individual 'you' at the point of parting, we see the universal return as if all the stories in the work turned their backs and revealed themselves in one sentence. The universal love that you and I had the same or that the love we had had in common with all the people in the world was turned to the back by the breakup, but as if there was no individual (myself), we endured all the pain that might come, 'The universal as an abstraction that accepts only love for love, a love in which you don't exist, comes to the fore as a farewell. People will always ask, 'Am I even alive that way?', but I still go on without you.

3

If this dividing's duty to being was to create waves like knots that are tied and untied, then this rhythm would be like all living beings barely trying to come to life. The wrinkles and curves on the surface of Words to Say When Parting are sometimes swells and look like a silvery night sea. It is because it senses the future light. I always wanted to use the word 'beauty' for a being who was determined to suffer pain to escape from what it is, despite the risk that there will be times when the person wants to let go of oneself and want to collapse together

like you who disappeared. We were pitiful for a while because of the pattern we lost to 'beauty', but we will be lovable for a long time. Hyesoo Park built parting with that pattern. So, she found the moment "if possible, show them something they cherish, what they are" (p. 158), not in a time of meeting or ecstasy, but in a time of broken heart. Because I want to confess to myself, I am only now saying goodbye. When parting becomes farewell And let's add one more here. When farewell becomes a work of art.

**References**  
Soo Young Kim, 『After Losing You』, 『Floral Leaf』, Minumsa, 2019  
Hyesoo Park, 『Words to Say When Parting』, Gatgosipeunchak, 2021  
Hyun Cheol Shin, 『I Build Goodbye Like This』, 『Falling Etika』, Munhakdongne Publishing, 2018  
Bo Seon Shim, 『Work of This Star』, 『Person Out of My Sight』, Munji Publishing, 2011



# 형식, 비약의 건조물 : 이여운 작가론

조재연  
HART LAB 1기 입주이론가

## 1

물 위로 난 흰 이빨 자욱, 부풀어 오르는 비눗방울, 밤하늘의 검은 결, 유리의 거미줄. 달빛인지 햇빛 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저 여울지 못한 창백한 조명 아래, 여윈 너의 팔과 다리를 비유할 날말을 발음해 본다. 분명 획 하나를 제외한 모든 면에 얹힌 거대한 무게를 생략해 버린 당신은, 이 순간 가장 얇고 얇다. 나는 횡행한 없는 것들을 모아 부르고 싶어졌다가, 쉽게 '폐허'를 모색하는 감동에는 어떤 상투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서 풍경의 부재는 새삼스럽게 죽어가는 것,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밀려가는 것일까. '부재'와 '폐허'. 나는 이런 감정과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조금 노려본다.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인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 대해서 이 순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폐허라 말하지 않겠다. 하늘을 그리지 않아도 형상만으로 빛이 있음을 알고, 다음 장면을 볼 수 없으면서도 그림자로 시간이 줄어드는 줄 알며, 길을 그리지 않아도 문이 존재하므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맵소사 나는 무엇이든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 2

생이란 의외로 진공 속에 있지 않은 까닭에, 이야기 되는 모든 것들은 늘 어떤 배경 위로 혹은 관계 속에서 결부된 채로만 비친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을 제공해 나가면서 그날 어떤 색의 양말을 신었는지 결국 망각하게 만들었지만, 작품이라면 그 진공을 다시 채워 넣는다. 해가 기운을 알리도록 흰빛에서 붉게 물들여가는 하늘,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낚은 것이 내는 마찰음, 흔들리는 타일의 먼지 그리고 구겨진 셔츠의 주름. 우리가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본질기만을 착실하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작품은 어떤 틈마다 '탈선적 객담'을

고집스럽도록 길게 늘어놓아야 한다. 어떤 대상은 물론, 그 대상을 둘러싼 모든 것의 열매마저 달다며 알뜰히 맛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주변'은 생의 유창함과 비옥함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따라서 삶이란 외따로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길을 돌릴만한 풍경, 맥락 그리고 사회 속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이 있노라고 느끼게 한다. 풍경화가 아닌 곳에서도 대상과 함께 흔들리는 풍경이 존재하고 마는 것에는 그런 연유가 있다.

그러나 이여운이 그린 대상 뒤에는 풍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면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대상만이 존재한다는 듯, 사물과 사건의 외양을 시시콜콜 따지고 묘사하는 의욕이란 작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전혀 다른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상의 생이 세계와 함께 흔들린다거나, 대상의 내면을 유장한 배경과 결부시켜 보는 시도는 감히 해볼 수 없다. 마치 성경에서 야훼가 "아브라함!" 이라고 외치자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라며 어떤 경과도 없는 답이 격발되듯, 우리는 이여운의 대상에게 어디에 언제 위치하고 있는지, 대답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려 이 '비약' 사이로 모든 것은 모두 회귀하고 만다. 핀 조명으로 밝혀진 하나의 건물 외에는 전부 진공이고 여백일 그곳에, 이제껏 작품들이 풍경을 묘사해 왔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인 것이 있으며, 보는 이라면 그것을 두고 하염없이 침잠해야 한다는 암시에 도달한다. 이 비약하는 과소 정보의 필치가 그리웠던 모든 세계를 가능하게 만든다.

창덕궁, 덕수궁, 적감루, 오페라 가르니에, 통일궁, 대한의원 등 이여운의 그림에는 서사와 배경이 교접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허락되지 않을 역사적인 건조물이, 서사와 배경 없이 독자적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경험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시작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시간을 거쳐 틈 사이로 올라온 이끼도, 주름도, 균열도 모두 마다한 채로, 심지어 때때로 재현된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마저 부정하고는 화면에 첫 표정을 오롯이 짓는다. 건축에 동원되는 여러 부자재를 포함하는 질료들은 설계라는 형상이 주문하는 필연적인 의도의 결과물이다. 그것이 전통에 의해서 구축되든, 날씨와 토양과 같은 환경에서 비롯되든, 건축가의 개념적인 이상에서 종용되든, 건조물에 포함된 어느 것 하나 자유를 구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명령에 따르는 충실한 '비복(婢僕)'이다. 그러나 주위가 대상 결로부터 물러나자 그들은 명령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시간마저 처음으로 옮겨진 때에 그들은 어떤 경과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자유를 구가해왔던 것처럼 활개 친다.

창덕궁 인정전의 처마 길이는 건조물의 재료가 목조인 까닭에,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조정된다. 한편 처마 끝 추녀의 기울기는 행여나 젖은 목조가 썩지 않도록 햇빛을 잘 받아들이도록 조각된다. 어떤 이는 황금비에 부합하는 그 곡선이 '미\*'를 조성한다고 여기지만 아름다움은 명령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작가가 그린 창덕궁 인정전(2021)에는 애초에 하늘이 존재하지 않아 그것을 짓게 할 구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 건조물은 위도와 경도를, 그러니까 장소를 갖지 않는다. 어떤 주변도 갖지 않는 그는 목적을 위한 종사와 배경에 대한 적응 없는 '처음'을 최초로 드러낸다. 그는 주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변을 조성해낸다. 빛이 그의 그림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이 만들어낸 그림자로 빛이 존재함을 깨닫게 만들고, 따라서 시간이 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길이 그에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안에 문이 있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화면엔 없는 것뿐이지만 없는 것이 있다고, 우린 비약할 수밖에 없다.

2021년 근작 중에서 위엄의 형태 연작을 제외하면 <국립대만문학관>, <하노이 오페라하우스> 등 건물의 이름을 그대로 딴 작품명에서, 작가의 발언을 확인하는 것 혹은 작품의 내용이라고 여길 만한 속성을 감지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목도 화면도 어느 이야기도 담지 않은 작품은 외려 내용이 아닌 '형식'에 대한 독해를 경유하도록 요구

해낸다.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에서 주체의 주체 다음, 즉 '주체성'을 만드는 조건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사물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주변의 배경까지도 주체의 분위기에서 연역해 나가는 해석의 주도권이 그에게 있을 때 화면에서 주체는 특정된다. 그러나 그렇게 성립된 주체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점이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는 시원始原이란 시간을 상대하지는 못한다는 것에 있다. 자유로운 선택은 언제나 주어진 선택지에 대한 선택으로 마련돼 있다. 그는 어느 순간에 개입할 뿐, 그 '어느 순간'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여운의 작품에서 건조물은 비약으로 만들어질 사물과 배경을 스스로 만듦으로써 주체의 급진적인 전거를 확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진실'에 관한 태도이기도 하다. 예술이 삶이 진실에 베이는 어떤 순간에 관한 것이라면, 그때 작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과 혹은 '진실을 말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것 중 하나의 미학적 태도를 선택하게 된다. 전자는 거짓과 싸우는 투쟁으로서 가치를 갖지만, 후자는 진실이 —돌아와— 거주할 구조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가치를 지닌다. 작품은 표현으로써 거짓과 대결할 수도 있지만, 표현으로부터 훼손될 진실을 은닉할 수도 있다. 이여운의 작품이 지니는 형식은 후자에 헌신한다. 그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은닉할 장소로서 건조물을 그렸다. 그의 작품 앞에선 어떤 것도 확신할 없이, 어떤 내용으로 응집되는 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예감하거나 암시하는 것 사이에서 '비약'으로만 어떤 주제에 접근했다가, 의심하며 후퇴를 반복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도달하기보다 영원히 무엇가를 통과하며 걷게 될 형식, 귀향 불과의 형식이다. 작가가 그린 무색, 무형의 길은 오로지 그런 목적지만을 설명하게 한다.

## 3

초상화에요. 한 채의 건물 말고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화면을 두고 이여운은 그렇게 말했다. 한 명의 얼굴이 이다지도 확으로만 가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눈과 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보다, 무엇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건조물이 무언가를 경청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무언가를 뵈려면 인간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란 사실을



응시해 보고 있다. 그가 내게로 올 수는 없지만 그는 문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에게로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줄거리로부터 벗어난 몸은 처음으로 기능도 어떤 목적에 종사하는 길들임도 없이 막 태어난 표정으로, 나의 응시와 동시에 나를 주시한다. 이어운의 건물은 그것의 '실재'와 상관없이—혹은 그것을 거슬러—탄생한 그대로로 화면에 그려진다. 그를 세운 역사도, 인물도, 심지어 자본마저도 잊은 채로 선명한 첫 얼굴. 어느 것에도 기탁하지 않고 원인도 배경도 없이 오롯함을 내보일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실존이 지닌 꿈이란 사실 그런 것은 아닐까.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채로, 홀로 몸서리쳤다. 그러니 여기에 남은 무언가는 초상일 수밖에.

**참조**

권희철, 『형식, 혹은 텍스트의 무의식』, 『문학동네』 94호, 문학동네, 2018, pp.1-10

신형철, 『시는 어디로 향하는가』, 『느낌의 공동체』, 문학동네, 2011, pp.15-20

진은영, 『있다』, 『흠쳐가는 노래』, 창비, 2012, pp.8-9

# Form, the Building of the Leap: the Story of Artist on Yuwoon Lee

Sookhyun Cho  
H ART LAB Critic

**1**

White tooth marks on the water, bubbles blowing up, black grain in the night sky, spider webs on glass. Try pronouncing words that can be compared to your skinny arms and legs under the pale, dull lighting tha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moonlight or sunlight. Obviously, you are the thinnest at this moment, having omitted the huge weight entangled in all sides except for one stroke. I want to collect and sing the things that have not been rampant, but I come to think that there is a certain cliché in the emotion of searching for 'ruins' easily. Why is the absence of the landscape being pushed back to the beauty of dying and disappearing? 'absence' and 'desolation'. I stare a little at the words for these feelings and attitudes. There are times when I can only say no. But I can only say about you that there is this moment. I won't say it's ruins. Even if you don't draw the sky, you know that there is light only with the shape, you can't see the next scene, but you know that the shadows reduce time. God, I think I can meet anything in this place.

**2**

Since life is unexpectedly not in a vacuum, everything that is told is always reflected only in connection with some background or relationship. Our memories eventually made us forget what color socks we wore that day as we squared time, but if it is a work, we fill that vacuum again. The sky is dyed from white to red to signal the setting of the sun, the fricative noise of an old thing from afar, the dust on the swaying tiles, and the folds of a wrinkled shirt. I wonder if it would be enough to faithfully follow only the main stem of the story that makes us curious, but the work has to insist on long lines of 'escaping sputum' in every gap. It is to recommend that you savor the

fruit of a certain object as well as everything surrounding it, saying that it is sweet. The concrete and sensuous 'around' richly reveals the fluency and fertility of life, and thus makes one feel that life is not in isolation, but that there is a joy that is firmly rooted in the landscape, context and society that deserves attention. Even in places that are not landscape paintings, landscapes swaying with the subject exist, and there is a reason for that.

However, there is no landscape behind the subject Yeo Woon Lee painted. As if the scene does not exist and only the object exists, the artist does not have the will to describe the appearance of objects and events one after another. He adopts a completely different format. It is not possible to dare to attempt to link the subject's life with the world or to associate the subject's inner side with a rich background. Just as in the Bible, when Yahweh shouts "Abraham!" and a timeless answer is triggered, "Look, here it is", we have no idea where and when Yeo Woon Lee's object was located, what he was doing before answering. It seems impossible to ask. However, in the midst of this 'leap', everything returns. Except for one building illuminated by pin lighting, there is a vacuum and blank space, and there is something immense and overwhelming than the works that have ever portrayed the landscape, and it is implied that the viewer must remain silent about it. This leaping stroke of under-information makes all the world I longed for possible.

In Yeo Woon Lee's paintings, such as Changdeokgung Palace, Deoksugung Palace, Jeokgamru Pavilion, Opera Garnier, Re-unification Palace, and the Korean Medical Center, historical buildings that would not have meaning without intertwining narrative and background are placed independently without narrative and background. And they retain



the form of the beginning as if they had never had any experience. He ignores all the moss, wrinkles, and cracks that have risen through the cracks over time, and even rejects the 'fact' that the reproduced ones do not exist today, and he makes his first expression on the screen alone. Materials including various auxiliary materials mobilized for architecture are the result of the inevitable intention ordered by the shape of design. Whether it is constructed by tradition, derived from circumstances such as weather and soil, or dictated by the architect's conceptual ideal, there is no freedom in anything contained in a building. They are only faithful 'servants' who obey orders. However, when the surroundings withdraw from the subject's side, they lose their command. And when even time is transferred for the first time, they do not acquire freedom from any lapse, but act as if they had obtained freedom from birth.

The length of the eaves of Injeongjeon Hall of Changdeokgung Palace is adjusted so that it does not get wet in the rain because the material of the building is wood. On the other hand, the slope of the ugliness at the end of the eaves is sculpted to absorb sunlight well so that the wet wood does not rot. Some people think that the curve that conforms to the golden ratio creates 'beauty', but beauty does not engage in orders. However, in Changdeokgung Injeongjeon (2021) painted by the artist, the sky does not exist in the first place, so there are no clouds to wet it. No, this building has no latitude and longitude, i.e. place. Having no surroundings, he reveals for the first time a 'beginning' without being engaged for a purpose and adapting to a background. He is not created by the surroundings, but creates the surroundings himself. The light does not draw his shadow, but the shadow created by his own body, which makes him realize that light exists, and thus makes him guess that there is time. It does not make the way go to him, but makes him realize that there is a way because there is a door in his body. There are only things that are not on the screen, but there are things that are not there, so we have no choice but to make a leap forward.

Excluding the Form of Majesty series of recent works in 2021, the names of the works such as National Taiwan Literature Museum

and Hanoi Opera House are named after the works, confirming the author's remarks or attribute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e content of the work. It is impossible to detect a work that contains neither a title nor a screen nor any story requires a reading through the 'form' rather than the solemn content. In the dualism of subject and object, the condition to create subjectivity, that is, 'subjectivity' of the subject, depends on whether the given situation can be changed. The subject is specified on the screen when he has the initiative in interpretation, starting with moving objects and deducing the surrounding background from the subject's atmosphere. However, in spite of the established subject, if his flaws are found, it is that he cannot deal with the original time. A free choice is always prepared for the choice of a given option. He only intervenes at a certain moment, but does not create that 'moment'. However, in Yeo Woon Lee's work, the building establishes the radical authority of the subject by creating the objects and backgrounds to be made by leaps and bounds.

And this form is also an attitude toward 'truth'. If art is about a moment in which life is cut by the truth, then the artist chooses an aesthetic attitude between 'the truth must be told' or 'the truth must be protected from words'. The former has value as a fight against lies, while the latter has constructive value for the future in that the truth creates a structure in which to come back. A work can confront lies through expression, but it can also hide the truth that will be damaged from expression. The form of Yeo Woon Lee's work is devoted to the latter. He withdrew from painting all that was beautiful, and painted the building as a place to hide all that was beautiful. In front of his works, without certainty of anything and without confirming the cohesion of any content, he has to approach a certain subject only as a 'leap' between foreshadowing and allusion, and then repeat the retreat with suspicion. As a result, this conflict is a form of going through something forever rather than reaching it, a form of homecoming fire. The colorless and intangible road drawn by the artist allows only such a destination to be explained.

It's a portrait. Yeo Woon Lee said so with a screen where nothing but one building exists. Can a single person's face be filled with only the strokes? But rather than not being able to find eyes and nose, rather than saying nothing, I am gazing at the fact that the building has an attitude to listen and that if I spit it, it will collapse like a human. He cannot come to me, but he has a door so I can enter him. The body, free from a certain plot, looks at me at the same time as my gaze, with an expression freshly born without any taming, which is engaged in no function or purpose for the first time. Yeo Woon Lee's building is painted on the screen as it was born, regardless of its 'reality'—or against it. A clear first face, forgetting the history that established him, the people, and even the capital. It means that you can show your integrity without contributing to anything and without cause or background. Maybe that's the reality of the dream of human existence. I shuddered alone, unable to explain anything. So what's left here is nothing but a portrait.

**References**  
Hee Cheol Kwon, 『*The Unconscious of Form or Text*」, 『*Munhakdongne*』 No. 94, Munhakdongne Publishing, 2018, pp.1-10  
Hyeon Cheol Shin, 『*Where Does Poetry Go*」, 『*Community of Feeling*』, Munhakdongne Publishing, 2011, pp.15-20  
Eun Young Jin, 『*There is*』, 『*Stealing Song*』, Changbi Publisher, 2012, pp.8-9



**발행처** 호반문화재단, H ART LAB  
**이사장** 우현희  
**디렉터** 조서은  
**큐레이터** 박선경, 심지영

**기획협력** 캠퍼운데이션  
**디자인** EMC (Every Move Counts)

**H ART LAB**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  
www.h-artlab.co.kr  
T. 02.6177.0095  
E. contact@h-artlab.co.kr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2022. H ART LAB All rights reserved.

**Publisher** Hoban Cultural Foundation, H ART LAB  
**Chairman** Hyunhee Woo  
**Director** Seoeun Jo  
**Curator** Sunkyoung Park, Jiyoung Shim

**Cooperation** CAN Foundation  
**Graphic Design** EMC (Every Move Counts)

**H ART LAB**  
22-16, Yangjae-daero 2-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www.h-artlab.co.kr  
T. +82.2.6177.0095  
E. contact@h-artlab.co.kr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 2022. H ART LAB All rights reserved.



